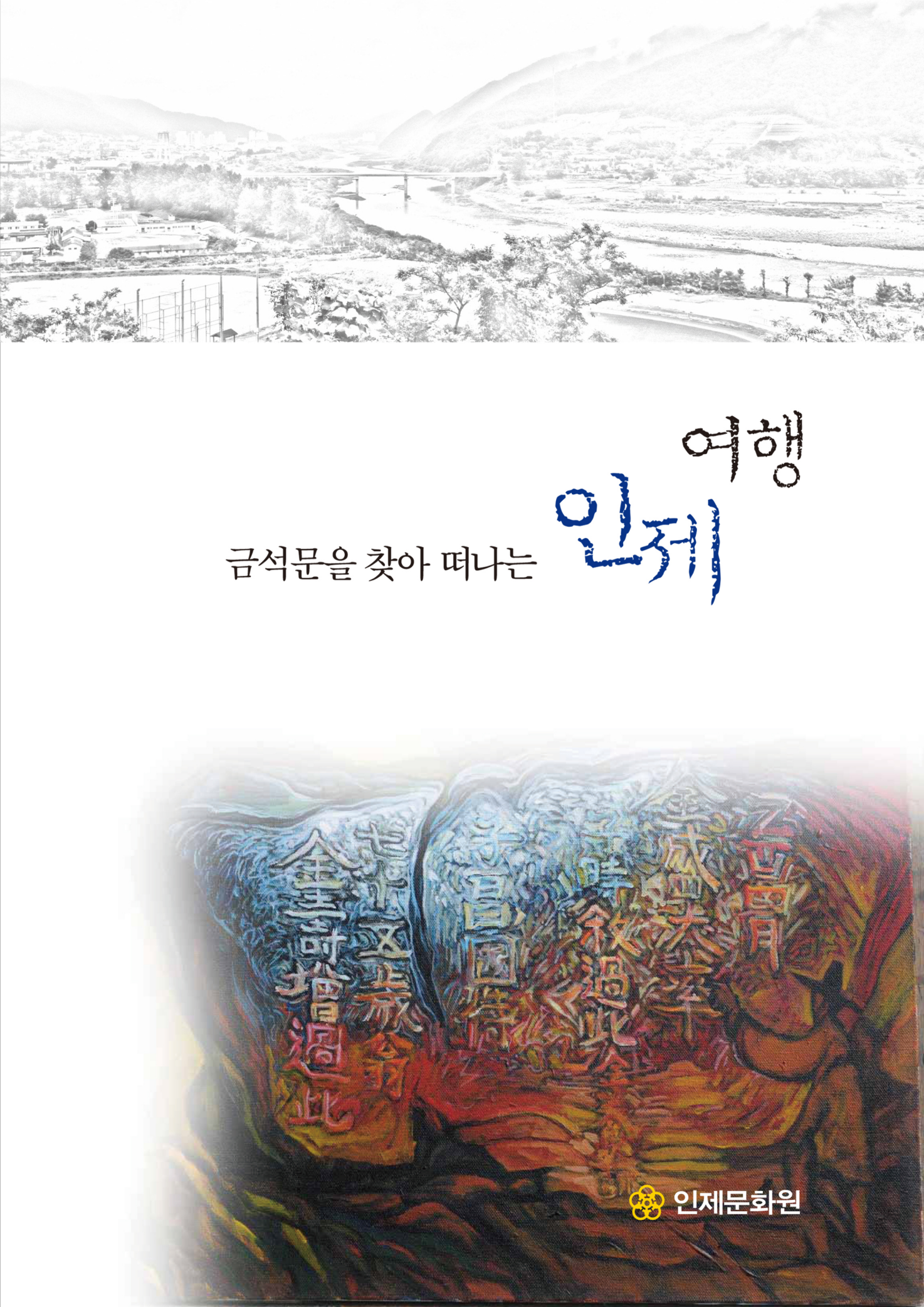
금석문을 찾아 떠나는 인제 여행



인제문화원

금석문을 찾아 떠나는 인제 여행

인제문화원

금석문을 찾아 떠나는

인제 여행

인쇄 2015년 12월 26일

발행 2015년 12월 28일

발행인 남덕우 인제문화원장

기획인 백창현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글 사진 권혁진

조사 탁본 고장호 양정모 허은영 홍하일

펴낸곳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TEL 033)461-6678

편집 도서출판 산책

제작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둑길 23
TEL 033)254-8912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인제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도 ·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금석문을 찾아 떠나는

인 제 여 행

발간사

금석문(金石文)은 쇠로 만든 종이나 돌로 만든 비석 따위에 새겨진 글자나 도형을 말합니다. 쉽사리 마모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견뎌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나 문화를 연구·고증하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비에 새겨놓은 금석문은 대개 사건 당시 또는 그와 가까운 시기의 상황을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인제 지역의 금석문은 비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는 크게 묘비, 유허비, 정려비, 효열비, 선정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시대별로는 모두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때 세워졌습니다. 묘비는 묘소에 세우는 비갈을 총칭하는 말로 묘표, 묘갈, 신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묘표(墓表)는 묘의 봉분 앞에 묘의 주인공을 표시하기 위해 작은 돌에다 새겨 세운 비를 말합니다. 묘갈(墓碣)은 죽은 자의 공적이나 사적을 명과 함께 새긴 비로 규모는 신도비보다 작으며 정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자의 묘에 썼습니다. 신도비는 보통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높은 벼슬(조선시대의 경우 종2품 이상)을 지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행적을 기록하여 묘 앞길에 세우는 비석으로 주로 생전에 세운 공로나 인품을 기록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박원굉의 묘비가 대표적입니다.

묘비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비로는 유허비, 선정비 등이 있습니다. 선인들의 유적을 기념할만한 곳에 비를 세우고 태어났거나 거주했던 내용을 그 업적과 더불어 찬양하여 세우는 유허비(遺墟碑)로는 영시암 유허비가 있었으나 문헌지료로만 전해

인제문화원장 **남덕우**

져 아쉬울 따름입니다. 도암 이재선생의 유허비도 눈길을 끕니다.

인제지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문은 선정비입니다. 주로 조선시대 인제 현감을 지낸 분들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합강정 뒤 비석거리에 비석이 즐비하게 서 있던 것까지 전해졌으면 더 풍성해졌겠지만 전해지지 않아 유감입니다. 비문 중에 정려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제 이곳저곳에 있는 정려각 안의 비문은 인제 지역이 절의의 고장임을 알려줍니다.

한편 인제 금석문에서 특이한 점은 금표가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흥사지에 새겨진 황장금표는 인제에서 황장목이 많이 자랐음을 알려줍니다. 미산리의 산삼금표는 예전부터 산삼이 많이 자랐음을 알려줍니다.

자연 상태의 바위나 벼랑의 평평한 면에 새긴 글자는 설악산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설악산을 유람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암각문은 당시 유람문화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입니다. 특히 백담계곡에 김수증이 새긴 글귀는 유산기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멸영암 부근에 새겨진 글씨들은 이곳이 유람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인제지역에 산재한 금석문들을 한군데 모아 답사기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하였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 책을 통해 인제군을 깊게 이해하고, 나아가 인제의 문화유산인 금석문이 타 지역에 소개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Contents

1 인제읍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 12
현감 이종우 선정비

인제에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해 대가가 되다 / 15
도암 이재 선생 유허비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한 인제의 김만덕 / 19
신의경 은덕영사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스스로 나누어 주다 / 22
덕산리 기근수해만세불망비

먼저 이길 채비를 갖춘 후에 싸움에 임한다 / 25
절충장군 심준학 묘비

유복자와 살면서 백발이 되도록 절개를 지키다 / 28
전주김씨 정려각

귀둔초등학교 설립에 만 평을 기증하다 31
이현주 영세불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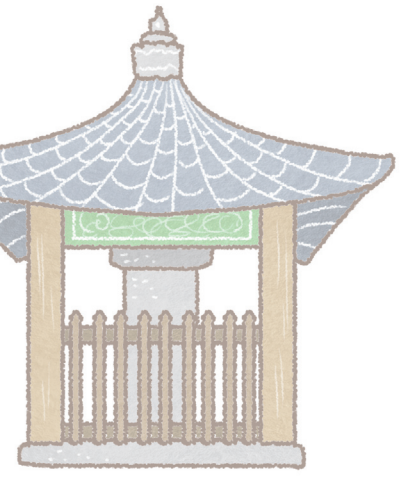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인가 34
순천김씨 정려각

폭우가 쏟아져 불 속에서 살아나다 38
원대리 삼척김씨 열녀각

2 남면

꽃다운 여섯 분의 희생으로 학교가 서다 44
육위 영세불망비

소나무 숲에서 마의태자 전설을 듣다 47
갑둔리 5층석탑



3 상남면

참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 52
관파 양교희 전학불망비

보 공사에 소 한 마리를 내놓다 55
곽해규 송덕비

열녀는 두 사내를 섬기지 않는다 58
강릉김씨 정려각

산삼이 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1 62
산삼가현산서표

산삼이 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 2 65
산삼가현산서표

사라진 개인약수 비석 68
지덕삼영세불망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71
류재구 불망비

하남리 의식동 고갯마루 풀 속에 눕다 75
참봉 류구열 묘비

아름다운 자포대에서 아름답게 정절을 지키다 78
전주이씨 정려각

미다리에서 의(義)를 행하여 이름이 나다 81
황덕신 기념비

4 기린면

선정비가 훼손된 까닭은 86
부사 이일증 영세불망비

공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물처럼 깊네 89
부사 김경균 청덕불망비

또 하나의 훼손된 선정비 92
부사 조진순 청덕선정비

화천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 반갑구나 95
부사 이용은 영세불망비

질병 없이 건강하신가 보다. 어찌 저리 사냥을 잘하실까 98
부사 홍우순 애민선정비

명령을 받들어 훌륭한 계책을 내도록 하라 101
춘천부유수겸진어사 임상준 영세불망비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석농체로 이름을 떨치다 105
관찰사 이종우 선정비

마을의 수호신 박대감 박원굉 109
평장사 박원굉 묘지석

마을 사람을 위한 은혜 어찌 잊을 수 있으랴 113
한진동 불망비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대변해주다 117
유학 엄공경 불망비

노전동 산꼭대기에 우뚝 선 묘비 120
절충장군 김복형 묘비

5 서화면

민통선 안을 지켜온 장군 126
절충장군 류공 묘비

6 북면

황장목 벌채를 금하노라 132
운흥사지 황장금표

김수증, 옥녀탕 옆에 옥류천을 새기다 135
옥녀탕 금석문

한계산성과 마의태자, 그리고 천제단 142
천제단에 새긴 금석문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구나 146
대승폭포 구천은하

75세 된 아버지 김수증을 모시고 지나가다 150
백담계곡에 새겨진 글씨들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백담사의 부도 155
연포당 부도와 처사축심 부도

황장연 옆에 글을 새기다 158
담석

숲 속에서 내설악을 지켜 온 부도 161
설담당부도

영시암터에 김창흡을 기리는 비를 세우다 164
영시암 유허비

내설악을 유람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머물던 곳 168
수렴동대피소 및 유홍굴

산양의 안식처에 이름을 새긴 네 사람 171
가야동 금석문

설악산을 유람하다 오세암에 들리다 175
정원용과 홍은섭 비석

다양한 필체로 빼곡하게 바위를 채우다 178
김영목부터 장한국비까지

인제현감, 18세기 초에 설악을 유람하다 183
조진세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1 185
물에 잠긴 금석문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2 191
인제현감 어재완과 그의 아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3 194
민백흥과 여러 사람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4 200
만수담 옆 글자들

네 번 설악에 들어왔다가 두 번 봉정에 올랐다 203
김광수와 이광

불심으로 높은 곳에 새기다 207
석가사리탑

석가사리탑 탑대에 오르다 209
정상우부터 조일수까지

이종우 선정비
이재선생 유허비
신의경 은덕영사비
인제군청
심준학 묘비
기근수해만세불망비
인제읍
한석산
이현주 영세불망대
전주김씨 정려각
곰배령
하추리 계곡
순천김씨 정려각

1
인제읍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 현감 이종우 선정비

인제에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해 대가가 되다 / 도암 이재 선생 유허비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한 인제의 김만덕 / 신의경 은덕영사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스스로 나누어 주다 / 덕산리 기근수해만세불망비

먼저 이길 채비를 갖춘 후에 싸움에 임한다 / 절충장군 심준학 묘비

유복자와 살면서 백발이 되도록 절개를 지키다 / 전주김씨 정려각

귀둔초등학교 설립에 만 평을 기증하다 / 이현주 영세불망대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인가 / 순천김씨 정려각

폭우가 쏟아져 불 속에서 살아나다 / 원대리 삼척김씨 열녀각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청 안
건 립 1819년 이후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현감(縣監) 이종우(李種祐) 선정비(善政碑)

계강자(季康子)라는 노나라 대부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는다. 공자는 대답하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 그대가 바르게 하여 거느린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으리오[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라고 하였다. 정(政)을 바르게 한다는 정(正)으로 풀이한 것이다. 여기서 바름(正)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여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를 바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어 계강자는 세상 도처에 도둑이 들끓고 있음을 걱정했다. 그러자 공자는 정치인들을 질타했다. "가령 당신이 욕심을 끊는다면, 도둑질을 하라고 권장하더라도 백성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苟子之不欲, 雖賞之不]"이라고 말했다. 도둑이 횡행하는 것은 결국 지도자들이 남의 물건에 탐내고, 부패에 물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욕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인제군청 정문 왼쪽 나무 그늘 밑에 비석이 있다. 그 중 이종우(李種祐)을 기리는 비석이 보인다. 그는 1815년 4월에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있다가 인제 현감으로 왔다. 이후 1819년에 전라도 순창군수로 승진하여 갔다.

그가 공자가 말한 것처럼 바르게 살았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없다. 정보가 없지만 바르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제 주민들이 선정비를 세워주지 않았을 것이다. 선정비를 볼 때마다 요즘의 정치 현실이 겹쳐진다. 공자 말씀처럼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 검찰청 앞에서 사진 찍히는 사람들만 보인다.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정자정야(政者正也)'란 구절을 알고 있을까?

인제에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해 대가가 되다

도암(陶庵) 이재(李縡) 선생 유허비(遺墟碑)

인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누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 도암(陶庵) 이재(李縡, 1680~1746) 선생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오랜 기간 인제에 머문 것은 아니지만 인제읍 일대에 그의 자취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인제군청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 한 귀퉁이에 이재(李縡) 선생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애초에는 인제초등학교 입구 국도변에 있었으나,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곳으로 옮겼다.

그는 숙종 28년(1702)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다. 1719년 부제학을 거쳐 한성부우윤으로 있다가 균전사로 영남지방에 내려가 당면한 토지정책을 논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삭탈관직을 당했다. 그러나 곧 다시 등용되어 이듬해 함경도관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청 안
건 립 미상

찰사가 되었다. 경종 1년(1721) 예조참판으로 재직하던 중 소론의 재집권으로 삭탈관직당한 데 이어 신임사화로 숙부 만성(晩成)이 옥사하자 정계에서 물러나 인제로 들어와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연보를 보면 인제의 생활이 자세하다. 1722년 10월에 가솔을 이끌고 인제 가덕산촌(佳德山村)으로 들어갔다고 적고 있다. 이듬해인 1723년 4월에 설악산을 유람하고, 그 해 8월에 상도리로 이주하여 일최암(一最菴)을 지었다.

영조 1년인 1725에 노론이 재집권하자 부제학에 복직하여 대제학 · 이조참판을 지냈다. 그러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성립되면서 다시 한양 밖으로 추방당했다. 이후 여러 번 영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용인의 한천(寒泉)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길러내는 데 전념했다.

김창협의 문하에서 조광조와 이이를 사숙하였으며, 김창협 · 김창흡 형제, 어유봉, 박필주 등 낙론 1세대를 이어 2세대를 대표하는 학자로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대가이다. 심성론에 있어서 인물성동론을 주장했던 이간의 학설을 계승하고 한원진의 호론을 반박한 낙론의 대표적 학자이다. 예학에 밝았으며, 서화에 능했다. 문인으로 박성원 · 송명흠 · 임성주 등이 유명하다.

1836년에 인제현감 조기순(趙箕淳)은 도암선생의 유적이 있는 것을 알고 이조판서 조인영에게 청하여 선생의 유허비문(遺墟碑文)을 요청하였다. 그 일부다.

> 숙부 충숙공(忠肅公)이 돌아가시자 모부인(母夫人)를 모시고 인제로 은둔하였다. (중략) 처음에는 선생께서 덕산(德山)에 머무르시다 이듬해 읍의 동쪽 상도촌(上道村)으로 옮기시어 작은 암자를 지으시고 일최암(一最菴)이라 편액을 거셨다. 땅에는 복룡(伏龍)과 비봉(飛鳳) 등의 여러 산들이 있고, 읍은 기린이라 부르니 오직 거북이만 빠진 것이나 사람이 가장 영험하니 빠진 하나를 감당할 수 있다. 꽃과 채소심어 모부인을 기쁘게 공양하니, 부인은 손수 연 줄기를 따고, 선생은 광주리 들고 따르며 즐거워 하셨다.

덕산리와 상도리는 도암 선생이 머무시던 곳이었다. 선생은 거처하던 곳을 읊은

시가 박성원의 「한설록(寒雪錄)」에 전해진다. 도암 선생의 아들이 아버지가 상도(尙道)로 이주할 때 지은 시라며 들려준다.

광악산(廣岳山)이 높으니 구름 먼저 생기는데 廣岳山高雲自嗟起先
발 걷고 하루 종일 느긋하게 앉아있네 捲簾終日坐悠然
덕촌(德村)의 일최암(一**最**庵) 잊기 어려운 곳이니 德村最是難忘處
집 모퉁이엔 배꽃 피고 문 밖에 샘물 솟네 屋角**梨**花戶外泉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한 인제의 김만덕

신의경(申儀慶) 은덕영사비(恩德永思碑)

김만덕(金萬德)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양인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퇴기에게 맡겨져 기생 수업을 시작하였다. 제주도 관부의 기생이었으나 양인으로 풀려난 후 객주를 꾸려 큰 재산을 모았다. 1795년 제주도에 몰아친 폭풍과 폭우로 인해 굶어죽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재산의 대부분을 구휼미로 내놓아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하였다. 선행이 중앙에 알려져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를 알현하고, 소원대로 금강산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채제공, 정약용, 조수삼, 김정희 등의 명사와 시인들이 만덕의 선행을 기리는 많은 글과 시를 남겼다. 정약용의 글은 이렇다.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청 안
건 립 19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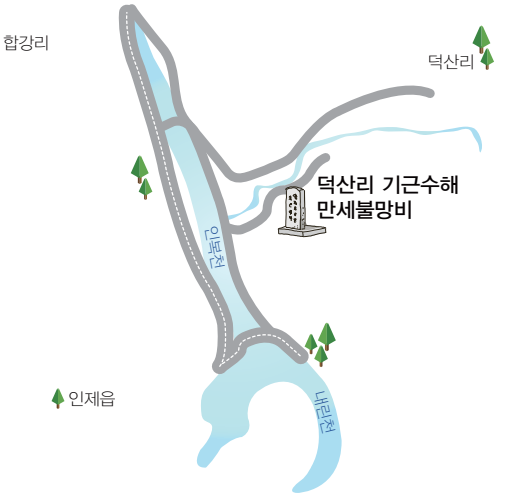
병진년(1796, 정조 20) 가을에 탐라의 기생 만덕(萬德)이 역마(驛馬)로 서울에 불려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 채제공(蔡濟恭)이 그를 위해 전(傳)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驛馬)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지 섬사람으로 내전(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것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

김만덕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으며 죽기 직전 가난한 이들에게 남은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양아들에게는 살아갈 정도의 적은 재산만을 남겼다. 1812년 10월 22일 74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1928년 인제. 춘궁기에 굶주리고 있는 북면(北面)의 백성들을 위해 신의경(申儀慶)은 현금 4,000원을 기부한다. 덕분에 몇 백 명을 구휼할 수 있었다. 북면 백성들은 그의 인정과 은덕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비를 합강정 동북쪽 산기슭에 세웠다. 현재 군청 안으로 옮겨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스스로 나누어 주다

덕산리 기근수해만세불망비



덕산리로 가는 길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떠올렸다. 조선 시대 목민관이 지켜야 할 자세와 알아야 할 지식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한 이 책은, 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이 항상 옆에 놓고 읽었다는 일화도 풍문처럼 전해진다. 여러 항목 중 재해 구호 정책에 해당하는 '진황육조(賑荒六條)'는 덕산리에 있는 비석의 의미를 되짚게 해준다.

'권분(勸分)'이란 무엇인가? 넉넉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나누어 줄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고을 수령은 부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스스로 나누어 주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수령들도 종종 있었다. 애초에 중국의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건 립 1707년 6월. 2003년 현 위치로 옮김

주나라에서 행해질 때 훌륭한 제도였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탐관오리들에게 치부의 구실이나 준다고 정약용은 경고하고 있다.

"곡식을 팔도록 권하는 것이었지 그냥 먹이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베풀도록 권하는 것이었지 거저 바치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몸소 솔선하는 것이었지 입으로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상을 주어 권하는 것이었지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산이 살던 당시의 '권분'은 불법의 극치였다고 비판한다. 불우이웃돕기라는 차원에서 연말연시에 가진 자들에게 강제로 모금하는 것도 변형된 '권분'의 폐해다. 최선의 방법은 가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마음에 우러나는 베풂이다. 강제에 의해 억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선행이 아닌 것이다.

합강교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로는 강을 따라 나란히 달린다. 오른쪽 마을은 한양에서 온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한양촌이다. 도암 이재 선생이 한때 이곳에서 거처하면서 성리학 공부를 해서 대학자가 되었다. 지금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인제군청 안에 유허비만이 도암선생의 인제 생활을 증명해주고 있다. 덕산교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여 개울과 나란한 농로를 따라 가면 길옆에 정자가 보인다. 그 옆에 비석이 있다. 비석은 2003년에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1706년인 숙종 32년에 덕산리에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홍수는 필연적으로 굶주림으로 연결된다. 덕산리 주민들은 하루하루 보릿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했다. 평소 덕망이 높았던 심봉호(沈逢浩)는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웃 간에 정을 두텁게 하면서 수해와 기근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다음해인 1707년 6월에 주민들은 기근과 수해를 영원히 잊지 말자고 만세불망비(萬世不忘碑)를 세우게 되었다.

비석 옆 안내석이 비석의 내용을 알려준다. 비석은 들깨를 배경으로 덕산리 한 가운데 서 있다. 이 비석은 나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루한 일상인들에게 울림을 준다. 이웃이 어려울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 도와야한다고.

먼저 이길 채비를 갖춘 후에 싸움에 임한다

절충장군(折衝將軍) 심준학(沈俊鶴) 묘비

마침 을지훈련 중이라 부대 정문의 경계는 삼엄하다.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내부까지 조사를 한다. 나오는 차량도 동일하다. 정문 위병소에서 출입허가를 기다리다가 옆 박물관에 들리니 출입문에 적어놓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란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에서 따온 말이다. 승리하는 자는 먼저 이길 채비를 갖춘 후에 싸움에 임한다는 것이니, 사전 준비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명언이다. 부대의 철학을 한 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육군2사단 17연대 일명 쌍호연대인 이 부대는 1948년에 창설되어, 6 · 25전쟁 중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건　립 1680년 3월

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50년 7월, 경북 상주 화령장 일대에서 적 15사단 48 · 49연대를 궤멸해 전 장병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긴 화령장 전투, 50년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육군 가운데 유일하게 참전한 인천상륙작전 · 수도탈환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면서 빛나는 역사를 세웠다. 후배 병사들은 선배들의 용맹을 계승해 왔다. 11중대는 2015년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장에서 개최된 '최정예 전투중대 선발전'에서 우승하여 명예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더 추가했다.

한 바퀴 돌고나니 출입이 허가되었다. 연병장과 본부 사이 언덕에 도착하자 잘 정돈된 묘역 가운데 비석 하나가 우뚝하다. 절충장군(折衝將軍) 심공(沈公)과 숙부인(淑夫人) 변씨(邊氏)의 묘임을 알려주는 글씨가 숙종 6년인 1680년 3월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렷하다. 뒷면은 심공(沈公)의 이름인 준학(俊鶴)과 그의 아들 계천(繼天), 계숭(繼崇), 사천(士天)의 이름이 나란하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서반에게 주던 계급으로 무신 중에서 가장 높은 관료 계급이다. 어찌 이리 절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군부대 중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쌍호부대 안에 절충장군의 묘역이 있고, 부대는 그 묘역을 잘 보존하고 있다. 아마 절충장군의 기백이 모르는 사이에 부대원들에게 전수되었을 것 같다.

여기에 여담 하나 더 추가한다. 인제지역은 신령스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제의 이름에 들어간 기린(麒麟), 설악산 봉정암의 봉황(鳳凰), 용대리의 용(龍)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는데 쌍호(雙虎)부대가 인제를 지킴으로써 완벽해졌다. 호랑이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다. 정문을 통과하는데 '충성'소리가 우렁차게 뒤로 들린다.

유복자와 살면서 백발이 되도록 절개를 지키다

전주김씨(全州金氏) 정려각(旌閭閣)

인제의 길은 평지가 나오는가 싶더니 바로 고개로 연결되고 꼬리를 남기며 가파르게 산자락 속으로 숨는다. 현리에서 귀둔리로 가는 길도 어김없이 험하다. 상답교에서 동쪽을 바라보니 점봉산 정상은 구름이다. 세 갈래 길에서 왼쪽은 필례약수로 가는 길이다. 약수는 1930년 경에 발견되었다. 설악산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1994년에 포장도로가 개통되면서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피부병과 위장병에 좋다고 한다. 인제읍에서 귀둔을 거쳐 한계령 방향으로 약 11km 지점이다. 한계령을 넘다가 올 수도 있다. 한계령 정상에서 양양 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연결된 고갯길이 은비령으로 알려진 필례령이다.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귀둔 1리
건 립 1931년

세 갈래 길에서 오른쪽은 귀둔리로 연결된다. 마을로 향하자마자 마을 이름이 새겨진 이정표가 마을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있다. 본래 춘천부 기린현이 있었던 곳으로 귀둔, 또는 이탄(耳呑), 이둔(耳屯)이라 하였는데 1415년 기린현의 소재지를 지금의 방동으로 옮기면서 인제군 동면으로 편입되었다.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피래, 군량밭, 양지말, 용숫골, 오작골, 황골, 곤배골과 기린면 북리의 일부를 병합 귀둔리(貴屯里)라 하여 인제읍에 편입되었다고 알려준다.

이정표 오른쪽에 붉은 정려각이 우뚝하다. 전주김씨 정려각이다. 새롭게 단장한 비각이 조그만 언덕과 나무를 뒤로 하고 있다. 비각은 1931년에 건립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전주 김씨의 유복자 사촌들의 협력으로 1959년에 재건하였다. 김용권(金用權)의 처 전주 김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유복자를 낳았다. 그 후 유복자와 같이 살면서 개가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백발이 되도록 절개를 지키며 살았다.

비각 안의 비석에는 '열녀김용권처전주김씨지비(烈女金用權妻全州金氏之碑)'라 새겨져 있다, 그런데 비각 밖에 또 하나의 비석이 누워 있다. 똑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각을 새로 지으면서 비석을 교체한 것 같다. 좋은 의도로 교체했겠지만 기존의 비석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귀둔초등학교 설립에 만 평을 기증하다

이현주(李鉉周) 영세불망대(永世不忘臺)

귀둔리로 들어서자 커다란 조형물에 점봉산 산채마을이란 글씨가 반긴다. 귀둔리 하면 점봉산과 곰배령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필례약수가 뒤따르곤 했다. 최근에 곰취를 비롯한 산나물도 함께 등장한다. 훨씬 이전부터 귀둔리의 산채는 유명했다. 점봉산이 길러준 얼레지, 두릅, 고사리, 취나물, 곰취 등이 5월말까지 쏟아져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귀둔리는 역사가 깊은 마을이다. 원래 춘천부 기린현에 속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기린현의 중심 소재지였다. 1415년 춘천군이 춘천도호부로 승격이 되고 기린현의 소재지가 방동리로 옮겨지게 되기 전까지 이 일대의 중심지였다. 귀둔리의 지명들이 옛 영화를 알려준다. 버덩말 서쪽 기린현의 향교가 있던 터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
건 립 1931년

를 아직도 향교둔지라 한다. 쇠물안골 동남쪽에 있는 군량동(軍糧洞)은 군량을 생산해 내는 밭이 있었다. 군량밭은 군량동 앞에 있는 7만여 평의 밭으로 의병들이 양식을 쌓아 두었다고 전해온다. 역답(驛畓)은 버덩말에 있는 들로 경지면적은 3만평에 달하고 조선시대에 역둔전이었다.

귀둔리는 동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운 최제우의 큰아들인 세정(世貞)은 1871년 영해 신미교조신원운동 후 동학에 대한 관의 탄압이 다시 심해지자 귀둔리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양양 관아에서는 이를 탐지하고 귀둔리까지 추적하여 양양으로 끌고 가 수감시켰다.

귀둔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정문 옆에 있다던 비석은 보이질 않는다. 정문을 들어서니 건물 뒤로 점봉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여기저기 살펴보니 화단에 조그만 비석이 있다. 비석을 읽어보니 '이현주(李鉉周) 영세불망대(永世不忘臺)'다. 이현주(李鉉周)는 구한말에 돈녕부(敦寧府)의 도정(都正)과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역임했다. 그는 귀둔초등학교 설립 당시에 황무지 만 평을 기증하여 재정에 보탬을 주었다. 이에 소화(昭和) 3년인 1928년 4월에 마을 사람들과 이현주의 아들 준영(俊永)과 지영(枝永)이 비를 세웠다. 비석은 전쟁 때 파손되었고, 1955년 3월 귀둔초등학교 교장 이종인(李鍾仁)이 다시 건립하였다.

학교는 수업 중인지 조용하고, 점봉산은 아직도 구름에 쌓여있다. 마을을 나서는데 곰취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인가

순천김씨(順川金氏) 정려각(旌閭閣)

처음엔 기린면 북3리 하답에서 순천김씨 정려각을 수소문했다. 주민은 오토테마파크인 인제스피디움이 건설되면서 없어졌다고 아쉬워한다. 이런 낭패가 있나. 문화유산을 소홀히 다루는 현실에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던 일이 엊그제였다. 그런데 다시 순천김씨 정려각을 보러 덕산리로 가고 있다. 정려각이 이전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덕적리를 지나 덕산리에 진입하여 블록 공장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밭과 산의 경계 지점에 조그만 건물이 보일 듯 말 듯 서 있다. 길가에 안내 표시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간다. 개망초 무성한 묵정밭을 가로질러 오르니 새로 지은 정려각이 외롭게 기다린다. 비석은 '이두영처(李斗榮妻) 효열부인(孝烈夫人) 순천김씨비(順川金氏碑)'라 새겨져 있다. 뒷면엔 소화(昭和) 7년이 보인다. 1932년이다. 눈을 드니 비각 위에 '효열부(孝烈婦) 순천김씨(順川金氏) 비각문(碑閣文)이 걸려 있다. 첫 줄에 『시경』 한 구절이 인용되었다.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북3리에서 인제읍 덕산리로 이전
건 립 1932년 10월

하늘이 뭇사람을 내시니 天生烝民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有物有則
사람들이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民之秉彝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 好是懿德

백성들은 타고난 떳떳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의덕(懿德)인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이어진 글을 보니 아름다운 덕은 삼각오륜(三綱五倫)이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면서 유교가치관을 확산시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교적 윤리규범에 따른 선행을 장려하는 일이었다. 순천김씨도 아름다운 덕이 있었기에 그를 기리기 위해 정려각을 세워준 것이다.

순천김씨는 시집간 지 4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때 갑자기 남편이 병에 걸렸다.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했으나 남편은 죽고 말았다. 김씨는 슬퍼하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소생한 다음 남편을 따라 죽고자 했다. 그러나 늙은 시부모와 어린 자식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남편의 장사를 치르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게 된다. 이후 20여 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을 엄하게 가르쳤다. 소문이 인근에 퍼져나가자 인제군 유림들이 1932년 10월에 그녀의 정절과 효성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우고 정려각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개망초 속에서 '의덕(懿德)'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대에 걸 맞는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덕목이 있겠지만 『채근담』 속 아름다운 덕은 현재에 더 어울릴 것 같다.

청렴결백하면서도 아량이 넓고, 어질고 인자하면서도 결단력이 강하며, 총명하면서도 남의 결점을 잘 들추어내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른바 꿀을 넣은 음식이면서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다.[淸能有容, 仁能善斷, 明不傷察, 直不過矯, 是謂 蜜餞不甛 海味不鹹 纔是懿德]

폭우가 쏟아져 불 속에서 살아나다

원대리 삼척김씨 열녀각

원대리(院垈里)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자작나무다. 1990년대에 조성된 자작나무숲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아름드리로 성장했고, 이색적인 풍경을 구경하러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래프팅이란 단어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래프팅이 시작되는 곳에서 다리를 건너면 원대리다.

열녀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제읍에서 출발하여 다리를 건넌 후 큰 길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자작나무숲 입구가 있는 고개 마루까지 갔는데도 보이질 않는다. 주민에게 물으니 까마득하게 보이는 곳을 가리키며 다시 되돌아가란다. 중간에서 다시 물으니 안삽재로 가면 된다고 동네 아주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안삽재
건 립 1638년, 1979년 새로 설립

머니는 가르쳐주신다.

원대리(院垈里)는 원(院)이 있었던 터라하여 원대(院垈)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도 역에서 경작하던 역답(驛畓)이라 불리는 논이 전해온다. 예전에 관음원(觀音院)이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고 해 원대라 불렀다고도 한다. 원대리 6반 절골에 있는 절터에 석탑이 아직도 있다.

안삽재로 들어서면서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좁은 골짜기에 열녀각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더 진입하자 골짜기는 점점 넓어지면서 집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참을 가도 보이질 않는다. 차를 세우고 콩밭 매는 아주머니께 물으니 열녀각의 주인공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곤 다시 내려가란다.

> 인조 14년인 1636년. 조옥립(趙玉立)이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에 살고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이 때 관군을 이끌고 싸우다 대세가 불리하여 원대리에 은신하여 살게 되었다. 그러자 적들이 은신처를 알고 찾아와 부인인 삼척 김씨 양손에 쇠로 구멍을 뚫는 등 갖은 고문을 하면서 조옥립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끝내 굴하지 않자 김씨를 장작더미 위에 눕히고 불을 질렀다. 그 순간 천둥과 벼락이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적들은 벼락을 맞아 죽고 김씨는 살아날 수 있었으나, 10여 일 후 시달린 상처로 사망하였다. 조정에서는 김씨의 절개를 기리기 위하여 1638년에 열녀문을 세워주었다.

오던 길을 천천히 내려가며 유심히 살피니 왼쪽 길 위에 열녀각이 보인다. 왜 보지 못했을까. 길이 굽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높은 축대 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길 옆뿐만 아니라 열녀각 옆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쉽게 찾았을 것이다. 새로 지어진 열녀각은 단정하다. 비각 안의 비석도 1979년에 새로 만들었다.

열녀각에서 인상적인 것은 소나무다. 소나무는 절개를 상징하니 절묘하게 잘 어울린다.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듦을 안다'는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知松栢之後彫也)'란 논어의 구절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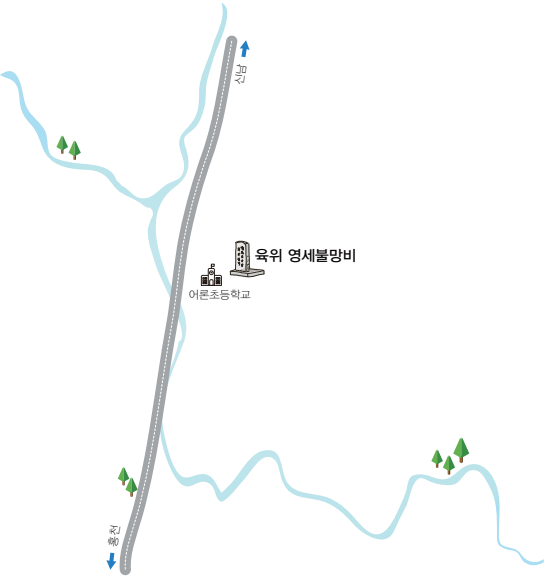
남전계곡
남면
망태봉
육위 영세불망비
응봉산
갑둔리 5층석탑

2
남 면

꽃다운 여섯 분의 희생으로 학교가 서다 / 육위 영세불망비
소나무 숲에서 마의태자 전설을 듣다 / 갑둔리 5층석탑

꽃다운 여섯 분의 희생으로 학교가 서다

육위(六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홍천군 장남리는 인제군 어론리와 고개로 연결된다. 예전에 고개 아래에 건이원(建伊院)이란 역원(驛院)이 있어 '거니고개'라 부른다. 지역 주민들은 건니고개라고도 부른다. 고개가 낮아 "놀기 좋기는 합강정이요, 넘기 좋기는 거니고개다"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고개다. 군인을 둔 부모나 여자 친구들은 최신 정예 과학화기를 다루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KCTC) 입구로 알고 있다.

고개를 반쯤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접어들어 어론초등학교를 찾았다. 정문 입구에 비석이 있다는 자료를 보고 찾았으나 보이지 않는다. 새롭게 단장한 학교 건물들과 정문. 공사를 하면서 비석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병아리 같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방긋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소재지 인제군 남면 어론리 어론초등학교 본관 옆 축대
건 립 1942년 8월 15일

"비석이 뭐예요?"

라고 되묻는다. 마침 출근하는 선생님께 물으니 학교 뒤편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찾는 비석일지 모른다며 친절히 알려주신다.

본관 뒤편에 비석이 서있다. 축대 위에 하얀 대리석으로 단장한 것을 보니 학교를 신축하면서 이곳으로 옮긴 것 같다. 비석 옆에 2013년에 어론초등학교 총동창회가 세운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내용은 이렇다.

> 1933년 2월 1일, 본교 신축공사 터파기 공사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송용손(宋龍孫), 변만복(邊萬福), 박광섭(朴光燮), 조경옥(趙慶玉), 김원(金元萬), 김창수(金昌洙) 등 여섯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17세에서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학교건립을 위해 청춘을 바친 것이다. 이 영령들을 추모하고자 건립하였다.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나중에 확인하니 어론초등학교는 1933년 3월 2일에 간이학교로 인가받았고, 1937년 4월 1일에 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여섯 분의 희생 위에 간이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비석을 찬찬히 읽었다. 비석 위에는 여섯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송용손(宋龍孫), 변만복(邊萬福), 박광섭(朴光燮), 조경옥(趙慶玉), 김원만(金元萬), 김창수(金昌洙) 순서다. 비석 가운데는 '육위(六位) 영세불망지비(永世不忘之碑)'가 깊게 새겨져 있다. 여섯 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뒷면을 보니 소화(昭和) 17년 8월 15일이다. 어론공립국립학교후원회(於論公立國民學校後援會)가 1942년에 비를 세운 것이다.

비석을 촬영하고 조사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학생들이 한두 마디씩 거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응, 비석을 조사하고 있어"

"왜요?"

"음, 비석들만 조사해서 글을 쓸려구"

대여섯 명이 에워싸고 놓아주질 않는다. 그러나 어쩌랴. 다음 행선지로 바삐 이동해야 한다. 아이들은 저 분들의 희생 위에 이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소나무 숲에서 마의태자 전설을 듣다

갑둔리 5층석탑

갑둔리로 가는 길은 멀고 구불구불하고 험하다. 국도에서 갑둔리로 핸들을 돌리자마자 마의태자유허비가 시선을 끈다. 인제 어디를 가던 마의태자의 발길을 찾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예전엔 듣곤 흘려보냈지만 이젠 마의태자의 망국의 회한과 구토회복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가는 트럭은 고개를 숨 가쁘게 오른다. 계속 이어지는 커브길이라 느긋하게 따라가야만 했다.

갑둔리 삼층석탑을 먼저 봤다. 도로에서 900m라고 하지만 더 먼 것 같다. 갑둔리 3층 석탑의 건립 연대는 고려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 탑의 높이는 2층 옥개와 3층 탑신을 제외하고 2m 남짓이다. 이러한 규모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3층 석

발원문이 새겨진 탑신

갑둔리 3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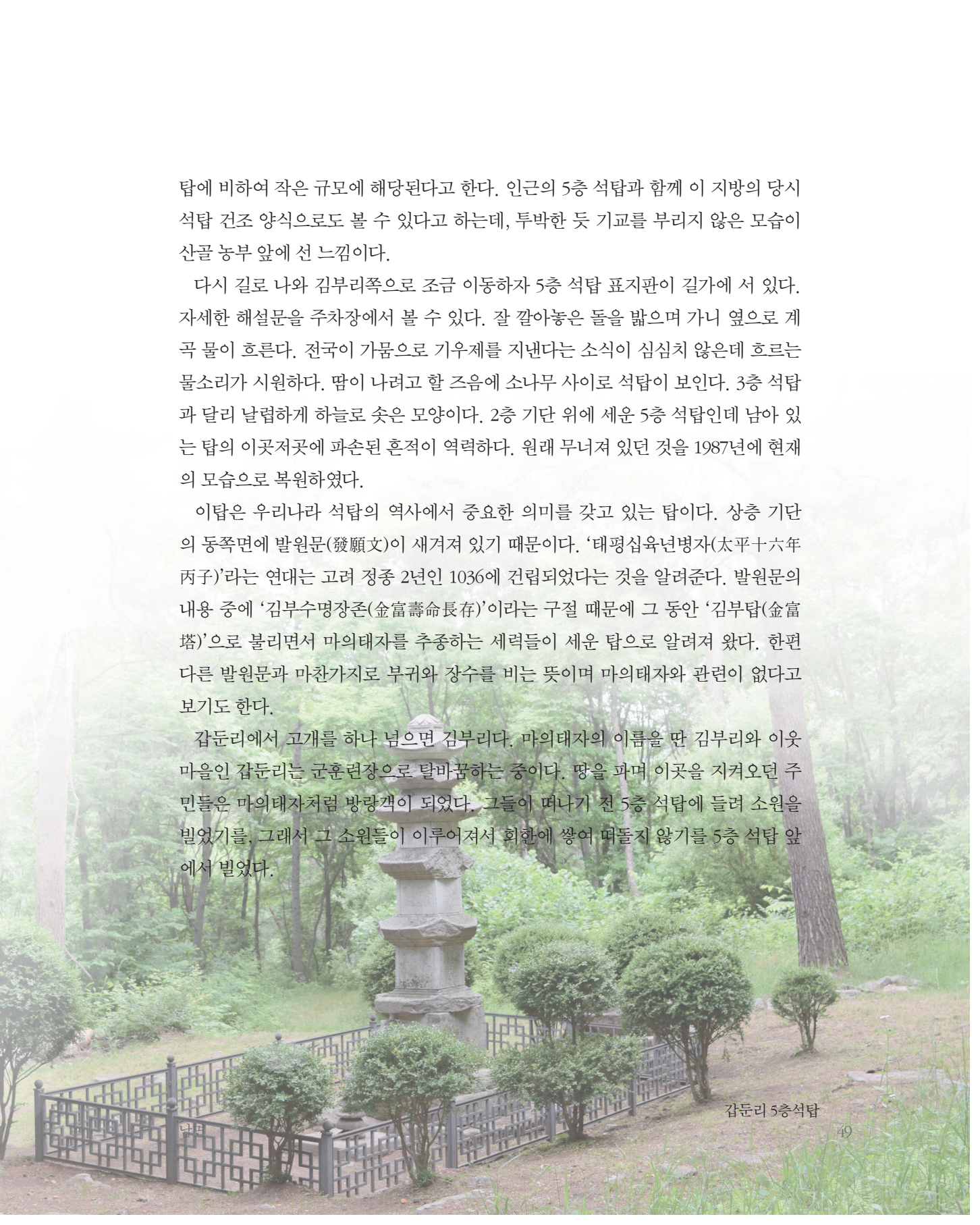
소재지 인제군 남면 갑둔리
건　립 고려초

탑에 비하여 작은 규모에 해당된다고 한다. 인근의 5층 석탑과 함께 이 지방의 당시 석탑 건조 양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투박한 듯 기교를 부리지 않은 모습이 산골 농부 앞에 선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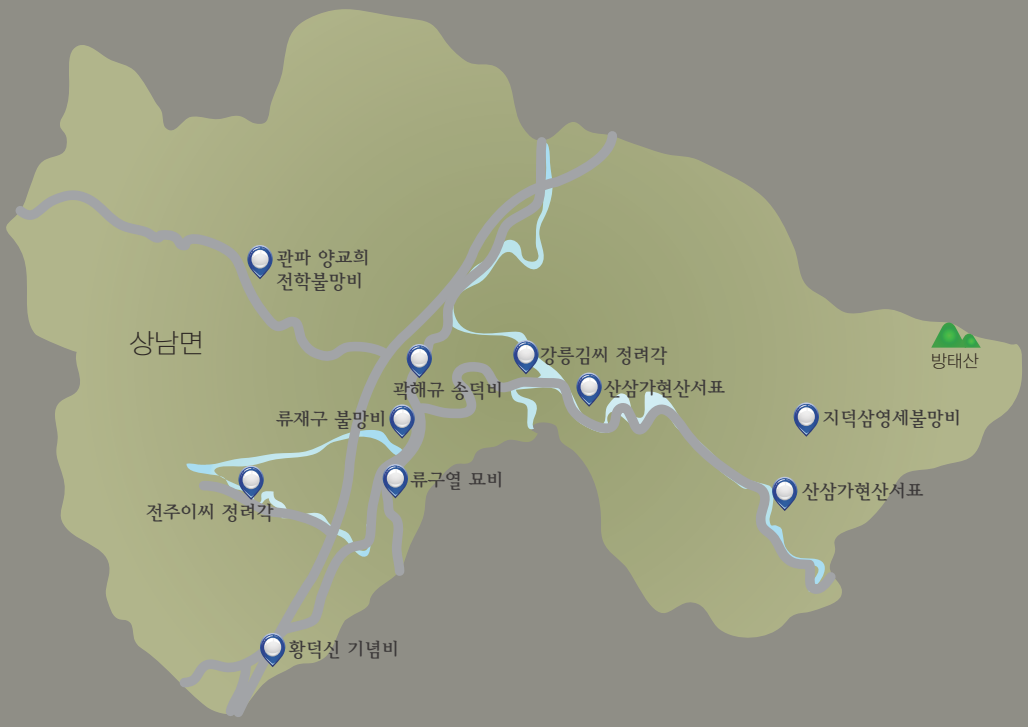
다시 길로 나와 김부리쪽으로 조금 이동하자 5층 석탑 표지판이 길가에 서 있다. 자세한 해설문을 주차장에서 볼 수 있다. 잘 깔아놓은 돌을 밟으며 가니 옆으로 계곡 물이 흐른다. 전국이 가뭄으로 기우제를 지낸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은데 흐르는 물소리가 시원하다. 땀이 나려고 할 즈음에 소나무 사이로 석탑이 보인다. 3층 석탑과 달리 날렵하게 하늘로 솟은 모양이다. 2층 기단 위에 세운 5층 석탑인데 남아 있는 탑의 이곳저곳에 파손된 흔적이 역력하다. 원래 무너져 있던 것을 1987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이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탑이다. 상층 기단의 동쪽면에 발원문(發願文)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태평십육년병자(太平十六年丙子)'라는 연대는 고려 정종 2년인 1036에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발원문의 내용 중에 '김부수명장존(金富壽命長存)'이라는 구절 때문에 그 동안 '김부탑(金富塔)'으로 불리면서 마의태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세운 탑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다른 발원문과 마찬가지로 부귀와 장수를 비는 뜻이며 마의태자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갑둔리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김부리다. 마의태자의 이름을 딴 김부리와 이웃마을인 갑둔리는 군훈련장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땅을 파며 이곳을 지켜오던 주민들은 마의태자처럼 방랑객이 되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 5층 석탑에 들러 소원을 빌었기를, 그래서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회한에 쌓여 떠돌지 않기를 5층 석탑 앞에서 빌었다.



갑둔리 5층석탑


관파 양교희
전학불망비
상남면
강릉김씨 정려각
방태산
곽해규 송덕비
산삼가현산서표
류재구 불망비
지덕삼영세불망비
류구열 묘비
전주이씨 정려각
산삼가현산서표
황덕신 기념비

3
상남면

참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 / 관파(觀坡) 양교희(楊敎熙) 전학불망비(傳學不忘碑)
보 공사에 소 한 마리를 내놓다 / 곽해규(郭海奎) 송덕비(頌德碑)
열녀는 두 사내를 섬기지 않는다 / 강릉김씨 정려각
산삼이 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1 /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
산삼이 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 2 /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
사라진 개인약수 비석 / 지덕삼영세불망비(池德三永世不忘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 류재구(柳在龜) 불망비(不忘碑)
하남리 의식동 고갯마루 풀 속에 눕다 / 참봉(參奉) 류구열(柳龜烈) 묘비
아름다운 자포대에서 아름답게 정절을 지키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정려각(旌閭閣)
미다리에서 의(義)를 행하여 이름이 나다 / 황덕신(黃德信) 기념비(記念碑)

참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

관파(鸛坡) 양교희(楊敎熙) 전학불망비(傳學不忘碑)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또는 학부모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는 이제 놀랄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권 추락과 사제 간 신뢰 상실 등의 어휘로 대변되는 요즘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이 등장한다. 지난 7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인성교육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면 올바른 인성이 저절로 함양될까? 머리가 갸웃거려진다. 인성이 중요한 것은 알겠으나 그것을 기르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인성교육진흥법은 공허하기만 하다.

갑둔리를 숨 가쁘게 지나온 차는 김부대왕이 수레를 타고 넘어 다녔다는 수레너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김부 2리
건　립 1930년 9월 1일

미를 힘겹게 넘었다. 산속임에도 제법 넓은 김부리는 황량한 벌판이 된지 오래다. 군사훈련을 위해 이 지역은 군부대 땅이 되었고, 주민들은 부평초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비득재를 넘었을 것이다. 비득재 발치 김부리가 끝나는 지점에 '상남7교'가 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쪽을 바라보면 길 아래로 뻘겋게 녹슨 양철 지붕이 보인다. 도로보다 어른 키 정도 밑에 위치한 건물은 관파(鸛坡) 양교희(楊敎熙) 선생을 기리는 비석을 보호하고 있다. 녹슨 양철지붕과 덜렁거리는 판자는 마을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퇴락한 건물 안에 세워진 비석은 무성한 풀들과 벗하고 있다. 오랫동안 손길이 끊어졌음을 보여준다. 비석에는 '관파선생양공교희전학불망비(鸛坡先生楊公敎熙傳學不忘碑)'라 새겨져 있다. 관파(鸛坡) 선생께서 학문을 전수해 준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비인 것이다. 양교희가 후세들의 육영 사업에 전력하다가 세상을 뜨자 그 덕을 깊이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의 성금으로 1930년 9월 1일에 건립하였다. 얼마나 참된 스승이었으면 제자들이 비석을 세웠을까? 비각 안에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세어보니 20명이다. 먹고살기 어려웠을 20세기 초에, 그것도 심심산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20명의 제자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비각 한편에는 스승님을 찬양하는 글이 걸려있다.

스승의 은혜가 임금과 부모의 은혜와 같다는 의미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거론하면 아마도 주변에서 실소에 냉소를 더할 것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라고 노래 불러도 피식 웃을 세상이다. 그러나 적어도 양교희 불망비 앞에선 이런 말을,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된다.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가 아름답게 만나는 공간인 이곳이 아무도 모르게 철거되지 않길 바란다.

보(狀) 공사에 소 한 마리를 내놓다

곽해규(郭海奎) 송덕비(頌德碑)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는 교통의 요지다. 남쪽으로 아홉사리재를 넘으면 홍천이다. 동으로 달리면 미산계곡이 나오고 바로 홍천 내면과 연결되면서 구룡령을 넘어 양양 땅을 밟을 수 있다. 북쪽으로 가면 기린면이다. 현리가 나오고 인제읍으로 갈 수 있다. 서쪽으로 가면 마의태자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상남2리인 용소마을에선 해마다 마의태자 축제가 열린다. 경순왕과 마의태자 신위를 모신 사당과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행사에선 마의태자 제례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큰 고개를 넘으면 김부리다. 김부리엔 마의태자를 모시는 김부대왕각이 있다. 고개를 하나 더 넘으면 갑둔리다. 여기에 있는 5층 석탑을 비롯한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건 립 1933년 12월 15일

유적엔 마의태자의 비원이 서려 있다.

상남2리 마의태자 박물관

상남면의 중심지인 상남리에서 북쪽으로 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김부리로 가는 길과 기린면으로 가는 고개가 갈라진다. 삼거리의 산기슭 숲 속에 송덕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남리 경로당을 찾아 물으니 친절하게 가르쳐주신다. 근처 카센타에 들려 정확한 위치를 물으니 또 친절하게 손짓으로 가르쳐주신다.

송덕비는 길가에 세웠을 것이다. 길을 확포장하면서 낮게 닦여지고, 송덕비는 길보다 몇 미터 위에 있게 되었다. 점점 주변의 나무가 자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송덕비를 찾아갔을 때도 나무에 가려 보이질 않았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올라가자 비석이 모습을 드러낸다. '곽해규(郭海奎) 가교(架橋) 송덕비(頌德碑)'라 새겨져 있다. 다리를 놓는데 큰 역할을 하여서 비를 세운 것 같다. 그런데 비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사정이 조금 다르다. 상남리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던 곽해규는 1933년 보 공사로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소 한 마리를 증정해서 공사비를 충당하였다. 선행에 감동한 주민들은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비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 공사 중에 다리를 놓는 일도 포함된 것이 아닐까? 아무튼 지역의 일에 큰 돈을 희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조사에 부조금을 낼 때도 잠시 고민하지 않는가.

열녀는 두 사내를 섬기지 않는다

강릉김씨 정려각

상남면사무소를 출발하여 미산리로 향하는 길은 여유를 갖고 느리게 가야한다. 깊은 산 사이로 흐르는 계곡을 따라 천천히 가노라면 일상의 조급함에서 어느덧 벗어난다. 미산(美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미산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이곳에 와보지도 않고 좋아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미산은 산만큼 아름다운 계곡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미산2리 마을회관 앞에서 멈췄다. 옆에 강릉김씨 정려각을 보기 위해서다. 비각 앞에 강릉김씨의 열행(烈行)을 진정한 지역 유림들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런 글을 읽는 것은 고통이다. 이 글을 읽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한 줄 한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미산 2리
건 립 1908년

줄의 칭찬은 모두 부인의 고통으로 이루어졌다. 슬픔으로 만들어졌다.

김연조(金演祚)의 딸인 강릉김씨(1845~1905)는 김형인(金炯仁, 1846.~1866)에게 출가하여 시부모를 섬긴 효부로서, 남편이 병에 걸리자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으나 남편은 죽는다.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늙은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3년 상을 마친 다음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고 아들을 가르치면서 종신토록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늘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지 못했으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복을 입는 날에 죽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제군 유림들이 1908년에 진정서를 올려 정문을 지어주고 정려각을 세워주었다.

비각 안 비석엔 "효열부강릉김씨정려비(孝烈婦江陵金氏旌閭碑)"가 새겨져 있다. 오른쪽엔 "부김령인김형인(夫金寧人金炯仁)"이 왼쪽 아래엔 "자진사철규(子進士澈圭)"가 함께 새겨져 있다.

미산계곡으로 향하는데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 한 대목이 떠오른다.

> 어머니는 자신의 품속에서 엽전 한 닢을 꺼내어 아들들에게 보였다.
> "이것에 테두리가 있느냐?"
> "없습니다."
> "이것에 글자가 있느냐?"
> "안보입니다."
>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져서 말을 이었다.
> "이게 바로 이 어미를 죽음에서 건진 부적이다. 내가 이것을 10년 내내 손으로 만지작거렸더니 테두리도 글자도 다 닳아 없어진 걸 보아라. 무릇 사람의 혈기는 음양에 뿌리를 두고, 정욕은 혈기에 모이며, 그리운 생각은 고독한 데서 생겨나고 슬픔의 뿌리는 그립다는 생각에 있다. 과부란 바로 고독한 처지에 놓여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다. 혈기왕성할 나이라면 어찌 과부라고 해서 정욕이 없을 수 있겠느냐? 가물거리는 등잔불이 내 그림자를 조문하는 것처럼 고독한 밤엔 새벽도 더디 오더구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질 때나 흰 달빛이 창에 흘러드는 밤, 낙엽 하나가 뜰에 지고 외기러기가 하늘에서 우는 밤, 멀리서

닭 우는 소리도 없는데 어린 종년은 코를 깊이 고는 밤. 이런저런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그 수많은 밤. 그 고충 그 외로운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하였으랴. 그럴 때 나는 이 엽전을 꺼내 굴려서 온 방을 더듬고 다녔느니라. 둥근 것이라 잘 달아나다가도 턱진 데를 만나면 주저앉고, 그러면 더듬더듬 찾아서 또 굴리고. 밤마다 시시때때 엽전을 굴리다가, 어느새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곤 했다. 10년 사이에 해마다 그 횟수가 점차 줄어가다가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때로는 닷새 밤에 한 번 굴리고, 때로는 열흘 밤에 한 번 굴렸는데, 혈기가 쇠해진 뒤로는 더 이상 이 엽전을 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열 겹이나 싸서 20여 년 동안이나 간직해 온 까닭이 무언지 아느냐? 엽전의 공로를 잊지 않는 것은 물론, 가끔은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자 아들들이 와락 어머니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토록 남편을 섬겨야하며, 지아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을 따라 죽어야 가문의 영광으로 간주되던 시절. 차마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는 경우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인 '미망인(未亡人)'으로 살아야했다. 그러한 삶도 쉽지 않았을 터. 그 누가 그녀의 고독과 그리움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으랴! 나는 열녀문을 보는 것이 즐겁지 않다.

산삼이 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 1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

윤증(尹拯, 1629~1714)의 시 중에 흥미로운 것이 보인다. 「이여순(李汝詢)이 인제에서 생삼(生蔘) 서너 뿌리를 부쳐 주기에 화분 속에 심었더니 새싹이 돋아 나왔다. 이에 반가워서 읊다」라는 긴 제목의 시다.

작은 창 사이에 뾰족뾰족 돋아난 삼 亭亭玉立小牕間
한계(寒溪)의 첩첩 산에서 여기로 왔지 來自寒溪萬疊山
일없이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不是閑人要玩物
시든 이 몸 너의 생기 대하려 함이지 且將生意對衰顔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351-1번지
건 립 조선시대

한계(寒溪)는 한계산을 의미한다. 예전엔 설악산을 한계산이라고도 하였으며, 특히 인제 쪽의 산을 지칭할 때 즐겨 사용하였다.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한계는 인제를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제 지역에서 산삼을 캤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다.

한시뿐만 아니라 지리지에서도 인제의 삼(蔘)을 언급한다.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펼치면 인제의 특산물 중에 하나로 삼을 들고 있다.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한계산기(寒溪山記)」에서도 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691년 5월에 한계산을 유람하고 글을 지었는데 그 중 한 대목이다.

> "5월 11일. 비가 왔다. 역리(驛吏) 김세민(金世民)이 찾아와 인사를 한다. 그 사람은 상세하고도 분명하여 한계산의 여러 승경을 말하는 것이 매우 자세하다. 옥류천(玉流泉)·아차막동(阿次莫洞)·백운암동(白雲菴洞)은 모두 그가 삼(蔘)을 캘 때 다닌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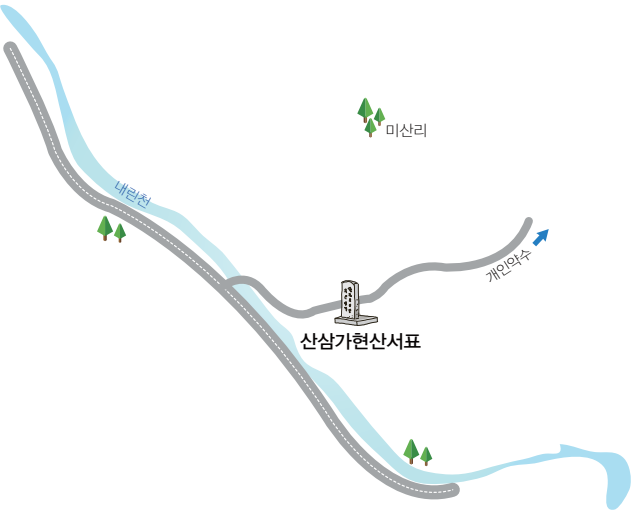
몇몇 자료들을 보더라도 인제 지역에서 삼을 많이 채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인제군이 '산삼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상남면사무소에서 미산리 방면으로 가다가 내린천과 방내천이 합쳐지는 곳에 '미산3교'가 있다.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조그만 개울 옆 도로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 내린천 옆 바위에 금표(禁標)가 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니 훼손이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라 새겨진 글씨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멀리서 보면 허옇게 보인다. 다른 마을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세웠던 금표석(禁標石)으로 2014년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는 '삼(蔘)이 나는 가현산(加峴山) 서쪽의 금표'란 뜻이다. 여기서부터 산삼이 많이 나는 곳이니 함부로 출입을 금한다는 경계석인 셈이다. 미산리의 '미산(美山)'을 '아름다운 산'이라 풀이하곤 했다. 그러면서 왜 아름답다고 했는지 늘 궁금했었다. 지금 산삼금표를 보니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린다. 산삼이 많이 자라니 아름다운 산이 아닐까?

산삼이 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 2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



미산1리 방향으로 달리는 길은 피석객들의 차량으로 혼잡하다.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은 이미 외지 사람들이 펜션을 짓거나 별장을 세웠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학교는 자동차와 텐트가 점령했다. 수심이 얕은 곳은 피서객들이 알록달록한 튜브에 몸을 맡기고 있다. 아름다운 이곳은 일상에 찌든 사람들을 잠시나마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얼마를 달렸을까. 미산약수교가 보인다. 미산계곡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으면 낭패다. 다리를 건너 우회전하면서 오른쪽을 유심히 봐야 한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안내하는 간판이 '산삼금표'가 있음을 알려준다.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개인약수교 옆)
건 립 조선시대

정비된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왼편으로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린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계곡물이 흐른다. 순간 도로의 온도보다 몇 도가 내려간다. 금방 시원해진다. 커다란 바위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기교를 부리지 않은 글씨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가 두 줄로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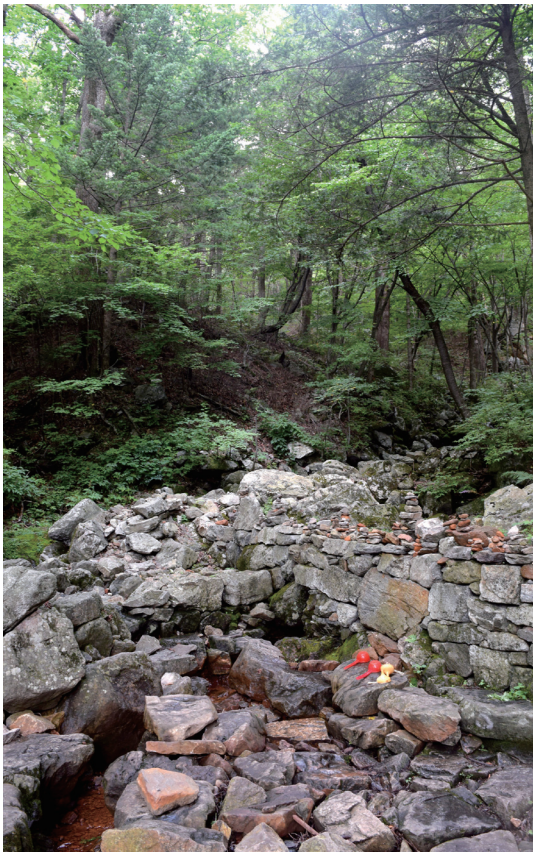
산삼금표(山參禁標)는 산삼 주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세운 것이다. 영조(英祖) 15년(1739)에 간행된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보자. "관동의 여러 읍에는 산삼이 나는 곳을 알리는 금표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을 놓아 경작하는 폐단이 있어 수령들에게 죄를 물어 벌을 주고 감사는 귀양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금표가 여러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선군 회동리 도룡골에서 평창 진부면 장전리로 넘어가는 마항재에 '강릉부삼산봉표(江陵府蔘山封標)'와 여기 미산리 금표 둘만이 알려졌다. 모두 세 개 중 두 개가 인제에 있다! 미산리의 금표는 과거의 산림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사라진 개인약수 비석

지덕삼영세불망비(池德三永世不忘碑)

1892년, 함북 출신인 지덕삼(池德三)은 수도와 수렵 생활을 하다가 약수를 발견하였고, 약수를 마신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개인약수(開仁藥水)를 처음 발견한 지덕삼과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에 대한 이야기다. 비석 옆에 용신당(龍神堂)이 있었고, 용신당 현판에 이러한 내력이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개인약수는 고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유명하다. 약수는 방태산 주억봉과 푯대봉 사이의 능선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발달한 계곡에 있다. 해발 930여 미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염되지 않은 차고 순수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건　립 1892년에 세웠으나 없어짐

한 맛을 간직한 탄산 약수로서 철분, 칼슘, 망간 등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0년대엔 결핵 환자나 위장병 환자들이 업혀 와서 매일매일 약수를 마시고 약수로 지은 밥을 먹으며 몇 달 지내곤 혼자서 걸어 나갔다고 한다.

개인약수는 상남면 미산1리에서 소개인동과 대개인동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이르러 만날 수 있다. 주변에는 몇 백 년 된 고목들이 원시림을 연출하고,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은 구비마다 폭포를 만들며 청량한 소리를 들려준다. 이 때문일까? 전국의 유명한 약수 중 약수터의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지질적인 희소성, 수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여 201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주차장 옆 음식점에서 곤드레밥으로 배를 채우고 약수터까지 몇 분 걸리냐고 물으니 40분 걸린다고 한다.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냐고 물으니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란다. 약수터 옆에 비석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한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궁금증이 풀리기 때문에 약수터로 향했다.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벌써 숨이 가쁘다. 꾸준히 계속되는 오르막. 등산로는 울퉁불퉁한 돌들이라 발밑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지루할 때 쯤 되면 약수를 소개하는 안내문이 격려해준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오르고 또 올랐다. 그런데 없다. 비석은 사라져버렸다. 주위를 샅샅이 뒤졌으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예전에 약수터 옆 용신당을 미신타파의 일환으로 철거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때 훼손된 것 같다. 자세한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잘못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1892년에 비석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비석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옆에 그 내용을 적어 알리면 될 일이다. 없애버리는 것은 개인약수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류재구(柳在龜) 불망비(不忘碑)

상남리에서 기린면 현리로 가다가 오미재를 넘는다. 숨 가쁘게 넘자마자 고갯마루에 세워진 '현리지구전적비'을 읽어야 한다. 치욕의 역사를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현리전투는 1951년 5월16일부터 22일까지 중공군의 2차 춘계공세 때 벌어진 전투로, 국군 3군단 예하 3, 9사단이 담당하던 오미재 방어선이 돌파당하면서 퇴로가 끊겨 악전고투 속에 70㎞나 후퇴한 전투다. 3군단은 포위당하자 당시 군단장이던 유재흥은 부군단장을 대리로 지정한 후 군단을 버리고 항공기편으로 도주했다. 지휘부가 먼저 도주하자 3군단은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와해 상황이 되었으며, 사단장들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지휘를 포기하고 계급장을 제거한 후 살기위해 무질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남면 하남1리
건 립 1911년 3월

서한 도피를 시작했다. 결국 현리에서 한국군 3군단 예하 3사단, 9사단 병력 1만 9천여 명이 희생됐고, 병력의 40% 가량만 복귀함으로써 한국전쟁 사상 최악의 패전을 기록했다. 전적비는 "이 전투의 패배를 교훈으로 삼고 당시 이름 없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자 세웠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하남리로 넘어가는 덕고개 우측으로 충혼탑이 보인다. 625전쟁 때 이 지역의 청년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북한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산화했는데, 이들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남기고자 건립한 충혼탑이다. 현리지구전투와 어찌 이리 다를까?

덕고개를 내려가면 하남초등학교다.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퇴색한 비각이 보인다. 옆에 영세불망비가 한글판으로 새겨져 있다. 영세불망비는 참봉 류재구(柳在龜)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1911년 3월에 하남리 주민들이 건립한 것이다. 참봉 류재구는 조선 태조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인 제릉(齊陵)을 담당하는 참봉을 거쳐 호조참의에 올랐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 살다가 이곳에 살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빈곤한데도 세금이 너무 과중하게 부과됨을 안타깝게 여겨 하남리 주민의 세금을 모두를 대납해 주었다. 주민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후인에게 알리고자 비를 건립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류씨 문중에서 관리해오던 비각이 노후되자 초대 민선군수가 1996년에 비각을 중수하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단어가 떠오른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짧은 구간 안에 '현리지구전적비'와 '충혼탑', '류재구 불망비'가 나란히 서 있다.

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삶을 살았는가?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베품. 팍팍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불망비를 보면 살고 싶어진다.

비석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

> 조그만 것을 모아 취한 재물로
> 넓게 마음 써 주민을 보호하셨으니
> 오래도록 멀리까지
> 이 작은 비석에 글을 적어 칭송하네

하남리 의식동 고갯마루 풀 속에 눕다

참봉(參奉) 류구열(柳龜烈) 묘비

상남리에서 고개를 넘자 하남리가 시작된다. 길은 내린천과 나란히 달린다. 다리 입구에 후평동 의식동이란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다리를 건너 첫 번째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달리면 바로 고개로 연결된다. 이곳은 의식동(衣食洞)이다. 고갯마루에서 이 묘소 저 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봉(參奉) 류구열(柳龜烈) 묘지를 찾았다. 한참 찾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주민이 보여 물으니 잣나무 아래에 있단다. 함께 길을 나섰다. 묘지는 개망초 사이에 편안히 누워 있다. 망주석도 보이고 조그마한 석상도 풀 속에서 고개를 내민다.

비석에는 '행통사랑제릉참봉통정가선대부겸호조참의문화류공구열지묘(行通仕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의식동
건 립 1824년

郎齊陵參奉通政嘉善大夫兼戶曹參議文化柳公龜烈之墓)'라 새겨져 있다. 통사랑(通仕郎)은 정팔품에 해당한다. 제릉참봉(齊陵參奉)은 조선 태조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인 제릉(齊陵)을 담당하는 참봉을 역임했다는 것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이품에 해당된다. 호조참의(戶曹參議)는 호조에 둔 정삼품 당상관에 해당한다. 비석을 읽다보니 하남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영세불망비와 동일 인물인 것 같다. 후손에게 물으니 맞다 한다. 개명을 하였다고 알려준다. 참봉 류재구(柳在龜)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1911년 3월에 하남리 주민들이 건립한 비석의 주인공 참봉 류재구는 경기도 양주에 살다가 이곳에 살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빈곤한데도 세금이 너무 과중하게 부과됨을 안타깝게 여겨 하남리 주민의 세금을 모두를 대납해 주었다. 주민들은 그 은혜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후인에게 알리고자 이 비를 건립한 것이다.

류구열의 묘지 옆으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묘도 함께 있다. 망주석과 조그마한 문인석이 풀 속에 정겹게 서있다.

아름다운 자포대에서 아름답게 정절을 지키다

전주이씨(全州李氏) 정려각(旌閭閣)

상남3리 마을회관에 들려 길을 물으니 산으로 난 길로 계속 들어가면 나온다고 한다. 자포대로 가는 길은 숲 속 산길이다. 길가 풀 속에 세워진 '아름다운 자포대'란 표지석은 마을에 가까이 왔음을 알려준다. 큰 길에선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넓은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이었을 것이다. 주민에게 물어보니 자포대(自飽垈)란다. 예부터 논이 많아 부자들이 살던 곳으로, 노비와 식구들이 먹을 쌀뜨물이 5리나 흘러가서 마을 이름을 '스스로 배부른 터'로 지었다는 전설을 들려준다. 그렇다면 무릉도원이 아닌가? 그런데 평생 농사를 업으로 알고 땀 흘려 살아온 마을 주민들은 떠나야 한다. 육군에서 이 마을을 수

소재지 인제군 인제읍 상남3리
건　립 1900년 10월

용해 기존 과학화전투훈련장을 확대키로 결정하고 막바지 보상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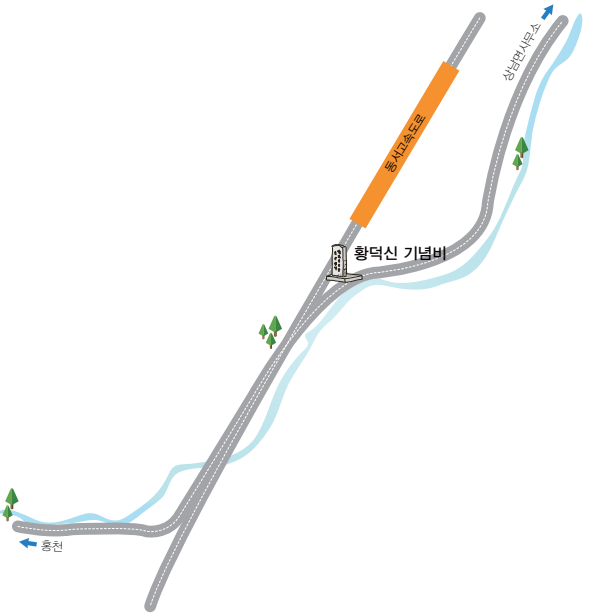
마을 안에 산촌체험관이 보인다. 체험관 뒤로 가니 정려각이 있다. 비각 옆 향나무와 앞에 우뚝 선 잣나무, 그리고 비각을 에워싸고 있는 돌담은 역사 속으로 이끌고 간다. 열녀각은 '열녀정문'이란 편액을 달고 있다. 비좌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비각은 고종 37년인 1900년 10월 상순에 군수 권직상(權直相)이 이옥녀(李玉女)의 정절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비각 안에는 정려본기가 걸려 있다. 민영통(閔泳統)의 아내인 이씨 는 나이 열일곱에 지아비가 죽자 3년상을 치루고 첫 기일에 음식을 끊고 마침내 남편의 뒤를 따라 죽는다. 조정에서 그 정절을 가상하게 여겨 열녀정려각을 마을에 세우게 되었다.

열녀의 이야기는 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열녀의 최후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주변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문중의 이름으로 죽음을 강요하기도 했다는 연구도 있다. 전주이씨를 기리는 정려각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하였다.

미다리에서 의(義)를 행하여 이름이 나다

황덕신(黃德信) 기념비(記念碑)



홍천군 내촌을 한동안 달리자 끝자락에서 아홉사리재가 막아선다. 강원도 어디나 높은 고개가 있지만 이 고개도 만만치 않다. 아홉사리재는 가득봉(可得峰)과 백암산(白巖山) 중간에 있어서 가득령(可得嶺)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가령(可嶺), 아홉고개, 아홉싸리라고도 부르곤 했다. 정상에 오르니 주변 자작나무숲에서 맑은 공기가 나오는 것 같다.

홍천과 인제 경계에 있는 아홉사리재에 전설이 없을 수 없다. 옛날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 사는 열여섯 살 먹은 처녀가 험한 고개를 넘어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권씨댁으로 시집을 왔다. 시집을 온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은 색시는 친정에 가고 싶

아홉사리재정상

소재지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건 립 1923년 2월 6일

었다. 그러나 친정에 가려면 시집 올 때 넘어온 고개를 넘어야만 했는데, 아기와 함께 도저히 고개를 넘을 수가 없었다. 색시는 아기가 스스로 먼 길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기는 자라서 어느덧 아홉 살이 되었다. 색시는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험한 고개를 넘어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 아기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고개를 넘었다 하여 아홉사리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다. 다른 전설도 있다. 장가를 든 신랑이 혼례를 올린 지 3일 만에 아흔아홉 굽이 험준한 길을 뚫는 공사에 동원되어 끌려갔다. 부역으로 끌려간 지 10달 뒤 아들이 태어났지만 신랑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공사는 끝날 줄 몰랐다. 마침내 길 닦는 공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아홉 살이 되었더란다.

고개를 내려오자 인제군 상남면이 시작된다. 상남3리다. 고속도로 건설 중이라 높은 교각이 여기저기에 서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곳의 지명은 미다리다. 한자명으로 미교동(美橋洞)이라 적는다. 작은 다리가 많아서 이름을 얻게 됐다는데, 지금 동서고속도로를 뚫느라 마을은 온통 교각들이다. 교각 옆 국도가에 두 개의 비석이 서 있다. 최근에 새로 설치한 검은 비석이 더 눈에 뜨인다. 옆 비석은 초라해 보이지만 더 정겹다. 멈춰서 읽어보니 황덕신(黃德信) 기념비(記念碑)다. 시골 사람들의 인심처럼 순박하고 두터운 글씨는 세련되고 정형화된 글씨보다 더 감동적이다. 글씨 때문에 황덕신의 선행과 그것을 기리는 주민들의 정성이 더 짙게 전해온다.

황덕신은 평소 마을 일에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였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하다가 일본인에게 잡혀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내어 주곤 하였다. 그의 이타적인 행동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1923년에 이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옆의 비석은 1993년에 종중에서 다시 세운 것이다.

기린면
엄공경 불망비
김복형 묘비
박원굉 묘지석
한진동 불망비
진동계곡
이일증 영세불망비
김경균 청덕불망비
이용은 영세불망비
이종우 선정비
홍우순 애민선정비
임상준 영세불망비

4
기린면

선정비가 훼손된 까닭은 / 부사 이일증 영세불망비
공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물처럼 깊네 / 부사 김경균 청덕불망비
또 하나의 훼손된 선정비 / 부사 조진순 청덕선정비
화천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 반갑구나 / 부사 이용은 영세불망비
질병 없이 건강하신가 보다. 어찌 저리 사냥을 잘하실까 / 부사 홍우순 애민선정비
명령을 받들어 훌륭한 계책을 내도록 하라 / 춘천부유수겸진어사 임상준 영세불망비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석농체로 이름을 떨치다 / 관찰사 이종우 선정비
마을의 수호신 박대감 박원굉 / 평장사 박원굉 묘지석
마을 사람을 위한 은혜 어찌 잊을 수 있으랴 / 한진동 불망비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대변해주다 / 유학 엄공경 불망비
노전동 산꼭대기에 우뚝 선 묘비 / 절충장군 김복형 묘비

선정비가 훼손된 까닭은

부사 이일증(李一曾)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기린면사무소 옆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에 비석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비석들은 제각기 '선정(善政)', '애민선정(愛民善政)', '영세불망(永世不忘)'등의 글귀를 새기고 있다. 이른바 선정비(善政碑)인 셈이다. 관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교화를 끼쳤을 때 백성들이 이를 생각하고 비를 세워 덕을 칭송하는 것이 선정비니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데 진짜 선정(善政)을 베푼 것일까? 선정비의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악정(惡政)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탐관오리들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선정비를 세우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많았고, 자신의 재물을 들여 억지로 세우는 예도 있다고 역사는 가르쳐준다.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
건 립 1791년 이후

선정비 중 마모되어서 판독이 어려운 것이 눈에 뜨인다. 여러 글자 중 하나만 유독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마모된 것이 아니라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비석을 읽어보니 '행부사이공일0영세불망비(行府使李一0永世不忘碑)'다. 춘천부선생안을 조사해 보니 '이일0(李一0)'의 이름의 부사는 '이일증(李一曾)'이다. 그는 1789년 11월에 부임 왔다가 1791년 8월에 자리를 옮긴다. 기존에 조사된 자료는 '이일철(李一哲)'이라 적고 있다. 왜 이런 착오가 일어났을까?

이일증(李一曾, 1730~?)은 영조(英祖) 29년인 1753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한다. 『일성록』에 그에 관한 기록이 여러 군데다. 그 중 정조13년인 1789년 10월23일 기사를 읽어본다.

>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김이소(金履素), 참판 김광묵(金光默)이 나왔다. ○ 박성태(朴聖泰) · 이익운(李益運) · 박황(朴鍠))을 승지로, (중략) 이일증(李一曾)을 춘천 부사(春川府使)로, 이노재(李魯在)를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조두현(趙斗鉉)을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로, 박종복(朴宗福)을 헌릉 참봉(獻陵參奉)으로, 이장연(李長演)을 전옥서 참봉(典獄署參奉)으로 삼았다.

여러 자료들로 보아 비석의 주인공은 '이일증(李一曾)'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누가, 왜 이름을 훼손시켰을까?

공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물처럼 깊네

부사 김경균(金敬均) 청덕불망비(淸德不忘碑)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에 독특한 건물이 있다. 지역에서 살다가 자손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2003년에 준공한 사당이 그것이다. 사당 앞에 "여기 사당(祠堂)이 서기까지 이 지역사회에 태어나 후손 없이 한 시대를 사시다가 소유했던 재산 일체를 인제군에 귀속시키고 타계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저 노인들과 유지들의 뜻을 모아 오늘 사당의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이란 내용이 '영혼 잠드는 집' 비석에 새겨져 있다.

무후제(無後祭)는 후손이 없는 귀신을 제사하는 동제 성격의 제의이다. 이러한 제의는 조상숭배의식을 보여 주는 한편, 사후에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떠도는 넋을 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
건 립 1878년

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보여준다. 이면에는 떠도는 귀신들을 위함으로써 그들의 해코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신앙 심리도 있을 것이다. 기린면노인회에서는 이곳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사당 옆 선정비 중에 '행부사김공경균청덕불망비(行府使金敬均淸德不忘碑)'가 있다. 부사를 지낸 김경균의 덕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김경균은 누구인가? 춘천부선생안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그는 1876년 1월에 부임했다가 1878년에 발령이 났다. 『승정원일기』에서도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그와 관련된 기사는 많은데, 그 중 춘천부사에 임명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고종 12년인 1875년 12월 26일에 이런 기록이 있다. "재현(洪在鉉)을 이조 참판으로, (중략) 김경균(金敬均)을 춘천부사(春川府使)로 삼았다."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청덕(淸德)이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을 뜻하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비에 새겨진 것처럼 청렴하고 고결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이 비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뒷담화를 하였을 것인가?

또 하나의 훼손된 선정비

부사 조진순(趙鎭順)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선정비 중 가운데 것은 마모가 심하여 쉽게 알 수 없다. 마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비석의 주인공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인제문화원은 조위순 부사가 현민에게 베푼 선정의 뜻을 오래오래 전하고자 현민이 건립하였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춘천부 읍선생안을 들춰보아도 조위순은 보이질 않는다. 1996년에 만든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보면 '부사조진순청덕선정비(府使趙鎭順淸德善政碑)'라 소개한다. 조진순은 1809년 5월에 부임하여 9월에 사망하였다. 그는 정조(正祖) 7년인 1783년에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석을 찬찬히 읽어나가니 의심이 인다. 조(趙)는 맞지만 공(公)자 다음 글자부터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
건 립 1809년 이후

도무지 판독할 수 없다. 언(言)자가 부수인 글자여야 하고 그 밑에 있는 자도 순(順)자로 보기엔 삐침 획이 진하게 남아 있다. 춘천읍선생안을 여러 번 정독해도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누굴까.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더라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청덕선정(淸德善政)이란 글에 불만을 품었을 사람이 행했을 거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비석의 주인공은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인 청덕이 아니라 악덕(惡德)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좋은 정치인 선정(善政)을 한 것이 아니라 폭정(暴政)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훼손된 선정비는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역사의 매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화천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 반갑구나

부사 이용은(李容殷)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그를 처음 만난 곳은 화천군 사창리였다.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 은거하던 곡운정사터 김수증선생 추모비 앞에서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몇 개 박혀있는 주춧돌만이 곡운정사터임을 알려주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홍학비가 단발머리를 하고 서있다. 하나의 돌로 비갓과 비신을 만들었는데 앞면에 '부사이공용은흥○비(府使李公容殷興○碑)'라고 새겨져 있다. 뒷면은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용은은 철종 1년(1850)에 증광시 을과에 합격하여 춘천부사, 대사정, 이조참판 등을 지냈는데 1856에 부임하여 이듬해까지 춘천부사로 재직하였다.

홍학비가 세워진 곳을 곡운영당이라고도 했다. 오원(吳瑗, 1700~1740)은 「행곡운

화천 사창리에 있는 홍학비

곡운구곡에 새겨진 이용은 이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
건 립 1858년 3월

기(行谷雲記)」에서 곡운선생의 영당에 가서 배알하였다고 적고 있다. 어유봉은 「동유기(東遊記)」에서 숲 있는 산기슭에 얌전하게 붉은 칠한 곳을 돌아보니 곡운선생의 영당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정약용은 곡운서원(谷雲書院)이라 적고 있다. 영당은 강학의 기능도 있었던 것 같다. 영당터에 세워진 홍학비가 이를 말해준다.

다시 이용은을 만난 곳은 곡운구곡에서다. 구곡 중 일곡인 방화계에 가면 지금도 그를 만날 수 있다. 춘천부사로 있던 이용은은 일곡에다 '방화계(傍花溪)'와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후대에 축대를 쌓기 위해 바위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훼손되고, 피서객이 피운 불에 또 한 번 파손되어 일부분만 남아있다.

사창리에서 만난 이용은을 기린면 현리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갑다. 이용은선정비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살펴보았다.

질병 없이 건강하신가 보다. 어찌 저리 사냥을 잘하실까

부사 홍우순(洪祐順)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선정비를 읽다가 문득 『맹자』에 나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이 떠오른다.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다. 왕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만 즐긴다면 백성이 반발하겠지만,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왕이 즐기는 것을 백성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다. 위정자가 앉아서 호통을 치거나 권위를 앞세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위엄을 부리며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종과 북,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기뻐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
건 립 1846년 10월

하는 빛을 띠며 '우리 왕께서 질병 없이 건강하신가 보다. 어찌 저리 북을 잘 치실까.'라고 하며, 왕께서 사냥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거마 소리와 화려한 깃발을 보고 모두들 기뻐하는 빛을 띠며 '왕께서 질병 없이 건강하신가 보다. 어찌 저리 사냥을 잘하실까.'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정비 중 홍우순(洪祐順, 1791~1872)의 선정비는 아랫부분에 금이 가있다. 그는 1844년 10월부터 1846년 6월까지 춘천부사로 근무하였다. 선정비 좌측에 흐릿하게 새겨진 연도를 보니 병오년(丙午年)이다. 병오년은 1846년이다.

홍우순의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자는 목백(目伯)이며, 호는 성산(城山)이다. 병조 판서 홍명주(洪命周)의 아들로서 순조 16년(1816)에 진사가 되고 부사과(副司果) 등을 거쳐 대사간(大司諫)(1848)과 강원도 관찰사에 이르렀으며, 철종 4년(1853)에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니 철종 2년인 1851년에 홍우순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는 대목이 실려 있다. 철종 4년인 1853년에 "전 강원 감사 홍우순(洪祐順)은 치적(治績)이 출중하다고 하니, 특별히 자헌(資憲)•을 더하게 하라."라는 사료는 그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홍우순은 여민동락(與民同樂)했던 것 같다.

• 자헌대부 :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 · 위 · 좌참찬 · 우참찬 · 지사 · 판서 · 판윤 · 대제학 · 세자좌빈객 · 세자우빈객 · 도총관 · 제조 등이 있다.

명령을 받들어 훌륭한 계책을 내도록 하라

춘천부유수겸진어사(春川府留守兼鎭禦使) 임상준(任商準)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임상준(任商準, 1818~ ?)의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자는 은경(殷卿)이다. 그는 1864년에 철원부사 겸 방어사, 1866년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이후 한성부우윤 · 훈련대장 등을 역임하다가 1894년에 춘천부 유수에 임명되었다. 이후 1900년에 중추원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고종 31년인 1894년 9월 16일에 임상준(任商準)을 춘천 유수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해. 9월 21일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는 내용의 교서를 내린다.

"시국이 이와 같으니, 누가 나의 만리장성이 되어 줄 것인가. 뭇 사람들의 바램이 쏠리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
건 립 1895년 5월

고 있기에 한 지역을 통괄하는 책임을 맡기노라. (생략) 자, 돌아보라. 진어(鎭禦)하기 위해 영(營)을 설치한 것은 실로 유수(留守)로 하여금 독단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 계단 같은 가파른 산길과 돌로 된 잔도는 촉(蜀)으로 가는 길처럼 험난하고, 웅장한 금성(金城)과 탕지(湯池)는 위(魏)나라의 산하처럼 험고하도다. 군대는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되니 방숙(方叔)이 있은 연후에야 그 계책을 훌륭히 펼 수 있었고, 백성은 지극히 신묘하면서도 지극히 어리석으니 문옹(文翁)을 얻고 나서야 그 교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 문과 무를 아울러 쓰지 않으면 어떻게 위엄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겠는가. (중략) 이에 경에게 행춘천부유수 겸 진어사(行春川府留守兼鎭禦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명령을 받들어 훌륭한 계책을 내기에 더욱 힘쓰라.

풍전등화와 같던 19세기 후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당시에 춘천은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았다. 참화가 일어나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방어할 곳을 물색한다면 춘천 한 곳이 있을 뿐이라고 인식하였다. 일명 '춘천보장론(春川保障論)'이다. 춘천을 금성탕지(金城湯池)로 보았다. 금으로 세운 성과 뜨거운 물로 가득 찬 성 둘레의 못이라는 뜻으로, 방어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공격하기 어려운 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890년에 민두호에 의해 왕이 유사시에 머물 수 있도록 설계한 이궁이 건설되기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던가. 『맹자』에 "하늘의 때는 땅의 이득만 못하고, 땅의 이득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란 구절이 있다. 맹자는 승패의 기본적인 요건을 첫째 하늘의 때, 둘째 땅의 이득, 셋째 인화의 세 가지로 보았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무리 기상과 방위, 시일의 길흉 같은 것을 견주어 보

- 방숙(方叔) : 주(周) 나라 선왕(宣王) 때의 현신(賢臣)이다. 훌륭한 계책으로 만형(蠻荊)을 정벌하여 큰 공을 세웠다.
- 문옹(文翁) : 한(漢) 나라 경제(景帝) 말기 때의 사람이다. 촉(蜀)의 군수(郡守)로 있으면서 성도(成都)에 학교를 세우고 입학자와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니, 이때부터 촉군(蜀郡)에 문풍(文風)이 크게 떨쳐지고 교화가 크게 일어났다.

아도 지키는 쪽의 견고함을 능가하지 못한다. 아무리 요새가 지리적 여건이 충족된 땅의 이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는 이들의 단결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국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산성의 견고함은 나중의 일이라는 것이다.

임상준의 영세불망비를 보면서 민심이 생각나는 것은 요즘 정치판 때문이리라. 비석의 깨진 부분에 어떤 글씨가 있었을까? 임상준이 춘천부유수겸진어사(春川府留守兼鎭禦使)에 제수되었으니 '행춘천부유수겸(行春川府留守兼)'이 있었을 것이다.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석농체로 이름을 떨치다

관찰사 이종우(李鍾愚) 선정비(善政碑)

나란히 서 있는 선정비 밑에 조각난 비석이 축대에 기대고 있다. '순찰사이공종우지(巡察使李公鍾愚之)'라고 끝나는 것으로 보아 아래 부분이 훼손된 상태다. 『조선왕조실록』을 펼치자 철종 7년인 1856년 7월 14일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이종우(李鍾愚)를 강원도 관찰사로, 신소(申紹)를 삼도 수군 통어사로 삼았다."

이종우(李鍾愚, 1801~?)의 호는 석농(石農)이다. 1851년(철종 2) 홍문관에 등용되었고, 1856년에 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이후 다양한 벼슬을 역임하다가 1862

강릉 오봉서원 묘정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
건 립 1856년 이후

년 함경도관찰사로 있을 때 함흥민란의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 그의 삶은 행정 관료보다 예술 방면에서 빛을 발했다.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신위와 김정희의 필법이 조화된 독특한 서체인 석농체(石農體)로 이름을 떨쳤다. 삼척의 〈산양서원묘정비(山陽書院廟庭碑)〉와 강릉 〈오봉서원묘정비(五峰書院廟庭碑)〉에서 그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으니, 그가 관찰사로 있을 때 쓴 것이다.

〈오봉서원묘정비〉는 오봉서원 건립 배경과 내력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구비(舊碑)가 있었으나 우암 송시열을 추배한 사실을 추가로 기술하여 1856년(철종 7) 강릉 지역 유림들 뜻을 모아 새로 세웠다. 비문은 조두순(趙斗淳)이 지었다.

이종우와 추사 김정희의 교류는 김정희(1786~1856)가 이종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아름답게 전해져온다. 1849년 64세의 노령인 김정희는 9년 동안의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나 한강가 용산 집에서 살았는데, 이 때 편지를 쓴다.

> 강가라서 유달리 추운데다 동짓달이라 추위가 닥쳐와 입이 덜덜 떨립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 벼슬살이에서 평안하심을 살펴 알았으니, 송축합니다. 다만 지난날 외진 산골에서 쓸쓸히 사실 때나 현재 요직에 올라 현달한 때나, 만난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뿐이겠지요. 나 같은 사람은 외진 강가에 틀어박힌 채 마음대로 찾아가 만나지도 못하고 있으니, 물고기와 새에게 비웃음을 받기에 알맞고, 또한 이내 삶이란 것이 깊은 산 속 노승의 찰나만도 못합니다. 우스운 노릇입니다.
>
> 머잖아 한 번 찾아 주신다니, 참으로 몹시 바라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번잡한 일들을 떨쳐버리고 한가한 틈을 내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추위가 겁나서 집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중씨(仲氏)의 행차는 평안히 돌아왔다니, 다행입니다. 써주신 연구(聯句)는 잘 받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글씨와 관련한 일화가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승정원에서 맺은 묵연(墨緣)」으로 전한다.

> "(전략) 세 종류의 글과 그림을 추사와 내(신위)가 자리를 맞대고 앉아서 세심하게 판정

함으로써 승정원에서 맺은 먹으로 인한 인연을 입증하였다. 추사는 또 나를 위하여 좋은 종이 한 발 남짓과 짙은 먹물을 내어서 '벽로방(碧蘆舫)'이라는 편액을 예서로 썼는데, 너무도 훌륭한 글씨였다. 승정원에 있는 늙은 관리들은 우리 두 사람이 직무가 바쁜 속에서도 서화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생전 처음 본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였다. 뒤에 내(이유원)가 비각(祕閣)에 있다가 신위 공(公)으로 인하여 승정원에 들어갔는데, 석농(石農) 이종우(李鍾愚)가 오색으로 된 금가루를 뿌려 만든 종이를 펼쳐 놓고 붓을 휘둘러 글씨를 쓰고 있었다. 내가 건장한 걸음으로 다니면서 구경을 하노라니, 접때 하신 신위 선생의 말씀이 왈칵 떠올랐다.

글씨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이종우의 흔적이 기린면종합복지회관 뒤에 파손된 모습으로 나무 밑에 방치되어 있다. 분실된 아랫부분의 내용도 궁금하지만 강원도 여기저기에 있을 그의 글씨들이 궁금하다.

마을의 수호신 박대감 박원굉

평장사 박원굉 묘지석

기린면 현리에 하마로(下馬路)가 있다. 이곳을 지날 때면 누구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 말을 타고 지나면 말의 다리가 땅에 붙어 뗄 수 없었다고 전한다. 이곳은 지금 3군단 사령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박대감의 묘가 있었다. 군단사령부가 들어선 1970년대에 면사무소 뒷산으로 이장을 하게 되었다.

박대감은 고려 말 평장사를 역임한 박원굉(朴元浤)을 말한다. 그는 1246년 춘천에서 태어났으며 고려 원종(元宗) 때에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오른다. 『고려사』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충렬왕 5년인 1279년 기록이다.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면사무소 뒷산
건 립 1830년대

박원굉 사당

대방공(帶方公) 왕징(王澄)으로 하여금 뚤루게[禿魯花]를 인솔해 원나라로 가게 했다. 김방경(金方慶)의 아들 김흔(金忻), 원부(元傅)의 아들 원정(元貞), 박항(朴恒)의 아들 박원굉(朴元浤), 허공(許珙)의 아들 허평(許評), 홍자번(洪子藩)의 아들 홍순(洪順), 한강(韓康)의 아들 한사기(韓射奇), 설공검(薛公儉)의 아들 설지충(薛之冲), 이존비(李尊庇)의 아들 이우(李瑀), 김주정(金周鼎)의 아들 김심(金深) 등 고관 자제 25명에게 모두 3등급을 뛰어오른 관직을 주어 뚤루게로 파견했다.

『고려사』에 기록이 더 있다. "박원굉(朴元浤)은 뒤에 이름을 박광정(朴光挺)으로 고쳤으며, 금부(金符)를 하사받고 부만호(副萬戶)까지 지냈다." 이때 기린의 부만호(副萬戶)를 역임한 것 같다. 부만호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군사조직인 만호부(萬戶府)에 소속되었다. 만호부가 처음 설치된 것은 1281년(충렬왕 7)으로 여 · 원 연합군(麗元聯合軍)의 일본정벌 실패 직후이다. 이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남해안 요충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두게 된다. 따라서 부만호는 13세기 국제정세 속에서 탄생한 군직으로 국방과 치안이 주요 업무였다. 박원굉은 이곳 기린에서 동해안 양양으로부터 침입해 온 왜군을 물리쳐 오다가 1310년에 서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부만호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면사무소 뒤에 있는 박원굉 묘지로 향하자 먼저 신도비가 보인다. 신도비에는 1972년 7월 24일 하마로에서 현재 위치로 묘를 옮긴 사연과 박원굉의 약력이 적혀 있다. 묘지로 향하는 길은 곧은 돌계단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에 오르니 묘지와 석물 사이로 오래된 묘비가 눈길을 끈다. 단아한 해서체로 '여조평장사박공지묘(麗朝平章事朴公之墓)'라 새겨져 있다. 묘지 아래 소나무 사이로 오래된 사당이 보인다. 순간 전설의 고향 속으로 들어 온 것 같다. 사당 안에는 박대감신위가 모셔져 있다.

마을 사람을 위한 은혜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한진동(韓晋東) 불망비(不忘碑)

기린면 현리에 있는 매운탕집에서 잡고기매운탕을 시켰다. 점심을 함께 한 선배는 현리에 와서 방동약수를 빼먹을 수 없다면서 안내한다. 기린면 사무소에서 방동계곡을 따라 가면 오른쪽으로 약수터 입구가 보인다.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좌측에 '방동약수'와 '아침가리' 입간판이 보인다. '아침가리'를 수없이 들어온지라 궁금하다고 하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의 좁은 길은 산을 향해 꾸불꾸불 이어진다.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아침가리는 조경동이란 한자식 이름도 갖고 있다. 한참을 달려도 계속 오솔길이라 중간에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였다.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건 립 1883년 9월

새농어촌건설운동
방동약수
방동약수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2리에 위치하고 있다.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물맛도 물맛이지만, 강원도의 제대로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쯤 찾아가 봄직하다.
"한국의 명수"로 지정할만큼 효험이 있는 신비의 물로 알려져 있다. 탄산과 망간, 철 불소 등의 성분이 포함된 광동수로 위장병 치료와 소화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곳 방동약수터의 유래는 약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날 한 심마니가 60년생의 씨가 달린 산삼을 뜻하는 "육구만달" 을 발견하였는데 육구만달은 신비의 명약으로 알려진 귀한 산삼이었다. 육구만달을 캐낸 자리에서 갑자기 물이 치솟아 올랐고, 그대로 약수터로 변한 것이다.
산삼을 캐낸 그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적이 없을 정도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방동2리 약수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방동약수

방동약수에 도착하니 평일인데도 붐빈다. 약수는 한국의 명수로 지정할 만큼 효험이 있는 신비의 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탄산성분이 많으며 철, 망간, 불소가 들어 있어서 위장병에 특효가 있고 소화증진에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수터 입구 안내판은 약수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준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어떤 심마니가 이곳 방동리에서 '육구만달'을 캤다. 육구만달은 60년생의 씨가 달린 산삼을 말하는 것으로 신비의 명약이다. 바로 산삼을 캐낸 자리에서 약수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방동약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산삼을 캐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본 일이 없다고 한다. 한 대접 마시니 속이 시원하게 뚫린다.

현리로 내려오다가 방동1리 길 옆에 섰다. 소나무 옆에 선 비석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오래된 비석이 앞에 있고 뒤에 새로 세운 비석은 호위하듯 서 있다. 앞의 비석은 이끼 때문에 판독이 쉽지 않다. 뒤를 보니 '유학(幼學) 한진동(韓晋東) 불망비(不忘碑)'가 또렷하다. 뒷 면을 보니 그의 행적에 대한 칭송이 새겨져 있다.

비석에 광서(光緖)가 적혀 있는데, 중국 청나라 광서제 때의 연호를 말한다. 1875년부터 1908년까지 사용된 연호다. 광서(光緖) 9년은 고종 20년인 1883년이며, 이해 9월에 건립되었다. 한진동은 개성에서 출생하여 학문을 연구하다가 이곳 방동리에 이주하게 되었다. 그는 글을 가르치고, 세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면서 마을 사람을 위한 삶을 산 유학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위해 헌신한 한진동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예전부터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쉽게 말해왔다. 책을 통해 애민(愛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한진동(韓晋東) 불망비(不忘碑)를 보자 얼굴이 붉어진다.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대변해주다

유학(幼學) 엄공경(嚴恭敬) 불망비(不忘碑)

기린면 현리를 출발한 차는 계곡을 따라 달린다. 방동리를 지나자 진동리다. 진동리는 예전부터 낭만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다. 진동계곡의 뛰어난 경관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풍을 칭찬하기도 하고, 청정한 물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는 속세를 떠난 듯한 분위기를 제일로 치기도 해서 늘 선망하던 곳이었다. 진동리의 아침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옛날 정감록에서 "난을 피해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라 지칭된 곳으로 지금도 오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곳. 증명이라도 하듯 6.25전쟁 때 군인들의 발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치고 금세 져버릴 만큼 첩첩산중이라 해서 아침가리라고 한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건 립 조선후기

다는데, 오지를 찾는 사람들과 색다른 피서지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진동2교를 건너자 바로 삼거리가 나온다. 왼쪽 방향은 귀둔리, 오른쪽은 양양 서림리 방향이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자 왼쪽으로 농촌체험학교와 진동리 경로당이 보인다. 조금 더 올라가자 아침가리계곡과 진동계곡이 만나는 곳은 피서객들로 붐빈다. 그 곳 도로 옆에 비각이 서 있다. '유학(幼學) 엄공경(嚴恭敬) 불망비(不忘碑)'다.

조선 후기 과다한 공납으로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하자 엄공경(嚴恭敬)은 춘천부사를 찾아가 지역 사정을 호소하고 공납의 감면을 요청하여 면세를 받게 하였다. 지역민들은 엄공경의 공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유학(幼學)은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곧 과거에 급제하거나 음관으로 벼슬에 나가지 못한 양반을 가리킨다. 유생(儒生)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유생은 바로 유교를 신봉하고 이를 본업으로 공부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유생들은 백성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해야 한다는 사실을 『맹자』를 읽으며 익혔을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걱정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한 뒤에 나중에 즐거워한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을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읽었을 것이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그친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엄공경은 실천에 옮김으로써 보통의 유학(幼學)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걱정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였다.

노전동 산꼭대기에 우뚝 선 묘비

절충장군(折衝將軍) 김복형(金復衡) 묘비(墓碑)

몇 주 전에 절충장군 김복형의 묘비를 찾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 이번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려고 기린면사무소에 먼저 들렀다. 마침 면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겠다고 핸들을 잡는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노전동 산꼭대기에 도착하니 새로 단장한 순천김씨 묘들이 즐비하다. 저번에 왔을 때 이곳을 모르고 스치며 지나쳤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봉덕동이고, 고개를 넘어가면 서리 양지마을이라고 알려주신다.

제일 위에는 순천김씨가 강원도와 인연을 맺도록 한 김봉상(金鳳祥, 1496~1545)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김봉상은 1540년(중종35년)에 사옹원봉사직을 역임하고 지금의 논산 근처 이산현감을 지냈다. 산소는 신남 휴게소 뒤에 있었는데, 2007년에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서2리 노전동
건 립 1676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갈밭골 하죽령이라 부른다. 김봉상은 1545년 명종원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진복창이라는 사람의 무고죄에 휘말린다. 사옹원에 같이 근무했던 정홍종 사건에 누명을 쓰고 의금부에 불려가 반역죄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자 고향으로 못 가고 인제로 피신했다가 세상을 뜨게 된다. 그 후손들이 강원도 일원에 살고 있는 순천김씨 이산현감파(尼山縣監派)다. 그 뒤 1560년경 선조 때에 와서 진복창의 죄상이 밝혀지면서 김봉상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다. 그의 묘비는 오랜 세월 비바람 속을 뚫고 오느라 마모가 심하지만 아직도 묘 옆에 늠름히 서서 후손들을 지켜주고 있다.

김봉상의 아들이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낸 김복형(金復亨)이다. 그는 아버지 아래에 묻혔다. 새로 단장한 묘 옆에 우뚝 선 묘비에 '절충장군호분부호군순천김공부형지묘(折衝將軍虎賁副護軍順川金公復亨之墓)'가 '숙부인평산신씨(淑夫人平山申氏)', '숙부인경주김씨(淑夫人慶州金氏)'와 함께 새겨져 있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조선시대 정 3품 당상관(堂上官)의 서반(西班)에게 주던 계급으로 무신 중에서 가장 높은 관료 계급이다. 조선시대 중앙군사조직은 5위(중위, 좌위, 우위, 전위, 후위)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우위가 호분위(虎賁衛)다. 따라서 절충장군이 호분위 부호군(副護軍)•이란 직책을 맡았다는 뜻이다.

• 부호군(副護軍)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친공신(親功臣)·공신적장(功臣嫡長)·군영장관(軍營將官),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직을 띠게 되어 그 수가 69인으로 늘어났다.

『대전회통』에서 부호군으로 배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친공신 5인, 승습군(承襲君) 1인, 공신적장 2인, 금군별장(禁軍別將) 6인, 호위별장(扈衛別將) 3인, 선전관(宣傳官) 1인, 훈련도감장관(訓鍊都監將官) 8인, 군병(軍兵) 2인, 금위영장관(禁衛營將官) 6인, 어영청장관(御營廳將官) 7인, 총융청장관(摠戎廳將官) 3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4인, 사자관(寫字官) 1인, 포도군관(捕盜軍官) 5인, 금군(禁軍) 13인, 통제중군(統制中軍) 1인이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묘비는 1676년인 숙종 2년에 세워졌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파손되었고, 문중에서 1972년에 다시 세웠다. 묘비 측면에 다시 세운 연도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 후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김복형 묘비는 인제군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절충장군묘비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절충장군 류공 묘비
산머리곡산
양구 해안
서화면
덕세산
천도리

5
서화면

민통선 안을 지켜온 장군 / 절충장군 류공 묘비

민통선 안을 지켜온 장군

절충장군(折衝將軍) 류공(柳公) 묘비

원통리를 지나 고개를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오른쪽으로 설악산이 보인다. 30여 년 전에도 이곳을 올랐던 것 같다. 대학 시절 전방입소라는 것이 있었다. 그때의 일들이 파편처럼 몇 조각 남아 있다. 천도리와 서화, 그리고 어떤 전방초소. 이 길을 다시 가는 중이다. 천도리를 지나자 서화리다. 양구 해안쪽으로 가다가 평촌부대에서 멈춰섰다. 이곳은 민통선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다. 미리 허가를 받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한참 기다린 뒤에야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과 동승해서 부대로 향했다. 곳곳에 설치한 전차의 공격에 대비한 장애물이 낯설지 않다. 1976년에 세운 서화성벽을 통과했다. 20여분 달린 것 같다. 예전 군막사를 떠올리는 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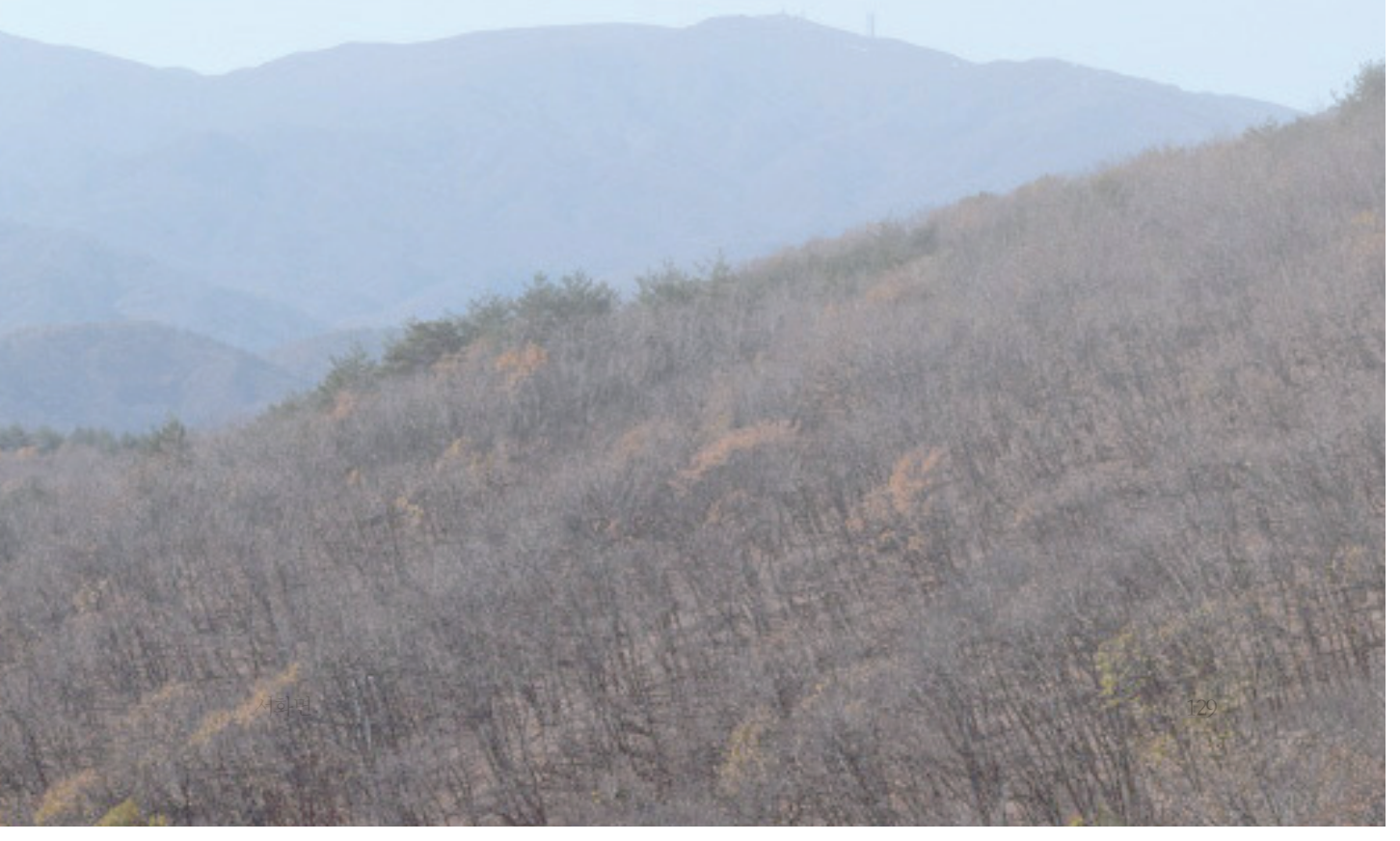
소재지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건 립 1737년

에 들렀다가 이곳 지리를 잘 아는 부사관과 묘지로 향했다.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충장군(折衝將軍) 류공(柳公)의 묘가 양지바른 곳에 있다. 생각보다 묘비는 크지 않다. 앞면에는 절충장군 류공(折衝將軍柳公) 숙부인박씨지묘(淑人朴氏之墓)라 새겨져 있다. 뒷면을 보니 건륭2년정사3월초십일입비(乾隆二年丁巳三月初十日立碑)라 새겨 져 있다. 건륭(乾隆) 2년 정사

(丁巳)는 1737년이다. 이 해 3월 10일에 묘비를 세웠음을 알려준다. 횡으로 5자녀들의 이름이 보인다. 장남은 영달(永達). 2남 영석(永石). 3남 영성(永成)은 흐릿하게나마 읽을 수 있으나 넷째와 다섯째의 이름은 도저히 읽을 수 없다.

당상관(堂上官)직 무관벼슬인 절충장군을 지낸 류공(柳公)은 누구실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좀처럼 정체를 알 수 없다. 서화면에 남아 있는 유일한 금석문인 절충장군(折衝將軍) 류공(柳公)의 묘와 묘비는 부대원들이 늘 관리를 해 와서 말끔하다. 묘지가 있는 이곳은 가전리(加田里)다. 주민은 모두 떠나고 군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절충장군 류공이 민통선 안인 이곳을 지켜오고 있었다. 언제 자유롭게 드나들 것인가? 서화성벽을 나오는 발길이 가볍지만은 않다.



미시령
매봉산
김수증 바위글씨
연포당 부도와 처사축심 부도
담석
명당산
설담당부도
오세암 바위글씨들
북면
영시암 유허비
유홍굴
안산
가야동 금석문
운흥사지 황장금표
대승폭포 구천은하
천제단에 새긴 금석문
멸영암 주변 바위글씨들
옥녀탕 금석문
봉정암 바위글씨들
귀때기청봉
한계령

6
북면

황장목 벌채를 금하노라 / 운흥사지 황장금표
김수증, 옥녀탕 옆에 옥류천을 새기다 / 옥녀탕 금석문
한계산성과 마의태자, 그리고 천제단 / 천제단에 새긴 금석문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구나 / 대승폭포 구천은하
75세 된 아버지 김수증을 모시고 지나가다 / 백담계곡에 새겨진 글씨들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백담사의 부도 / 연포당 부도와 처사축심 부도
황장연 옆에 글을 새기다 / 담석
내설악을 지켜온 부도 / 설담당부도
영시암터에 김창흡을 기리는 비를 세우다 / 영시암 유허비
내설악을 유람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머물던 곳 / 수렴동대피소 밑 유흥굴
산양의 안식처에 이름을 새긴 네 사람 / 가야동 금석문
설악산을 유람하다 오세암에 들리다 / 정원용과 홍은섭 비석
다양한 필체로 빼곡하게 바위를 채우다 / 김영목부터 장한국비까지
인제현감, 18세기 초에 설악을 유람하다 / 조진세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 물에 잠긴 금석문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 인제현감 어재완과 그의 아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 민백흥과 여러 사람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 만수담 옆 글자들
네 번 설악에 들어왔다가 두 번 봉정에 올랐다 / 김광수와 이광
불심으로 높은 곳에 새기다 / 석가사리탑
석가사리탑 탑대에 오르다 / 정상우부터 조일수까지

황장목 벌채를 금하노라

운흥사지 황장금표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1691년에 조카 창흡(昌翕)과 같이 화천 사창리의 곡운정사(谷雲精舍)를 출발하여 한계산으로 향한다. 1691년은 숙종 17년으로 김수증의 나이 68세이던 해이다. 그는 한계산을 유람하고 「한계산기」를 남긴다. 발길은 어느덧 한계리를 지나 한계사(寒溪寺)로 향하다가 북쪽 골짜기에 있는 절에 도착하니 뒤편에 있는 산봉우리는 깊고 아득하여 볼만하다. 좌우에 있는 승방(僧房)은 새로 지었고 법당은 이제 막 짓고 있었다.

김수증이 도착한 절은 운흥사다. 절이 있던 골짜기를 치마골 또는 큰 절골이라 부른다. 운흥사터를 찾아 산길로 올랐다. 경사가 급한 산길을 오르다가 머리를 드니 저 멀리 예사롭지 않은 산이 보인다. 안산이다. 계곡 이름이 치마골인 이유는 치마바위 때문이라고 한다. 오솔길 주변은 오랫동안 치마골을 지켜온 고목들이 즐비하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3리
건 립 조선중기

다. 지난 겨울에 내린 폭설 때문에 길게 누운 소나무들이 가끔 보인다. 고색창연한 나무들 사이로 흐르는 계곡은 일정한 크기의 돌들로 깔끔하게 제방을 만들었다. 수해에 대비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절로 든다. 길을 따라 무작정 가다보니 길이 사라지면서 밭이 나타난다. 불좌대 등 석물들이 이 곳 저 곳에 뒹굴고 있다. 그 뒤 석축에 황장목 소나무의 벌목을 금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김정호(金正浩)가 1861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866년에 완성한 지리서인 『대동지지(大東地志)』를 보면 인제 지역에 황장봉산(黃腸封山)이 두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제현읍지(麟蹄縣邑誌)』는 봉산(封山)으로 설악산, 한계산, 용대산을 들고 있다.

황장(黃腸)이란 속이 누렇고 단단한 심재(心材)를 말하며, 황장목(黃腸木)이란 그러한 소나무를 말한다. 심재의 비율이 크고 단단하여 궁궐의 건축. 선박제조. 왕실관재 등으로 사용되었다. 금봉산(禁封山)이란 국가적으로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림과 경제림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특별구역으로 설정한 산을 말한다. 또한 이렇게 봉산(封山). 또는 금산(禁山)으로 지정한 곳에는 경계에 표석을 세웠는데 이를 금표석(禁標石)이라고 한다.

운흥사지 뒤 석축에 새겨진 글씨를 읽어보니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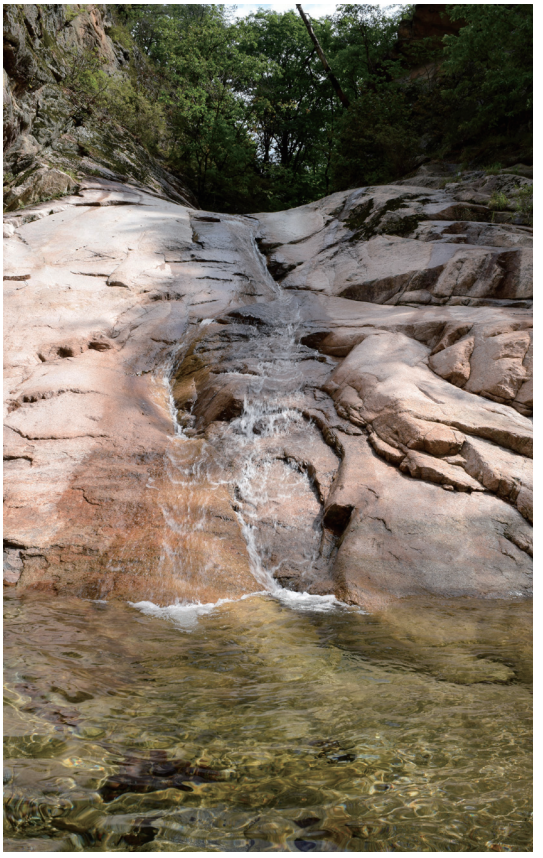
황장금산 黃腸禁山
자서고한계 自西古寒溪
지동계이십리 至東界二十里
황장을 금하는 산이며,
서쪽으로 옛 한계에서부터
동쪽의 경계는 이십 리까지이다.

운흥사지 석축에 있는 금표는 과거의 산림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며, 인제의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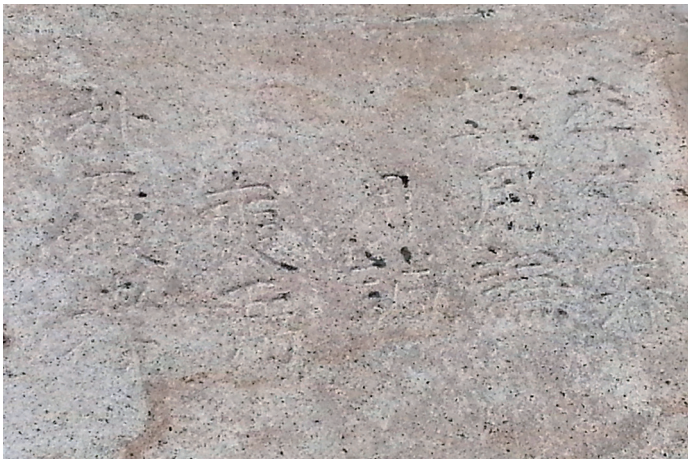
김수증, 옥녀탕 옆에 옥류천을 새기다

옥녀탕 금석문

운흥사지에서 나와 한계령으로 향했다. 길 옆에 옥녀탕 휴게소가 보인다. 예전에 이곳에서 버스에서 내려 잠시 쉬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한 건물만이 옛날의 영화를 알려준다. 옥녀제1교 옆은 옥녀탕 입구이다. 출입금지 구역이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녀봉에서 시작되는 긴 물줄기가 흘러내려 옥녀폭포와 옥녀탕을 만들고 한계령으로 향하는 길손들을 잡아끈다. 옥녀탕은 선녀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한계사 뒤에 있는 대승폭포에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때 지네가 선녀를 해치려고 하자 선녀는 옥녀탕으로 피신하였다. 지네는 옥녀탕까지 아와 선녀를 괴롭히려고 하자 갑자기 벼락이 쳐서 지네를 죽였다고 한다.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옥녀탕 위에는 2단 폭포가 있는데, 위로 두 번 꺾인 작은 폭포와 아래로 한 번 꺾인 긴 폭포가 있다. 아래 것을 흔히 옥녀폭포라고 부르지만, 폭포 밑의 탕이 탕수동의 여러 탕 모양과 같다고 해서 옥녀탕이라고 한다.

김수증은 이곳 옥녀탕 옆에 '옥류천'이란 글씨를 새겼다. 「한계산기」를 다시 읽는다.

> 4, 5리를 가니 북쪽에 작은 냇물이 꿈틀대듯 흘러오다가 5, 6길 폭포를 만든다. 위로 층진 못이 있는데 형태가 절묘하다. 벼랑을 따라 올라가 연못을 굽어보니 모양은 가마솥 같고 색깔은 검푸르다. 연못의 서쪽 암벽 위에 '옥류천(玉流泉)' 세 글자를 새겼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항아리처럼 움푹 패인 작은 못 주변에 새겨진 이름만이 남아 있다. 이전 기록들을 보면, 바위에 새긴 글자를 본 적이 있다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아마도 수해 때문에 묻히거나 마모된 것 같다.

항아리 모양의 탕 옆에 앉아 건너편을 바라보니 큰 글씨가 나란히 서 있다. 이노춘(李魯春), 한용겸(韓用謙), 한용함(韓用諴), 홍석필(洪奭弼), 박이효(朴履孝)란 이름이 마모되었지만 육안으로 힘들게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순조 즉위년인 1800년에 이노춘(李魯春)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군정(君正)으로 여주 출신이다. 1779년(정조 3) 유생강제(儒生講製)에서 제거수(製居首)가 되었으며, 1780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800년에 강원도관찰사가 되고, 1802년 실록청당상으로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대사성이 되었다. 1803년 예조참판이 되었으나 1806년 탄핵을 받고 거제부에 유배되었다. 편서로 『홍문관지(弘文館志)』가 있다.

이노춘과 관련된 접보를 찾다보니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불쑥 나타난다. 그 유명한 박지원의 글이다. 박지원은 순조 즉위년인 1800년 9월에 강원도 양양 부사로 부임하였다. 그 해에 「순찰사에게 올림」이란 글을 쓴다. 이 편지는 강원 감사 이노춘

에게 보낸 것이다.

> 부임한 지 9일 만에 앉은 자리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금방 취리(就理)하는 일로 길을 떠났다가 10월 보름 뒤에 병을 안고 다시 왔는데, 갑자기 황장(黃腸)의 역사(役事)를 당하여 차관(差官)을 겨우 보내고 나니 세금 거두는 일이 시급했고, 환곡 받아들이는 일이 겨우 끝나자 또다시 진영(鎭營)에 죄를 지어 날마다 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
> 가만히 헤아려 보면 관(官)에 있은 지 50일이 채 못 되는데, 온갖 사무가 바빠서 두서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진영 장교의 목근적간(木根摘奸; 산림의 도벌 여부를 현지에 가서 조사하던 일)은 간교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촌민들이 겁을 먹고 올린 소장(訴狀)이 날마다 다시 관청의 뜰에 가득합니다. 진영에서는 아무렇게나 쓴 힐책하는 관문(關文)을 보내 단속을 너무 준엄하게 합니다. 어부 한 사람이 배를 고친 일로 인해 좋지 못한 말이 전관(前官)에게까지 파급되도록 하였으니, 제 마음에 미안함이 응당 또 어떠하겠습니까. (중략)
>
> 이에 앞서 순영(巡營)에서 간사한 상인들이 모여드는 폐단을 염려하여 각 고을에 특별히 관문을 보내어 엄하게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어찌 유독 양양(襄陽) 일대에만 특별히 진영으로 하여금 따로 목근적간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영의 장교들이 재삼 와서는, 봉산(封山)의 금표(禁標)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나무뿌리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많이만 적발하기 위하여 보이는 족족 기록하기 때문에, 산 아래 사는 백성과 다 쓰러져가는 절의 중들이 모두 놀라 도망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략)

연암 박지원에게 황장목에 관련된 일들의 처리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황장목을 도벌하는 것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자료다.

황장목에 얽힌 박지원의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양양에는 벌목을 금하는 황장목 숲이 퍽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훗날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하려 했다. 아버지가 양양에 부임하시자 친지들은 황장목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셨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본심을 아느냐? 상고시대에는 얇은 관으로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다. 너희가 혹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을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으로 나의 관을 짜는 일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되었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 고을에 낭자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버지는 아무아무 곳 시냇가에 옮겨놓으라고 하셨다. 모두들 그 영문을 몰랐다. 아버지는 며칠 후 몸소 그 시냇가에 가셔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 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으로 만든 널빤지를 썼다. 그걸 보고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나의 아버지 박지원』 중에서)

한용겸(韓用謙, 1764~?)은 정조 19년인 1795년에 식년시 진사에 합격한다. 그 후 1799년 12월에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전생서(典牲暑) 판관으로 있다가 인제로 발령받았다. 그는 1802년 7월에 간성 군수로 발령받아 떠난다.

한용함(韓用諴, 1772~?)은 정조 19년인 1795년에 식년시 생원에 합격한다. 바로 옆에 새겨진 한용겸이 그의 형이다. 홍석필(洪奭弼)과 박이효(朴履孝)에 대해서는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섯 사람 이름 위에 희미한 글씨가 보인다. 물을 뿌려보니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 처음엔 맨 뒤 글자인 '천(泉)'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김수증이 새긴 옥류천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 걸. 앞 부분에 전혀 다른 글자가 보인다. 양회천(梁會泉)이다. 누군지 알 수 없다.

낙심해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발 밑에 글씨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패인 획에

이끼가 끼어있어 더 고졸한 멋을 풍기는 글씨체다. 이건(李鍵)과 박진유(朴晉裕)다. 이건(李鍵)은 1624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던 사람일까? 나란히 정답게 이름이 새겨진 걸로 보아 동행했을 터인데 알 수 없다. 그러나 조그마한 글씨체로 보아 그분들의 품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계산성과 마의태자, 그리고 천제단

천제단에 새긴 금석문

옥녀탕에서 바로 암벽을 타고 폭포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계산성으로 갈 수 있다. 예전 등산로가 그랬다. 아직도 철심 흔적이 바위에 남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철거되었다. 옥녀탕에서 내려와 계곡을 조금 올라가다가 산으로 오르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

30분정도 걷다보니 성벽이 보인다. 최근에 보수한 성벽은 계곡 좌우로 형성되어 있다. 전 구간을 복원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복원했다. 왼쪽 성벽과 오른쪽 성벽의 길이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높이는 성인 두 사람 정도 쯤 되어보인다. 성벽 위에 올라서 보니 넓이도 대단하다. 성을 쌓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돌을 손에서 손으로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시절 인제 사람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파온다. 오른쪽 성벽에는 성문이 있다. 기반석에는 대문을 여닫기 위해 파인 홈이 깊게 패여 있다.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한계산석성(寒溪山石城)은 둘인데,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상성(上城)은 둘레가 7백 29보며, 샘 하나가 있는데 가물면 마른다고 알려준다. 하성(下城)은 둘레가 1천 8백 72보며, 세 골짜기 물이 합쳐 흘러서 작은 내가 되는데,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한계산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사』 조휘열전(趙暉列傳)에는 1259년(고종 46) 몽고군과 조휘가 이끄는 반란군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방호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弘敏)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출격하여 섬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대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한계산성은 몽고항쟁을 할 때 축조된 성곽만이 아니라 이전에 축조한 성곽도 남아 있으며, 그 축조기법을 볼 때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부터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설은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신라부흥운동을 할 때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설을 뒷받침한다.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은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 널리 퍼져있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는 마의태자를 모시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김부대왕각, 마의태자가 옥새를 감추어 두었다는 옥새바위, 마의태자가 수레를 타고 넘었다는 수구네미가 있다.

이곳에서 얼마간 오르자 계곡 가에 절터가 있다. 무수한 와편들이 절의 존재를 알려준다. 천제단을 향해서 가파른 산기슭을 오르기 시작했다. 경사가 심해서 자꾸만 미끄러진다.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은 뚝뚝 안경으로 떨어진다. 이러길 한참. 정상 제법 넓은 공터에 도착하였다. 대궐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여기 저기 축대와 와편이 풀 속에 머리를 내민다.

천제단으로 이동하는 중에 다시 산성을 만났다. 여기저기 무너졌으나 아직 원형을 유지한 구간도 상당하다. 산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오르니 천제단이 기다린다. 어떻게 이토록 높고 험한 곳에 만들었단 말인가! 주변은 모두 벼랑이다. 안산의 진면목과 가리산의 위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한계령과 한계리도 손바닥 안에 보는 듯 가깝다.

천제단은 세 군데 세워졌다. 이른바 '삼신단(三神壇)'이다. 세 군데 모두 비명(碑銘)이 새겨져 있는데 가는 필체에 이끼가 끼어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다. 김성진(金成鎭), 신광택(申光澤), 김세진(金世震)이라는 세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 경오(庚

午), 신미(辛未)라는 간지도 읽을 수 있다. 세 사람이 어느 시기의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마의태자를 따라 나선 신라의 장군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정확한 연대도 알기 어려워 여러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제단은 산성을 쌓고 천지신명께 국가의 무운장구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는 고려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었거나, 산성 내 제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후 선(仙)사상과 도교와 불교가 융합된 교리를 만든 사람이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 세운 제단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제 한계산성 학술조사 보고서』 중에서)

제단 정면 우측에 새겨진 글씨는

선상제 각산단 仙上帝 角山壇
은은사의선운장김성진 銀隱師 義仙雲將 金成鎭

가운데 제단 감실에 있는 돌에 새겨진 글씨는

일곤무성산탑 一坤武誠山榻
소김강산불자상제부용선왕은사 昭金江山佛者上帝芙蓉仙王隱師
경오십이월이십칠일오시정선양일성 庚午十二月二十七日午時 貞仙陽日星
김세진 金世震

정면 죄측 제단에 새겨진 글씨는

시국대동단소김산 時國大東壇 昭金山
도군자성산탑 道君子誠山榻
무신상제석산단남은사 戊申上帝石山壇 南隱師
부선천주신광택 附仙天主 申光澤
신미팔월십오일 辛未八月十五日

아! 어렵다. 아직 정확하게 해독되지 않은 문장이 완전하게 해석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구나

대승폭포 구천은하(九天銀河)

대승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폭포의 하나로 꼽힌다. 남한에서 제일인 셈이다. 대승폭포는 1,210m 높이의 대승령으로 가는 등산로 900m 지점에 있으며, 폭포의 높이는 88m다. 폭포 이름의 유래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먼 옛날 한계리에 대승이라는 총각이 살았다.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타고 내려가서 돌 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런데 절벽 위에서 대승아! 대승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 곳 없고 동아줄에는 짚신짝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어 막 끊어지려는 참이었다. 대승이는 급히 동아줄을 타고 올라 무사히 살아 날 수 있었다."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험을 가르쳐준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친다 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참으로 훈훈한 이야기다. 죽어서도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대승이와 어머니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대승폭포에 도착했다. 등산로에서 좌측으로 향하니 폭포보다도 넓은 바위가 기다린다. 그 유명한 '구천은하(九天銀河)'가 새겨진 바위다. '구천은하'는 이백의 시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 향로봉에 햇빛드니 푸른 안개 자욱한데 日照香爐生紫煙
> 저 멀리 폭포는 긴 강물 매단 듯 遙看瀑布掛長川
> 나는 듯 곧바로 삼천 길 떨어지니 飛流直下三千尺
> 은하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가 疑是銀河落九天

멀리서 봤을 때는 강물을 매단 것 같더니, 가까이서 바라보니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 예전에는 '곧바로 삼천 길 떨어진다'란 구절을 뇌이곤 했었다. 그러나 대승폭포를 본 후에는 '은하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는 구절이 계속 맴돈다. '구천은하'는 바로 '은하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는 의미이다. 대승폭포를 봤을 때의 충격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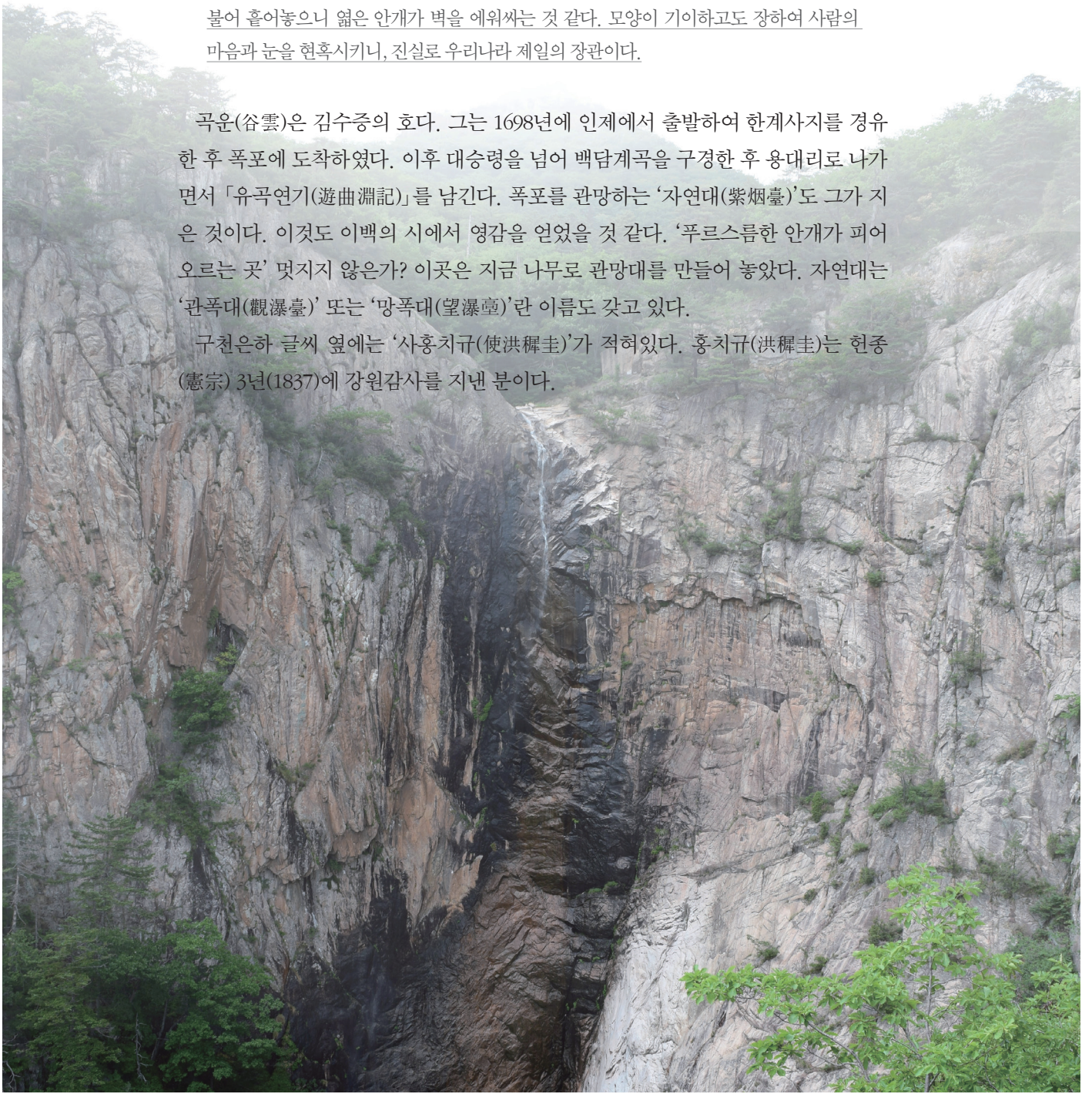
바위에 새겨진 '구천은하'의 주인공에 대해선 양사언(楊士彦, 1517~1584) 설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임적(任適, 1685~1728)은 「한계폭포기(寒溪瀑布記)」에서 '구천은하'의 주인공이 바로 김수증(金壽增, 1624~1701)임을 밝혀놓았다.

> 물은 서쪽 산에서 흘러와서 절벽에 이르러 폭포가 된다. 높이는 수백 길이고, 좌우는 깎은 듯 매우 우뚝하다. 아래는 점점 좁아지면서 깊은 못이 되는데, 사람이 붙잡고 들어갈 수 없다. 동쪽에 바위가 있는데 자연대(紫烟臺)라 부른다. 폭포와 마주하고 서 있으며, 겨우 백여 보 떨어져 있다. 높이는 폭포보다 1/3 작으며, 앉아서 폭포를 바라볼 수 있다. 대(臺) 위에 구천은하(九天銀河) 네 자를 새겼으니, 곡운(谷雲)의 글씨라고 한다. 마침 비가 내려

물의 기세가 자못 성하다. 쏟아져 내리면서 내뿜고 부서지니 잠깐 사이에 만 가지로 변한다. 어떤 때는 가운데가 갈라져 두 개의 물길이 되니,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른 것 같다. 어떤 때는 합해져서 하나가 되니, 긴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른 것 같다.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 흩어놓으니 엷은 안개가 벽을 에워싸는 것 같다. 모양이 기이하고도 장하여 사람의 마음과 눈을 현혹시키니, 진실로 우리나라 제일의 장관이다.

곡운(谷雲)은 김수증의 호다. 그는 1698년에 인제에서 출발하여 한계사지를 경유한 후 폭포에 도착하였다. 이후 대승령을 넘어 백담계곡을 구경한 후 용대리로 나가면서 「유곡연기(遊曲淵記)」를 남긴다. 폭포를 관망하는 '자연대(紫烟臺)'도 그가 지은 것이다. 이것도 이백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 같다.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는 곳' 멋지지 않은가? 이곳은 지금 나무로 관망대를 만들어 놓았다. 자연대는 '관폭대(觀瀑臺)' 또는 '망폭대(望瀑臺)'란 이름도 갖고 있다.

구천은하 글씨 옆에는 '사홍치규(使洪穉圭)'가 적혀있다. 홍치규(洪穉圭)는 헌종(憲宗) 3년(1837)에 강원감사를 지낸 분이다.



75세 된 아버지 김수증을 모시고 지나가다

백담계곡에 새겨진 글씨들

예전에 백담계곡에서 제일 난코스가 '포전암(抱轉巖)'과 '부전암(負轉巖)'이었다. 그러나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이곳을 통과하던 옛 사람들은 진땀을 흘려야했으나, 지금은 이곳을 통과하는 버스가 높은 고개를 올라가느라 매연을 내뿜는다. 인위적으로 길을 내느라 지금의 길은 계곡과 멀어지면서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너무 멀리, 그리고 높게 길을 내는 바람에 버스에서 계곡이 안 보일 정도이다.

강교 옆 학암에서 가까운 곳이 '포전암'이다. 바위에서 계곡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위에 바싹 붙어 껴안고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름을 얻었다. 너무 위험해서 나중에 바위를 쪼아 평탄하게 만들었다. 이곳을 '포전잔(抱轉棧)', '포전천(抱轉遷)'

포전암과 부전암 사이에 있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으로 부르기도 했다. 예전 화전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소가 필요했는데, 큰 소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송아지를 껴안고 이곳을 통과했다. 그래서 '포독곡(抱犢谷)'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포전암'을 지나서 한숨을 돌리면 '부전암'이 기다린다. 등을 바위에 바짝 붙이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전암'이다. 이곳을 지나던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바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았다. 김수증은 백담사에서 출발하여 내려가는 코스를 걸었다.

> 천춘령을 넘어 아래로 1리쯤 가면 부전암(負轉巖)이 있다. 또 조금 아래는 포전암(抱轉巖)이 있다. 대개 위험한 돌길이 물가에 있어 몸을 구부리고 발을 옆으로 돌리고 등을 붙이고 가거나 더위잡고 안으면서 가야하기 때문이다. 나는 붉은 글씨로 바위 표면에 이름을 썼다. (김수증, 「유곡연기(遊曲淵記)」, 『곡운집(谷雲集)』)

포전암과 부전암을 만나기 위해선 계곡으로 내려가야 한다. 백담계곡 어디나 그렇지만 여기도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계곡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백담계곡 전체를 걷는 구간으로 조성을 하거나, 이것이 힘들 경우 선인들의 자취가 있는 몇몇 구간은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설악산이 단지 뛰어난 경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선인들의 자취가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설악산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학암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바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선인들의 유람을 생각해봤다. 그분들이 왜 이곳을 힘들다고 했을까? 대부분의 선비들은 가마를 타고 산행을 했다. 가마가 여의치 않으면 '견여'라는 간단한 가마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곳은 견여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곳이다. 자신의 두 발과 두 팔을 이용해 통과해야했기 때문에 뇌리에 남은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이곳은 바로 옆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수를 한다면 물에 빠지는 낭패를 맛봐야 한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스듬한 바위의 평평한 면

에 글씨가 새겨진 것 같았다. 물을 떠서 바위 표면을 적시니 몇 개의 글자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 중 '김수증과(金壽增過)'란 글씨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김수증이 지나갔다'라고 새겨져있지 않은가? 김수증의 「유곡연기(遊曲淵記)」에 나온 대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끼로 인해 옆의 글자들은 해독하기 힘들었다.

일주일 뒤 탁본을 했다. 먹을 묻힌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글자가 하나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씩 드러날 때의 벅찬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위에는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을유사월 乙酉四月
김성대솔 金盛大率
자시서과차 子時敍過此 김양겸 金養謙
자창국시 子昌國侍
칠십오세옹 七十五歲翁
김수증과차 金壽增過此

판독하니 300여 년 전 일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을유사월(乙酉四月) 김성대솔(金盛大率) 자시서과차(子時敍過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을유년(1705년) 4월에 김성대(金盛大)는 아들 시서(時敍)를 데리고 이곳을 지났다."라고 읽을 수 있다. 당시 인제 현감을 하던 김성대는 아들을 데리고 설악산 유람을 왔던 것이다. 김성대(金盛大, 1651~1710)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호연(浩然)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본적은 경기도 양주(楊州)이며, 출신지는 한양(漢陽)이다. 송시열(宋時烈)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는 데 힘썼다. 1702년(숙종 28) 음직으로 선공감감역, 1704년(숙종 30) 의금부도사 · 인제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김시서(金時敍) · 김시교(金時敎)이다. 당시 인제 현감을 하던 김성대는 아들 시서(時敍)를 데리고 설악산 유람을 왔었던 것이다.

김시서(金時敍, 1687~1724)는 김창협(金昌協)과 김창흡(金昌翕) 문하에서 학문을

탁본

익혔다. 1721년(경종 1) 진사시에서 1등으로 합격하였으나 남인 정권에 회의를 느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은거하여 지냈으며, 아들인 김선행(金善行)과 김면행(金勉行)의 공으로 사후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김양겸(金養謙)은 삼연 김창흡의 맏아들이다. 그의 이름은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 두 사람의 여행과는 별도로 나중에 혼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듯하다.

또 하나의 글은 김수증과 관련된 기사다. "자창국시(子昌國侍) 칠십오세옹(七十五歲翁) 김수증과차(金壽增過此)"는 "아들 창국(昌國)은 75세 된 김수증(金壽增)을 모시고 이곳을 지나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수증의 아들 김창국은 당시 인제 현감이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을 지났다. 김수증의 「유곡연기(遊曲淵記)」에 당시의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병자년(丙子:1696)에 아들 창국(昌國)이 인제현(麟蹄縣)을 다스렸는데, 한계와 설악은 인제의 경내에 있다. 나는 일 때문에 다시 인제현 관아에 도착했는데 급박한 일과 비와 눈이 내려서 또 가보질 못하였고, 조카 창흡의 한계(寒溪)의 거처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끝났다. 또 창흡은 백연동구(百淵洞口)에 판자집을 짓고 오가며 유람하고 감상하였는데, 나에게 그곳의 뛰어난 경치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줬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나, 매번 그 안을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
> 무인년(戊寅:1698) 2월에 다시 인제현에 도착했다. 27일에 아들과 함께 합강정(合江亭)으로 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김수증, 「유곡연기(遊曲淵記)」, 『곡운집(谷雲集)』)

1696년은 김수증의 나이 75세이다. 요즘의 75세도 적지 않은 나이다. 300년 전에 75세는 요즘에 90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노구를 이끌고 대승폭포를 구경한 뒤 대승령을 넘은 김수증에게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을 말없이 보여준다.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백담사의 부도

연포당(蓮浦堂) 부도와 처사축심(處士築尋) 부도

백담사 경내에 부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는 경내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치고 지나간다. 어디에 있는데 투명한 부도가 됐을까? 만해 한용운 흉상 뒤에 있다. 자세히 봐야 부도라는 것을 알 정도다. 부도를 자세히 보니 '처사축심(處士築尋)'이라 새겨져 있다.

재가신자들의 부도는 기록상으로 고려시대 이자현의 부도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자현은 처사이지만 거의 승려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재가신자의 부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간헐적으로 만들어지다가 18세기 이후부터 재가신자의 부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마도 '처사축심의 부도'도 그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스님들이 정진하는 구역에 있어서 쉽사리 들어갈 수 없다.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 연포당(蓮浦堂) 부도가 오래된 전나무 밑에 고고하게 서 있다. 이 부도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처사축심(處士築尋) 부도

백담사에 들릴 때마다 아쉽다. 부도의 주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그렇고, 여기 저기 흩어져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든다. 이 부도들은 백담사의 역사다. 그분들에 의해 오늘의 백담사가 있게 된 것이다.

연포당(蓮浦堂) 부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백담사

황장연 옆에 글을 새기다

담석(潭石)

설악산 국립공원 백담탐방안내소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눈앞에 펼쳐진 계곡에서 멈춰 섰다. 들릴 듯 말 듯 하던 계곡 물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면서 하얀 물보라가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난 흰 물보라에 폭포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지도는 이곳을 황장폭포라고 표시했다. 그런데 예전의 기록을 보면 '모퉁이', '연못', '여울'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유곡연기」에서 "길동을 지나 황장우(黃腸隅)에 이르니, 못과 여울이 또한 기이한 장관이다."라고 경탄하였다.

김수증은 세 가지에 주목하였다. 모퉁이와 연못과 여울이다. 그는 황장우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지만, 못과 여울도 장관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처음에 황장폭포라 하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여 바위와 그 옆 하얀 물보라만 바라봤었다. 그러곤 바로 쓴웃음을 지었다. 웅장한 설악의 폭포들의 명성에 흠이 갈까 염려가 될 정도였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몇 번 와 보니 이곳의 멋은 '황장폭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 눈을 조금 더 아래로 돌리면 바위와 그 사이로 고인 듯 흐르는 '황장연(黃腸淵)'이 반긴다. 폭포를 보며 실망한 사람은 그곳을 여울이라 생각하고 '황장뢰(黃腸瀨)'라 하였다. 그러면 황장우(黃腸隅)는 어딜까? 바로 황장폭포를 보기 위해 발을 딛고 있는 바위를 가리킨다. 우(隅)는 '모퉁이'이다.

발 딛고 있는 바위엔 '담석(潭石)'이라 조그맣게 새긴 글씨가 보인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가 글씨 사이로 보인다. 글자를 새긴 사람은 폭포보다는 그 아래 못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옆에 커다랗게 새긴 이름은 마모되어서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다.

황장우는 백담계곡이 시작되는 곳을 알리는 기준점이었다. 이의숙은 「곡백담기(曲百潭記)」에서 "황정연(黃精淵)으로부터 20리를 내려가며 맑은 물굽이와 깨끗한 못이 많으니, 이것을 통틀어 곡백담(曲百潭)이라고 부른다."라고 적고 있다. 황정연(黃精淵)이라 기록한 것이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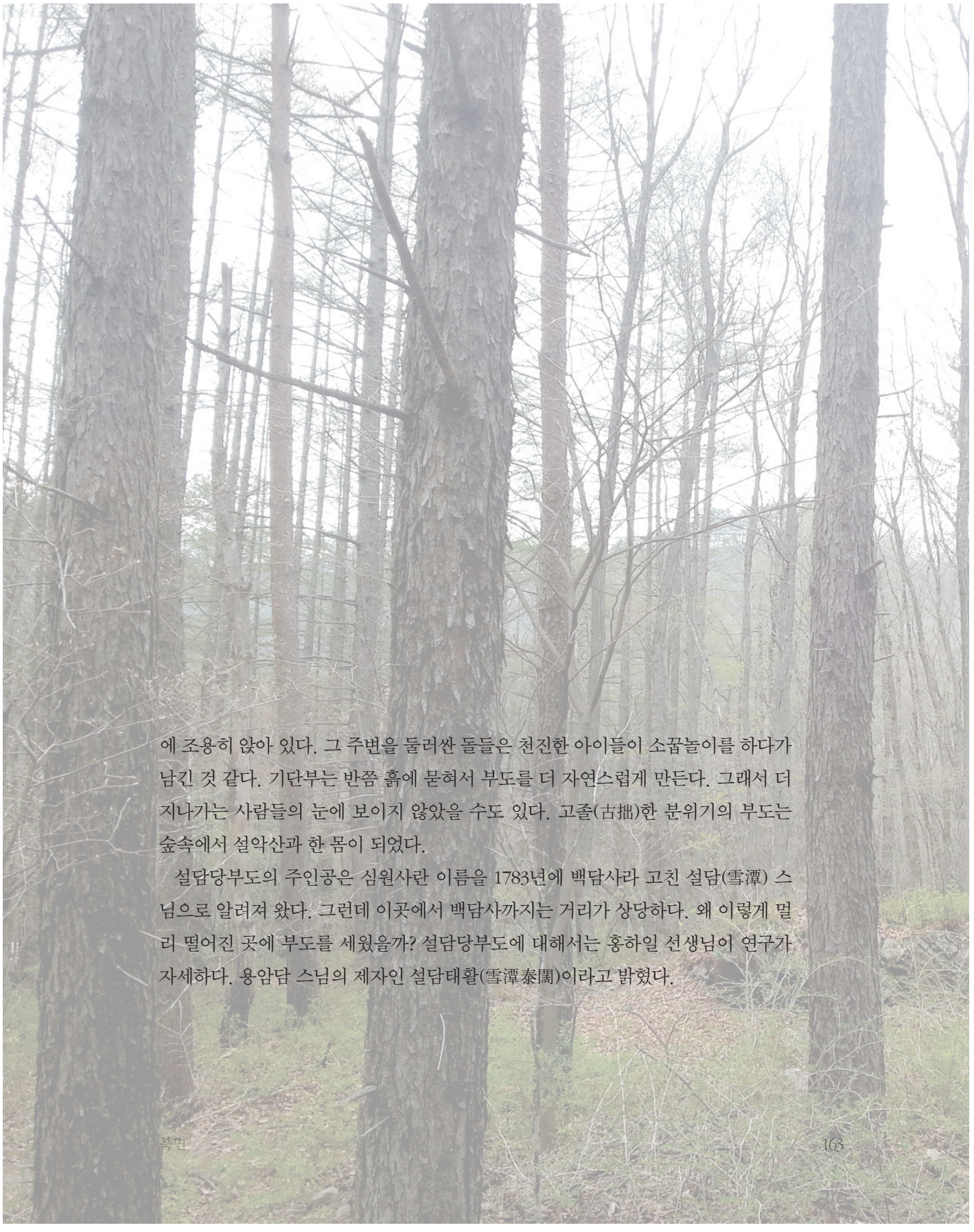
내설악을 지켜온 부도

설담당부도

곰골을 건너는 굽어진 길을 돌기 전 왼쪽 숲 속에 부도가 있다. 바위 위에 홀로 서서 내설악 계곡을 몇 백 년 지켜오고 있다. 지나칠 때마다 들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부도 옆에 장식한 꽃들이 바뀌곤 한다. 사탕과 과일이 놓여있는 경우도 있다. 홀로 서 있어 외로워 보이지만 부도의 위치를 눈치 챈 불자들도 상당한 것 같다. 탐방로 옆에 표지판 하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부도는 고승(高僧)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탑을 말한다. 부도는 대체로 원당형 부도와 석종형부도로 나눈다. 설담당부도는 석종형부도에 해당한다. 석종형부도도 조금씩 모양이 다르다. 유별나게 치장한 것도 있지만, 설담당부도는 숲 속 바위 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에 조용히 앉아 있다. 그 주변을 둘러싼 돌들은 천진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남긴 것 같다. 기단부는 반쯤 흙에 묻혀서 부도를 더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졸(古拙)한 분위기의 부도는 숲속에서 설악산과 한 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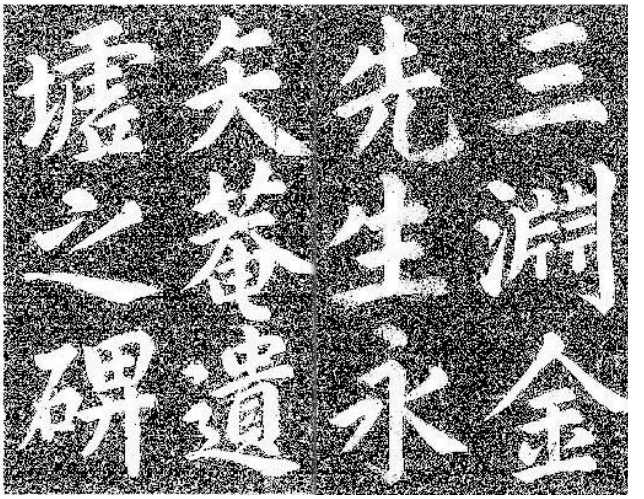
설담당부도의 주인공은 심원사란 이름을 1783년에 백담사라 고친 설담(雪潭) 스님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곳에서 백담사까지는 거리가 상당하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부도를 세웠을까? 설담당부도에 대해서는 홍하일 선생님이 연구가 자세하다. 용암담 스님의 제자인 설담태활(雪潭泰闊)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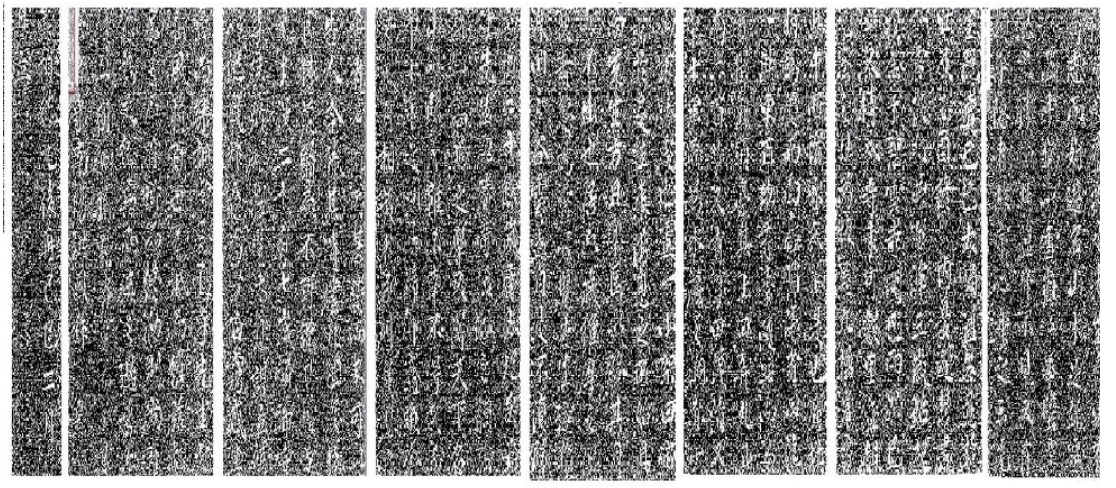
영시암터에 김창흡을 기리는 비를 세우다

영시암 유허비

벽운정사에 머물던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화재로 집이 타버리자 거처를 옮겨 영시암을 세운다. 숙종 35년인 1709이다. 그러나 영시암의 생활도 잠시, 1714년에 찬모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설악에서의 생활을 접고 산을 나오게 된다. 삼연 선생이 영시암을 떠난 후 영시암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다.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시는 폐허가 된 영시암의 쓸쓸함을 보여준다.

당시의 풍경은 사라지고 산만 깊은데 當年滅景此山深
황량한 담불에 무너진 주춧돌 찾을 길 없네 敗礎荒榛不可尋
고명봉(高明峰) 위에 달만 홀로 밝아 獨有高明峰上月
지금까지도 속세를 벗어난 마음 비추고 있네 至今留照詠歸心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1749년 인제현감 이광구(李廣矩)는 폐허가 된 영시암을 살펴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비(碑)를 세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 때 홍봉조(洪鳳祚)가 마침 관찰사였는데, 그 일에 감동되어 비문을 쓰게 된다.

아! 이곳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이 은거하셨던 곳이다. 선생께서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뜻이 있었으며, 이름난 산수를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설악의 많은 봉우리와 절벽, 못과 폭포의 뛰어난 곳을 홀로 독차지하여 기이함을 간직하고 보이질 않았다. 은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곳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선생께서는 이미 기사년(己巳年:1689)에 큰 화(禍)를 만나 더욱 세상에 뜻이 없었다. 을유년(乙酉年:1705)에 내우(內憂)를 끝내고, 설악의 곡백담(曲百潭)으로 책을 들고 들어와 3년을 지내다가, 벽운사(碧雲寺) 옆에 정사를 세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 불탔다.

기축년(己丑年:1709)에 다시 절의 동쪽 몇 리 되는 곳으로 들어가니, 바로 조원봉의 남쪽이다. 아홉 기둥의 판자 집을 짓고 늘 그곳에서 계시니, 이른바 영시암(永矢庵)이 이것이다. 암자의 북쪽으로 꺾이면서 누각을 만들었는데, 고명봉(高明峰)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완심루(玩心樓)이다. 동쪽으로 백 보 되는 곳에 가파르면서 높은 대(臺)가 있다. 옆으로 봉정정(鳳頂亭)을 당기고 있다. 그 위에 농환정(弄丸亭)이 있다. 서남쪽으로 이 백 보 되는 곳에 무청정(茂淸亭)이 있다.

또 동쪽으로 10리 가면 수렴동(水簾洞)이니, 역시 산에서 제일 뛰어난 곳이다. 하나의 조그맣게 얽어맨 집을 두었으니 멸영암(滅景庵)이다. 이에 오고가며 노닐고 쉬는 곳이 비로소 갖추어졌고, 선생도 바야흐로 즐기면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으셨다. 6년을 거처하였는데 일하던 찬모가 홀연히 범에게 물렸다. 선생께서는 드디어 춘천의 곡운(谷雲)으로 떠났고,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20여 년이 지나자 암자 역시 무너졌다. 아! 선생은 맑고 기이하며 뛰어난 운치로 높고 밝은 데 마음을 쏟는 학문을 하셨다. 또 천하의 명산을 얻어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비록 불행스럽게 오래 있을 수 없었으나, 십 년 사이에 새 날고 고기 노니는 곳에서 음풍농월(吟風弄月)하셨다. 물 깊고 산 가파르며 소슬바람이 부는 곳에서 흥이 나면 반드시 매우 즐거워하는 것이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남겨진 터에 나란히 있는데, 우거진 숲 황폐한 곳에 파묻혀 그곳을 알 수 없다.

선생이 사망하고 27년이 지난 뒤에 인제현감 이광구(李廣矩)가 이곳을 살펴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비(碑)를 세우고 기록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홍봉조가 마침 방백(方伯)이었는데,

그 일에 감동되어 즐거이 도와주었다.

아! 선생의 높으신 풍모는 백 세가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몇 자 되는 돌에 시간이 걸려 글씨를 새겼으나 아직도 능히 할 일이 이어진다. 뒤에 지나는 사람들이 또한 배회하며 가리키다가 탄식하면서 차마 떠나지 못할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 뒤 두 번째 기사(己巳: 1749) 2월 일 세움

영시암터

그 후 설정(雪淨) 선사가 옛터를 돌아보고 한탄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760년에 영시암을 중건하게 된다. 중건한 영시암의 성격은 바뀌게 된다. 유학자가 살던 거처에서 스님이 거처하는 절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불(儒佛)이 합쳐지게 된 것이다. 종교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불(儒佛)이 자연스럽게 상생하는 이곳은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 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를 보면, "암자는 처음에 조원봉(朝元峰)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조금 북쪽으로 옮겨 조원봉과 마주하고 있다. 처음에는 작은 집이었으나, 지금은 넓은 구조이다. 그러나 비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 오른편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으니, 도백(道伯) 홍봉조가 지은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새로 지은 영시암이 언제까지 이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유허비의 행방도 묘연하다. 6.25 전쟁 중 폭격에 의해 비석이 부서졌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다만 탁본만이 남아 있어 아쉬움을 달래준다.

내설악을 유람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머물던 곳

수렴동대피소 밑 유홍굴

유홍굴은 유홍(兪泓, 1524~1594)과 관련 있는 굴이다. 유홍의 본관은 기계(杞溪)이고, 자는 지숙(止叔)이며, 호는 송당(松塘)이다. 그와 관련된 것 중 특이한 것 두 가지를 소개한다. 공이 감시고관(監試考官)으로 있으면서 율곡(栗谷)을 많은 선비들 가운데서 장원으로 급제시키려 하자, 어떤 이들은 율곡이 젊은 시절에 불교를 공부했던 사실을 의심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초학(初學) 때의 과오는 정자(程子)나 주자(朱子) 같은 분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은 이미 정도(正道)로 돌아와 있는데 허물할 것이 또 뭐가 있겠는가?"하여 논의가 마침내 정해지니, 식자들이 이를 옳게 여겼다고 한다.

또 하나.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변방의 고을을 청해서 춘천부사로 나갔는데, 치적

춘천에 있는 유홍선정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박장윤(朴長潤)

홍기섭(洪耆燮)

이 조정에 알려지니 임금이 옷감을 하사하여 표창하였다. 이때 백성 하나가 흰 꿩을 바치면서 조정에 보고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공은 이를 물리쳤다. 임기가 차서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게 되자 춘천의 백성들이 공을 사모하여 비를 세우고 그 덕정(德政)을 기렸다고 한다. 관찰사 신분으로 설악산에 왔다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다.

유홍굴에 대한 자료는 홍태유의 「유설악기」에 기록이 자세하다.

> 다시 계곡을 따라 몇 리쯤 올라가면 유홍굴(兪泓窟)에 이른다. 굴은 기이한 경치가 없다. 다만 하나의 기울어진 돌은 반 정도 구부리고 있어 감실을 만들고 있는데, 몇 명의 사람이 자리할 수 있다. 옛날에 유송당(兪松塘)이 이산을 유람했는데, 그 때는 쉬어갈 만한 절이 없어 이 굴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수렴동대피소를 지나 영시암쪽으로 내려가다가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을 찍기 위해서 등산로를 벗어나 계곡으로 내려갔다. 두 계곡이 만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커다란 바위 밑에 공간이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박장윤(朴長潤)과 홍기섭(洪耆燮)이란 글자다. 박장윤(朴長潤, 1679~1754)은 강원도사(江原都事)를 역임하였다. 홍기섭(洪耆燮, ?~1866)은 순조(純祖) 16년인 1816년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바위 밑으로 들어가 보니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달리 상당히 넓었다. 네다섯 명은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다.

산양의 안식처에 이름을 새긴 네 사람

가야동 금석문

수렴동대피소에서 가야동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공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711년에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아들과 함께 가야동을 거닐었다. 「유봉정기(遊鳳頂記)」에 자세하다. 박성원(朴聖源, 1697~1757)도 가야동을 통과하고 「한설록(寒雪錄)」을 작성했다. 두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금석문을 찾아 나섰다.

김창흡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만경대 주변 바위산이다. "북으로 거대한 절벽이 높이 솟아 있어 하늘과 가로로 걸쳐있는 것이 수백 보쯤 된다. 쳐다보니 아찔한 것이 넋을 흔든다. 계곡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다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어 걸터앉아 북쪽을 바라보니 완전히 성대한 기세라 더욱 기이하고 위대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것을 곤륜(昆侖)이라 부르고자 한다." 곤륜산은 중국 절강성에 있는 산으로 선녀 서왕모가 산다는 낙토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티베트 고원 북부에 존재하는 곤륜산맥의 최고봉인 곤륜산은 해발 7167m이다. 지상의 인간들이 오를 수 없는 위엄 있고 장대한 바위 능선 위로 흰 구름 둥실 떠 있고, 그 아래서 신선들이 바둑을 뛰고 있을 것 같다.

다음 행선지는 천왕문으로 알려진 폐문암(閉門岩)이다. "양쪽 벼랑이 하늘을 치받고 솟아있으니 실로 대적하기 힘든 적수 같다. 대개 한 번에 녹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리저리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다. 굳건한 것은 돌 부채이고, 펼쳐진 것은 너럭바위이다. 또 번갈아 계단이 된다. 여울과 못이 서로 이어져 있으니 위 못의 잔물결은 무늬 있는 비단 같고, 아래 두 못은 거울이 상자에서 나온 것 같아, 티끌 없이 깨끗한 것이 견줄 데가 없다." 입을 벌리고 목이 아프도록 바라본 폐문암은 누가 앞에 서던지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박성원은 폐문암 아래에 있는 기묘한 바위 형상에 눈길을 준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의 눈을 끌었을 바위는 '삿갓바위'다. 이곳에 글씨를 새겨놓음직도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 박성원의 글을 잠시 감상해보자.

> "이른바 입모암(笠帽岩)이 있다. 스스로 층진 단을 만들고, 위에 우산 모양을 건너질렀으며 집과 천장, 방과 창문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기술 좋은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치지 못한다. 단지 사방에서 지탱하는 기둥이 짧고 작아 들어가 처할 수 없다. 그래서 단지 그 위에 삿갓 모양을 취하여 이것으로 이름을 붙였다 또 양쪽의 큰 돌이 물을 걸치고 마주하여 서있는데, 위는 합쳐졌고 아래는 열렸다. 완연히 넓고 큰 집이니, 옥암(屋岩)으로 이름 짓기에 마땅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 이외에 바위의 모양은 한 결 같이 어제 지나온 것과 같아서 이름 붙여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셀 수 없다."

옥암 주변도 찾아보았으나 글씨는 보이질 않는다.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바위에 앉았다. 누워서 폐문암을 질리도록 보았다. 느리게 지나가는 구름이 폐문암을 다 지나고서도 한참 뒤에 일어났다. 발밑으로 흐르는 물을 한 움큼 떠서 마시니 속이 다

뚫어지는 것 같다. 만경대 방향 바위산과 폐문암을 번갈아 뒤돌아보며 구비치는 계곡을 따라갔다.

계속 이어지는 폭포와 연못, 그래서 누구는 이곳을 구곡담계곡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포는 폭포마다 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연못은 연못대로 다른 깊이와 색깔을 지닌다. 계곡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보일 때마다 유심히 살피길 여러 차례. 조그만 계곡이 합류하는 곳 숲 속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 살피니 드디어 글씨가 보인다. 주변엔 동글동글한 동물의 배설물도 보이고 뼈도 보인다. 이 바위 밑은 동물들의 안식처이며, 가야동을 찾은 사람들이 잠시 빌려서 쉬던 곳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비를 피하거나 하룻밤 머물며 자신의 이름을 새겼음에 틀림없다.

김광수(金光遂, 1696~1770)의 이름이 먼저 보인다. 그는 1749년 9월에 인제현감으로 발령받았다가 1753년 12월에 인제를 떠나게 된다. 상고당(尙古堂)이란 호에 걸맞게 그는 골동수집으로 이름을 날렸다. 영조 때 활동한 대표적 문벌 좋은 집안의 지식인으로 벼슬보다는 골동품에 취미를 가져 일생을 서화(書畵)와 고동(古董)에 푹 젖어 자기만의 멋을 가지고 살았던 그에게 조선 최초의 골동수집가는 직함은 맞는 평가다.

그 옆에 있는 한협(韓浹)은 『승정원일기』에 등장한다. 영조 1년인 1725년에 이광좌(李光佐) 등을 처벌할 것을 청하는 전라도 생원 이만시(李萬蒔) 등의 상소에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다. 그러나 동일 인물인지는 불확실하다. 밑에 있는 심제성(沈濟成)은 오리무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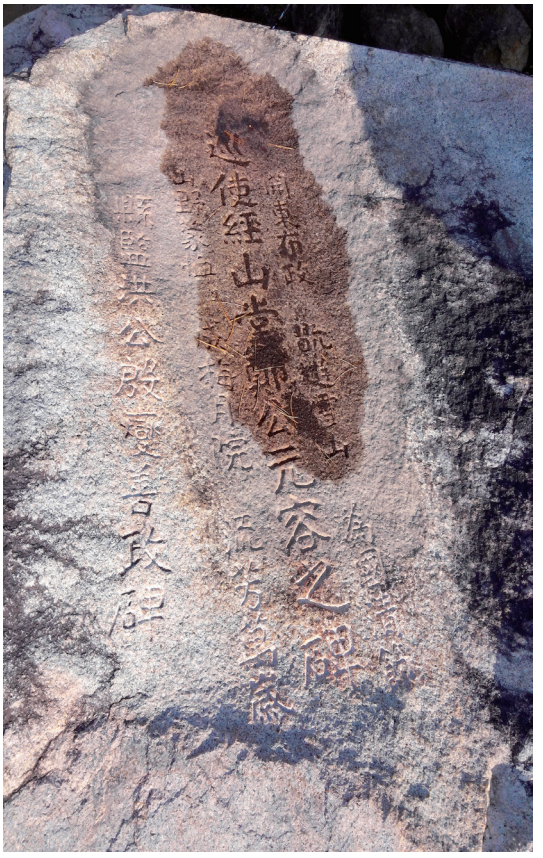
왼쪽으로 몇 걸음 하면 조그만 돌에 윤필언(尹弼彦)이란 이름이 기다린다. 돌이 바라보고 있는 큰 바위에 구멍이 뚫려있다. 고종 22년인 1885년의 『승정원일기』에 윤필언이 창덕궁 위장으로 한 차례 등장한다. 또한 동일 인물인지 알기 어렵다. 글씨체나 파인 정도로 판단하건데 최근의 것은 아니다.

네 사람의 이름은 예전부터 가야동계곡을 통해 오세암이나 봉정암으로 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창흡과 박성원의 글은 네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설악산을 유람하다 오세암에 들리다

정원용(鄭元容)과 홍은섭(洪殷燮) 비석

오세암의 암각문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위에 오세암의 역사를 풍부하게 해 줄 암각문이 있다. 경내 계단 아래에 있는 큰 바위는 오세암의 역사책이다. 처음 왔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오세암을 찾았을 때 바위 밑에 한글로 새겨진 '나무관세음보살'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었다. 글씨를 판 사람이 잘못 팠을 리 없고, 제대로 팠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 바위의 위치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바위 주변을 돌면서 유심히 살피니 바위 윗부분에 새겨진 글씨가 보인다. 사다리를 빌려 바위에 오르니 수많은 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오세암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순사경산당정공원용지비(巡使經山堂鄭公元容之碑)'다. 순찰사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비석이다. 정원용은 영의정을 지닌 분으로, 강원도관찰사 시절(1827.3~1828.7)에 이곳을 들렸을 것이다. 옆의 글을 보니 설악산에서 노닌 것 같은데, 그의 문집을 살펴보니 설악산과 관련된 시문을 찾을 수 없다. '성매월원(成梅月院)'이란 글귀도 보인다. 매월원(梅月院)을 지었다는 뜻인데, 오세암에 딸린 매월원이란 건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세암을 매월원이라고 불렀는지 매우 흥미롭다.

그 옆에 '현감홍공은섭선정비(縣監洪公殷燮善政碑)'가 있다. 홍은섭은 인제현감(1827~1829. 12)을 역임한 분이다. 그런데 오세암에 선정비가 새겨져 있다. 오세암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

옆으로 수많은 이름들이 빽빽하다.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었는지 알려준다. 오세암 방명록이다. 부주지 스님의 말에 의하면 더 많은 바위와 글씨가 있었는데 중창하면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바위에 새겨진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오세암의 역사뿐만 아니라 설악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양한 필체로 빼곡하게 바위를 채우다

김영목(金永穆)부터 장한국비(張漢國碑)까지

정원용 이름 오른쪽으로 오세암을 다녀간 이들은 다양한 필체와 크기로 빼곡하게 바위를 채워 넣었다. 오른쪽 아래 부분은 부식과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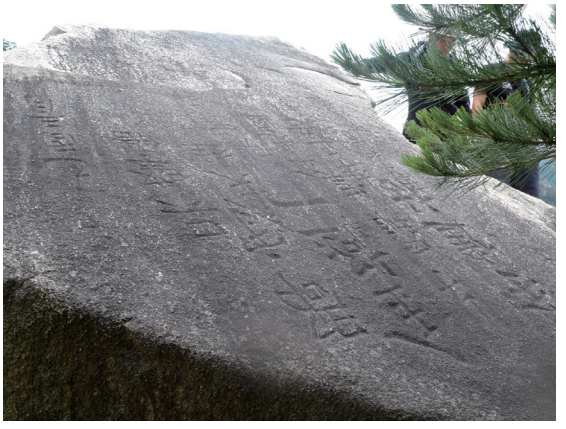
좌측 윗부분에 커다란 글씨의 김영목(金永穆, 1835~1910)은 바위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주의를 기울이면 계단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경대에 정신을 빼앗겨 몇 번 지나치면서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김영목의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청우(淸友)다. 1870년(고종 7) 경과정시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72년 홍문관부수찬으로 관직에 올라 1876년에 우부승지가 되고, 이듬해 12월에 대사성이 되었다. 1896년에는 궁내부특진관이 되고, 이듬해에는 비서원경에 올랐으며

그 해 10월에는 장례원경이 되었다. 1898년에는 홍문관학사를 겸임하고, 그 해 11월에는 궁내부특진관에 올랐으며 홍릉제조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900년부터 2년 동안은 산릉도감 및 천릉도감을 지냈으며, 1902년 9월에는 칙임관 2등에 올랐다. 그가 언제 오세암에 왔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 옆은 김천수(金天洙, 1860~ ?)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성향(聖享)이며 아버지는 옆에 있는 김영목(金永穆)이다. 그는 1878년 증광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홍문관응교를 지냈고, 갑신정변 뒤 민씨정권이 군제를 개편할 때 잠시 군사마를 지냈다. 1900년을 전후하여 광주군수 · 경주군수로 재임하였는데, 탁지부에서 그가 모리배와 짜고 세금 상공을 지체하였고, 교체시에도 세금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면관시키고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1907년 비서승에 임명될 때까지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순종의 즉위식에 비서승 겸 장례로 활약하였다. 또한, 규장각기주관을 지냈으며, 1910년 8월 훈3등(勳三等)을 받고, 정2품으로 승급되었다. 김영목과 김천수의 커다란 글씨 때문에 더 작게 보이는 황재우(黃在祐)는 불분명하다.

이건고(李建枯)와 그의 아들 라한(羅漢)의 글씨는 굳센 해서체로 깊게 새겨져 있다. 저 정도라면 당시 상당한 직책에 있었을 것이나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다. 바로 옆은 군수(郡守) 김극일(金極一)이다. 김극일의 글씨도 크게 깊다. 김극일(金極一, 1888~?)은 강원도 금화군수(1926.7~1928.1)와 양양군수(1928.1~1930.5), 그리고 인제군수(1930.5~1931.12)를 지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용집(金溶集)의 「중건청간정기(重建淸澗亭記)」에도 김극일은 등장한다.

그 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씻기고 마모된 데다 화재까지 만나 소실되어, 겨우 10여개의 돌기둥만 우뚝 서 있을 뿐이어서 수백 년간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었다. 무진년 봄에 내가 본 면의 직책(職任)을 맡고 있으면서 큰 행사를 기념하여 옛 자취를 추억하는 때에 군수 김극일(金極一)이 잊어버린 역사를 깨우쳐 주는 계기가 있어서 선비들에게 의견을 묻고는 여러 사람이 계를 모으고 정자의 터를 살펴 옛 터의 남쪽 곶(岬)에 청간정을 옮겨 세우기로 하였다. 한 군의 유지들이 힘을 합쳐 재물을 모아 이듬해 봄에 공사를 마치고 이해 칠 월 달 모일에 낙성식을 거행 하였다. 아, 천년의 역사에서 정자는 반드시 그때그때의 모든 흥취를 기약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궤적이란 인생살이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니, 어쩌면 이렇게 한결 같은 것이리오! 후대의 사람들이 이어가며 수리한다면 이 정자의 수명은 저 주춧돌과 함께 영원할 것이리라. 1929년(己巳年) 8월 경신일 회재(回齋) 김용집(金溶集)은 서(序) 하노라.



김극일은 자신의 이름을 새기면서 후대에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받을 것을 몰랐으리라.

윗 줄은 대부분 파악이 되지만, 두 번째 줄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김진택(金振澤)은 숙종 12년(1686)에 별시 병과에 급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선다. 바로 밑엔 박응필(朴應燁)이다. 누군지 알 수 없다. 김진택 옆은 남정관(南鼎寬, 1751~?)이다. 자는 여중(汝重)으로 정조 19년인 1795년에 식년 진사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정오(李正吾)는 본관이 전주(全州)며 자는 자심(子心)이다. 1753년에 정시 병과로 합격하고, 1755년 3월에 김천도 찰방으로 도임하여 1756년 9월에 주서(注書)로 승차하여 이임하였다. 김광국(金光國, 1685~ ?)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대관(大觀)이다. 1735년(영조 1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41년 지평이 되었다. 이듬해 정언을 거쳐 장령 · 필선 · 헌납을 역임하고 1755년에 서장관이 되었다. 이듬해 사간에 이어 1759년에 승지, 1760년에 황주목사, 1766년에 회양부사가 되었다. 1769년 도승지가 되고 이어 병조참판이 되었다. 1779년(정조 3) 내의원의 관이 되었다. 편저로는『간독(簡牘)』이 있다.

김광국 옆 아래에 장태순(張泰淳)이 있으나, 아직 정확

한 정보가 없다. 그 옆은 성천주(成天柱)다.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경(子擎)이고, 호는 노운헌(老雲軒)이다. 1735년(영조 11)에 사마시의 양시에 합격하여 생원 · 진사가 되고, 1743년에는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46년 홍문관수찬에 제수되자 궁중의 의식에 기녀(妓女)가 참여하는 것은 나이 어린 세자의 교육상 옳지 않다고 소를 올려 이를 중지하게 하였다. 그 뒤 사간원헌납으로 세자시강원문학을 겸직하였고, 이어 세자시강원의 필선 · 보덕을 거쳐 사헌부집의 · 승문원교리가 되었으며, 1753년에 승지 · 대사간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 뒤 1765년 강원도관찰사 · 동의금부사 · 동지춘추관사 등을 역임하고, 1777년(정조 1)에는 대사헌에 이르렀다. 그는 사대부의 풍모를 지녔으며, 의리와 현사(賢邪)에 대한 분별에 의연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조를 지녔다. 또한, 청명한 선비로 사우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평생 지우로 조구명(趙龜命) · 이덕수(李德壽) · 윤순(尹淳) · 이하곤(李夏坤) 등과 교유하였다.

그 옆에 오경호(吳擎浩)와 을유삼월(乙酉三月)이란 간지와 계절이 있으나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 중 '장한국비(張漢國碑)' 불(佛)', '수(守)' 등의 글씨가 겨우 판독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인제현감, 18세기 초에 설악을 유람하다

조진세(趙鎭世)

수렴동대피소를 출발하여 구곡담계곡을 경유할 경우 우뚝 솟은 산에 시선을 주어야겠지만 계곡도 유심히 보아야한다. 탐방로만 바라보면서 걸으면 헬스클럽에서 체력 단련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구곡담계곡이 시작되는 구간에선 바위를 주목해야 한다. 이 구간에 집채만 한 바위들이 이곳저곳에 앉아있는데, 이곳을 탐방했던 선인들은 자신이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바위에 남겼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는 조진세(趙鎭世)다. 『인제군읍선생안(麟蹄郡邑先生案)』

에 “문과(文科). 1728년 군직(軍職)에 제수되었고, 8월에 문학(文學)으로 계속 임명되었다. 1731년 지평(持平)으로 갔다.[文 擁正戊申以軍職除拜 八月拜文學仍任 辛亥八月以持平去]”라 기록되어 있다. 인제현감으로 있던 1728부터 1731년 사이에 이곳을 유람한 것으로 보인다. 조그마한 크기로 새겨진 이름이 18세기 초의 설악산으로 이끌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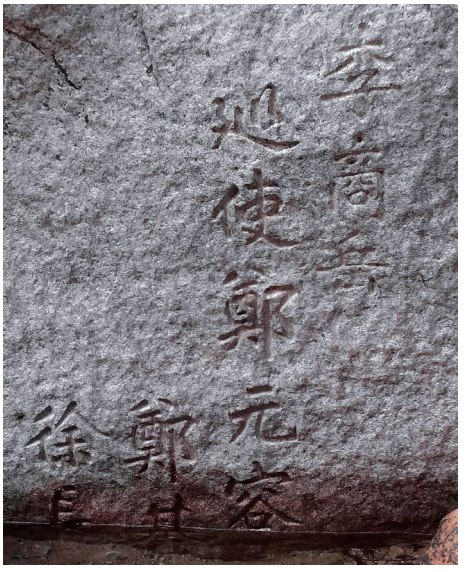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1

물에 잠긴 금석문

외설악의 비선대가 유람객들이 머물며 쉬는 곳이라면, 내설악의 멸영암 주변도 휴식의 공간이며 완상의 공간이다. 이곳을 찾은 사람은 기막힌 선경에 왔었다는 것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아마도 좁은 탐방로 덕분인 것 같다. 탐방로는 탐승객들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시선을 묶는 역할도 한다. 이곳에 넓은 쉼터를 마련해서 설악의 비경을 누구나 맛보게 해야 한다.

처음 구곡담계곡을 찾았을 때는 주변의 경치에 압도되어 입을 벌린 채 지나쳤다.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이후 삼연 선생이 거처했던 '멸영암(滅景庵)'을 찾기 위해 이 일대를 두리번거렸을 때에도 삼연 선생의 자취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겨울에 다시 들렸을 때 비로소 주변의 경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을 살피는데 문득 바위에 새겨진 글씨들이 하나 둘 보이기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였다!

이곳은 네 군데에 집중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 중 계곡 한가운데 있는 바위는 아랫부분이 물속에 잠겨있어서 글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지형이 변한 것 같다. 예전에는 계곡물이 이곳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렀을 것이다. 이곳의 글씨들이 제일 힘차고 깊게 새겨져 있다. 최극명(崔克明), 유백환(兪伯煥), 유무환(兪茂煥), 이도상(李度相), 이계(李溎), 이상악(李商岳)의 이름이 먼저 들어온다.

최극명(崔克明, 1768~?)은 순조 1년인 1801년에 증광시에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행적을 알 수 없다.

유백환(兪伯煥, 1767~?)은 정조 22년인 1798년에 식년시에 합격하였다. 그는 『일성록』에 잠깐 등장한다. 정조14년 1790년에 수원부 유생의 응제 시권을 채점하여

차등 있게 시상하였는데, 이 때 부채를 선물로 받았다. 그 해 12월11일에 수원부의 제술과 활쏘기에서 입격한 유생과 무사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는데, 쌀 7말을 받았다.

유무환(兪茂煥, 1778~?)의 본관은 기계(杞溪)며 자는 경렴(景濂)이고, 호는 기암(幾庵)이다. 순조 7년인 1807에 식년시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1774~1842), 정세익(鄭世翼) 등과 교유하였으며 학문은 경학 이외에도 산학(算學), 농정(農政) 등의 학문을 연구하였다. 저술로 『기암집(幾庵集)』, 『자훈개몽(字訓啓蒙)』 등이 있다.

이계(李泊)는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가 설악산을 찾은 이유는 벼슬살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그는 영조 49년인 1773에 강원 감사로 발령받는다. 이밖에도 『조선왕조실록』 여기저기서 그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악(李商岳, 1738~1808)은 이름을 이의필(李義弼)로 고쳤다. 자(字)는 교백(喬伯)이며 호는 창계(蒼溪)이고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후손이다. 영조 42년인 1766년에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처음에는 예문관 검열이 된 뒤 사간원에 근무하다가 세자시강원 사서로 세자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으면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 정조 24년인 1800년에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의 이름은 외설악 계조굴 옆 암벽에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내외설악을 두루 유람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이름부터 물속에 잠겨 있다. 정원용의 이름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순사(巡使)라는 벼슬이 단서를 주고, 오세암에 새겨진 그의 이름이 뒷받침해 준다. 그는 순조 27년인 1827년 3월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도내의 폐단과 그 대책 12조를 아뢰기도 했다. 그러니 그가 설악산에 온 것은 1827년에서 1828년 사이다. 그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선지(善之), 호는 경산(經山)이다 1802년(순조 2) 정시문과에 급제, 가주서 · 검열 · 부응교 · 이조참의 · 대사간 등을 지냈다. 1831년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예조판서 · 이조판서 · 우의

정 · 좌의정을 거쳐 1848년 영의정이 되었다. 저서로 『경산집』 · 『황각장주(黃閣章奏)』, 『북정록(北征錄)』, 『문헌촬요(文獻撮要)』 등이 있다. 문집을 샅샅이 뒤졌으나 설악산 관련된 시 한 편 없다. 왜일까? 시를 짓되 추후에 문집을 간행할 때 누락되었을 것이다. 많은 저서를 남긴 그가 설악산에서 받은 감흥을 시로 읊조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 설악에 들어 시를 짓지 않는 사람은 감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임하필기』에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이 전해진다. 「흑앵도(黑櫻桃)」도 편이다.

> 관동(關東)에서 나는 흑앵도와 흑복분자(黑覆盆子)는 그 맛이 매우 달다. 정원용(鄭元容)이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할아버지께 인사하러 들렀을 때 할아버지께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반드시 그것을 구해 맛보라고 권하셨다. 뒤에 정원용이 돌아와 찾아뵙고 말하기를, "흑복분자는 구해 맛보았는데, 흑앵도는 끝내 맛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곁에서 모시면서 들은 것이다. 뒤에 호남을 유람하면서 흑복분자는 보았지만 앵도는 역시 볼 수 없었다.

『물명고』에 의하면 '산도(山桃)는 열매가 작고 흑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벗'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흑앵도(黑櫻桃)는 우리나라에서 '벋'이라 한다. 인가(人家)에 심는 앵두나무의 일종에도 검은색이 있으나 산에서 나는 것은 반드시 검은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원용이 먹지 못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정원용의 일화를 하나 더 소개란다. 「사치와 검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임하필기』에 실려 있다.

> 경산(經山) 상공(相公)은 집이 퇴락하고 의복이 남루하며 방문 밖에는 우산과 신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고, 낙서(駱西) 상서(尙書)는 집이 으리으리하고 의복이 고급이며 대문 앞에는 수레가 늘어서 있었다. 두 공은 모두 명경(名卿)으로 당세에 추중되었지만, 사치와 검소의 차이가 이와 같았다. 효정공(孝貞公) 이석규(李錫奎)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

를, "선지(善之 정원용(鄭元容)의 자(字))의 몸가짐은 빈한하고 담박하니 이것이 사대부(士大夫)의 본색이다. 원백(元伯)은 가정생활이 오히려 화려하고 떠들썩하나 재상의 처지로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우열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셨다. 내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과연 그 말씀대로였다. 옛날 송(宋)나라의 내공(萊公) 구준(寇準)은 성품이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였고 기공(祁公) 두연(杜衍)은 검소한 생활을 하였는데, 모두 재상의 지위에 올라 이름이 역사에 남았다. 그러나 말년의 운수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제각기 달랐으니, 조부께서 아마도 이것을 거울삼아 말씀하신 듯하다.

정원용 옆으로 정기세(鄭基世), 서장순(徐長淳), 이면인(李勉人), 변종법(卞宗法), 정은(鄭隱), 류노수(柳魯洙), 홍은섭(洪殷燮), 송재경(宋在經), 한여(韓璵), 이의성(李義聲), 무자중춘(戊子仲春)이 새겨져 있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2

인제현감 어재완(魚在琬)과 그의 아들

바위에 새긴 각자(刻字)는 당대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선인들의 이동 경로와, 지명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름을 새기는 '제명(題名)'이 당시에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인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세기의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은 지리산 산행 중 바위에 쓴 글씨를 발견하고는 '대장부의 이름은 사관(史官)이 책에 기록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하는데, 구차하게도 산속 썩지 않는 돌에 이름을 새겨 억만 년을 전하려 한다'고 따끔하게 비판하였다. 그뿐 아니라 박지원(朴趾源, 1737~1805)도 「발승암기(髮僧菴記)」에서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동쪽으로 풍악산(楓嶽山)을 유람할 때 그 동구(洞口)에 들어서자마자 옛사람과 지금 사람들이 이름을 써 놓은 것이 보였는데, 크게 쓰고 깊이 새겨진 것이 조그마한 틈도 없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어 마치 구경판에 어깨를 포개 선 것 같고 교외의 총총한 무덤과 같았다. 오래 전에 새긴 글씨가 겨우 이끼에 묻히자 새 글씨가 또 인주(印朱) 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다.

무너진 벼랑과 갈라진 바위에 이르니 깎아지른 듯 천 길이나 높이 서 있어, 그 위에는 나는 새의 그림자조차 끊겼는데도 홀로 '김홍연(金弘淵)'이란 세 글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실로 맘속으로 이상히 여기고, '자고로 관찰사의 위세는 족히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며, 양봉래(楊蓬萊)는 기이한 경치를 좋아하여 그분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곳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거늘, 저 이름 써 놓은 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석공(石工)을 시켜 다람쥐, 원숭이와 목숨을 다투게 했단 말인가?'라 했다.(생략)

연암 박지원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름 새기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다. 사람들이 바위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이는 부질없는 짓일 뿐이라는 것이다. 비판적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서 나는 돌에 새긴 글씨를 찾으러 다니고, 발견하면 쾌재를 부르며 고마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설명해야할 것인가.

물을 건너 계곡 가에 커다란 바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새겼다. 박지원이 보면 혀를 찰 일이지만 나는 허겁지겁 달려갔다. 바위 오른쪽에 '홍광빈(洪光彬)'이 조그맣고 단정하게 새겨져 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행적을 알 수 없다. 그 옆에 어재완(魚在琬, 1770~?)도 이름을 남겼는데, 그는 인제현감을 지낸 적이 있었다. 그의 자는 치옥(稚玉)으로 순조 1년인 1801년에 식년시에 합격한다. 어재완은 1822년 9월에 사직령(社稷令)으로 인제에 왔다가, 1827년 2월에 괴산 군수로 벼슬이 높아져 임명되었다. 그는 설악산을 유람할 때 아들 명부(命敷)와 명교(命敎)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이름 옆에 자랑스럽게 새겼다.

옆으로 네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다. '김덕초(金德初)와 홍구삼(洪九三)의 행적도 묘연하다. 김광렴(金光濂, 1756~?)은 영조(英祖) 50년인 1774년에 증광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옆의 김광득(金光得)은 아마도 김광렴의 동생인 것 같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3

민백흥(閔百興)과 여러 사람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감이여 就其深矣月
점점 험한 곳으로 들어가니 寔入其阻
칡과 등 넝쿨 무성하여 莫莫葛藟
창과 문 얽어매네 綢繆牖戶
느릿느릿 흐르는 물이여 楊之水
맑은 잔물결 일렁이네 淸且淪漪
한가롭고 여유로움이여 優哉游哉
이 사람 누구인가 此何人哉

높지 않은 것은 산이 아니니 莫高非山
오직 바위만 울퉁불퉁하네 維石巖巖
물의 근원은 왼쪽에 있고 泉源在左
회오리바람 남쪽에서 불어오네 飄風自南

삼연 김창흡은 멸영암(滅景菴)을 이렇게 노래했다. 깊숙한 곳, 그러면서도 물이 흐르는 곳. 삼연 선생은 이러한 곳을 찾아 나섰다.

"처음엔 나무집에서 사슴과 어울리려 했으나, 스님과 나무꾼 찾아와 시끄럽구나. 마침내 폭포 옆에서 숨으려고, 흰 구름으로 산문을 막아버렸네."

백담계곡 입구부터 시작한 그의 거처는 영시암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시끄러움을 피해 보다 더 깊은 곳을 찾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찾은 곳이 바로 멸영암이었다.

1753년에 이복원은 설악산에 오른 후 「설악왕환일기(雪嶽往還日記)」를 남긴다. 삼연과 같은 장소를 묘사했으나, 또 다른 감동을 준다.

> 하나의 산봉우리가 동구 밖으로 비스듬하게 은은히 비치는데 바라보자니 금강산의 중향산(衆香山)을 방불케 한다. 산봉우리에 있는 돌 빛은 쑥색처럼 암백색과 담청색이고 물에 있는 것은 순백색이다. 물 또한 고여서 돌아 못은 깊은데, 위아래로 열 층이 포개진 것이 대체로 모두 그러하다. 상하층 사이는 모두 커다란 흰 돌이 있는데 가로로 잘려 넓은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졌다. 물은 돌 위를 따라 흩어져 퍼지면서 아래로 흐른다. 거의 물길이 끊어진 것 같지만 우수수 쏟아지는 것이 항상 비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시냇가에는 너럭바위가 있는데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 너럭바위 위로는 또 높고 큰 바위가 몇 덩어리 있는데, 구부정하게 굽어있어 폭우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다. 자리를 깔고 그 아래에 앉아 솥을 설치하여 밥을 지었다. 현지(玄之)가 지팡이 끝에 붓을 묶어 암벽 위에 이름을 썼다.

이복원이 가던 걸음 잠시 멈추고 쉬던 곳. 지팡이 끝에 붓을 묶어 바위에 이름을 썼던 곳. 그곳엘 가니 먹은 그동안의 비바람에 사라져버리고 바위에 새긴 사람만이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활짝 반긴다. 제일 먼저 반긴 사람은 민홍렬(閔弘烈, 1735~1777)이다. 그는 영조 40년인 1764년에 정시 갑과 장원으로 벼슬길에 나선다. 나중에 민홍섭(閔弘燮)으로 개명하였다. 그의 생부는 민백홍(閔百興)으로 영조 46년인 1770에『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때는 5월21일이었다.

> 지평 이원(李遠)이 상소하여 민백홍(閔百興)과 민홍렬(閔弘烈) 부자(父子), 이창수(李昌壽)와 이병정(李秉鼎) 부자, 채제공(蔡濟恭)을 탄핵하였는데, 상소가 들어오자, 상께서 이원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이원에게 하문하신 뒤에 전교하시기를, "지평 이원은 보첩(譜牒)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영구히 서인(庶人)으로 삼으라."하였다.

이원(李遠)이 탄핵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백흥(閔百興)은 지방 수령과 각 도의 감사로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고 정관(政官)으로 있을 때 정사를 편파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민홍렬(閔弘烈)은 재물과 여색을 탐하였을 뿐만 아니라, 1769년(영조45)에 영조가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탄생했던 집을 방문했을 때 민홍렬이 인현왕후가 사용하던 비녀를 자기 집안에 내려 준 것이라면서 영조에게 바쳤던 은비녀가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이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민홍렬의 생부인 민백흥(閔百興, 1715~?)은 큼지막한 모습으로 옆에 있다. 이 일대에서 제일 크다. 그의 자는 기지(起之)로 좌윤, 예조참판,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영조 41년인 1765년 6월11일에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된다. 이 시기에 이곳에 들려서 머물렀을 것이다. 그는 관창사로 있던 1767년에 횡성에 은거하던 안석경의 재주가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를 조정에 천거하기도 했다.

좌로 몇 클릭 이동하자 민백흥(閔百興) 글씨보다 못하지만 제법 크고 깊게 패인 글씨가 반긴다. 이정규(李廷奎, 1772~ ?)는 순조15년인 1815년 7월 4일에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아마도 관찰사 시기에 설악을 유람하였을 것이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진다. 이유원의 『임하필기』를 보면 자기 가문 자랑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삼대(三代)가 등극과(登極科)에 응시한 일'이란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 나의 할아버지의 형제되시는 이정규(李廷奎)께서 순조(純祖) 때 등극증광과(登極增廣科)에 뽑혔고, 그의 아들인 이계선(李啓善)은 철종(哲宗)의 등극증광 전시(登極增廣殿試)에 응시하였으며, 그의 손자인 이유승(李裕承)은 그 당시 임금 시대에는 등극증광과에 뽑혔다. 삼대가 여기에 과거 급제한 자들의 행사에 참석하였으니 귀한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모두 어사화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나의 선대부(先大夫)께서는 경인년(1830, 순조30)에 응방하고 나서도 또한 사화는 받지 못하였고, 내가 응방하였을 때에는 으레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받지 않았다.

읽어보니 자랑할 만하다. 바로 옆은 이민덕(李敏德, 1728~1786)이다. 그의 자는

명준(明俊)이고, 호는 한호(漢湖)다. 그의 행장을 보니 대단하다. 일찍이 벼슬길에 마음을 끊고, 향리에 숨어 살며 학문에 전심하여 의약(醫藥), 복서(卜筮), 성역(星曆), 율여(律呂), 지도(地圖), 물산(物産)과 조정(朝廷)의 법전(法典)과 전고(典故) 등에 고루 정통했으며, 더욱 육경사자(六經四子)와 정주서(程朱書)에 힘썼다. 도대체 모르는 것이 없다. 박학다식! 무불통지! 당시 도감사(道監司)는 자주 쌀과 고기를 보내어 부모의 봉양을 돕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영남에 와서 이군(李君) 한 사람을 알게 된 것 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였다 하니 평판이 주변에 자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문장은 꾸미고 아로 새김을 힘쓰지 않아도 무르익고 풍부했으며, 시 또한 맑고 원숙하여 추고하기를 힘쓰지 않았다고 한다. 저서가 많았으나 모두 수집하지 못하고 『한호문집(漢湖文集)』 약간만이 전해진다.

이밖에 신서우(申瑞羽), 한상(韓瑺), 이재방(李再芳), 이형익(李衡翼), 이형철(李衡喆) 등이 보인다. 그러나 이 분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다.

내설악 금석문의 보고 멸영암 바위글씨 4

만수담 옆 글자들

삼연 김창흡은 "수렴동 가에 하나의 흙 언덕을 차지하고 나무로 집을 짓고 그 사이에서 은거하고자 하였다.(水簾上占一土阜 擬因樹爲屋 滅景於此間)"「유봉정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어 주변의 풍광을 묘사한다.

> 다시 5리를 가서 하수렴(下水簾)에 이르렀다. 이곳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다. 겹쳐지고 쌓인 높은 봉우리들이 좌우로 산세를 지고 솟아있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가운데는 골짜기를 열어 젖혔는데 넓고 확 트인 것이 깨끗하고 상쾌하다. 위아래로 수백 보 되는 둥근 못, 넓은 폭포, 얕은 여울, 돌아드는 물굽이, 너럭바위, 우뚝 선 벼랑, 깊은 골짜기, 평평한 터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알맞은 자리를 얻어서 곡진하게 운치가 있다.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수렴동대피소에서 구곡담계곡으로 발길을 돌려 쌍룡폭포를 향해가다가 만수폭포, 혹은 만수담으로 알려진 곳이다. 몇 번 오고가니 구곡담계곡에서 이만한 곳도 드물다.

만수담 주변은 커다란 너럭바위다. 물이 시커멓게 고여 있는 못 옆을 자세히 보면 많이 마모된 글씨가 보인다. 아마도 이곳을 찾아 주변의 풍경에 매료되어 정신을 잃은 사이에 동행한 각수는 이름을 파고 있었으리라. 자세히 보니 이계(李溎)다. 그는 바로 아래 계곡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에도 이름을 새겼었다. 그렇다면 두 번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글씨체와 크기도 다르다. 참으로 묘한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그는 영조 49년인 1773에 강원 감사로 발령받았는데, 벼슬살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비오는 날 우연히 다시 이곳을 찾았다. 그러자 이계(李溎) 밑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 박○원(朴○源), 홍경(洪敬), 지일○(池日○) 등 여섯 명이다. 옆으로도 흐릿한 글씨가 보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번 설악에 들어왔다가 두 번 봉정에 올랐다

김광수(金光遂)와 이광(李珖)

봉정암은 해발 1244m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절로 유명세를 탄다. 더 높은 곳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봉정암이 유명한 이유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적멸보궁(寂滅寶宮)이기 때문이다. 절 가운데는 불상(佛像)을 전혀 모셔놓지 않은 데가 있는데, 법당 안에는 단(壇)만 있고, 법당 밖 뒤편에는 사리탑을 봉안하여 놓은 곳을 적멸보궁, 또는 보궁이라 한다. 이는 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眞身) 사리를 모신 보배로운 곳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때문인지 봉정암은 기도발(祈禱發)이 잘 듣는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평일에도 수많은 남녀노소가 힘들고 험한 길을 두려워 않고 오른다.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수많은 유산기를 지은 사대부들은 봉정암에서 하루 밤을 보내곤 했다. 어떤 이는 시를 남겼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석가사리탑으로 가는 길은 홍분 때문에 계단 옆 바위를 스쳐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날 바위에 새긴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름만 들어왔었다. 나중에 다시 찾아와 자세히 살펴보니 이름 옆과 아래에 조그만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김광수 金光遂
이광 李珖

임신 壬申
하추 夏秋
이주령 以主令
재래 再來
사입설악 四入雪岳
쌍등봉정 双登鳳頂

김광수(金光遂)와 이광(李珖)의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아 함께 이곳을 찾은 것 같다. '임신(壬申) 하추(夏秋) 이주령(以主令) 재래(再來)'에서 임신(壬申)은 1752년이다. 인제읍선생안을 보면 김광수(金光遂)는 1749년 9월에 인제현감으로 발령받았다가 1753년 12월에 병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 다음 '하추(夏秋) 이주령(以主令) 재래(再來)'는 '여름과 가을이 교체하는 계절에 주인 영감과 다시 왔다'로 해석 가능하다.

이름 오른쪽에 새겨진 글씨는 어렵게 판독할 수 있었다. '사입설악(四入雪岳) 쌍등봉정(双登鳳頂)'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네 번 설악에 들어왔다가 두 번 봉정에 올랐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항 것 같다. 그렇다면 김광수(金光遂)는 설악산을 사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꼽을 만 하다.

김광수(金光遂)를 찾아보니 한시대를 멋지게 살다간 사람이다. 검색을 하니 "숙

종 22년(1696) 이조 판서 김동필(金東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서른 살에 진사 급제 후 잠시 인제 군수(麟蹄郡守)를 지냈다. 서화에 뛰어났으며, 골동품 수집과 감정으로 명성이 높았다."라는 대복이 눈에 들어온다.

박지원의 글을 인용해 본다. "근세의 감상가로는 상고당(尙古堂) 김씨(金氏)를 일컫는다. 그러나 재사(才思 재기)가 없으니 완미(完美)하다고는 못 할 것이다. 대개 김씨는 감상학을 개창한 공이 있으나, 여오(汝五)는 꿰뚫어보는 식견이 있어 눈에 닿는 모든 사물의 진위를 판별해 내는 데다가, 재사까지 겸비하여 감상을 잘하는 자라 하겠다."

박지원은 「관재(觀齋)가 소장한 청명상하도 발문」을 지어서 김광수의 특별한 취향을 전해준다.

> 이 두루마리 그림은 상고당(尙古堂) 김씨(金氏)의 소장으로서 구십주(仇十洲)의 진품이라 여기어 훗날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같이 묻히기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씨가 병이 들자 다시 관재(觀齋 서상수(徐常修)) 서씨(徐氏)의 소장품이 되었다. 당연히 묘품(妙品)에 속한다. 아무리 세심한 사람이 열 번 이상 완상했더라도 매양 다시 그림을 펼쳐 보면 문득 빠뜨린 것을 다시 보게 된다. 절대로 오래 완상해서는 안 된다. 자못 눈을 버릴까 두려워서다.
>
> 김씨는 골동품이나 서화의 감상에 정밀하여, 절묘한 작품을 만나면 보는 대로 집안에 있는 자금을 다 털고, 전택(田宅)까지도 다 팔아서 보태었다. 이 때문에 국내의 진귀한 물건들은 모두 다 김씨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하자니 집안은 날로 더욱 가난해졌다. 노경에 이르러서는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눈이 어두워졌으니 평생 눈에 갖다 바쳤던 것을 입에 갖다 바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물건들을 내놓았으나, 팔리는 값은 산 값의 10분의 2, 3도 되지 않았으며, 이도 이미 다 빠져 버린 상태라 이른바 '입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곤 모두 국물이나 가루음식뿐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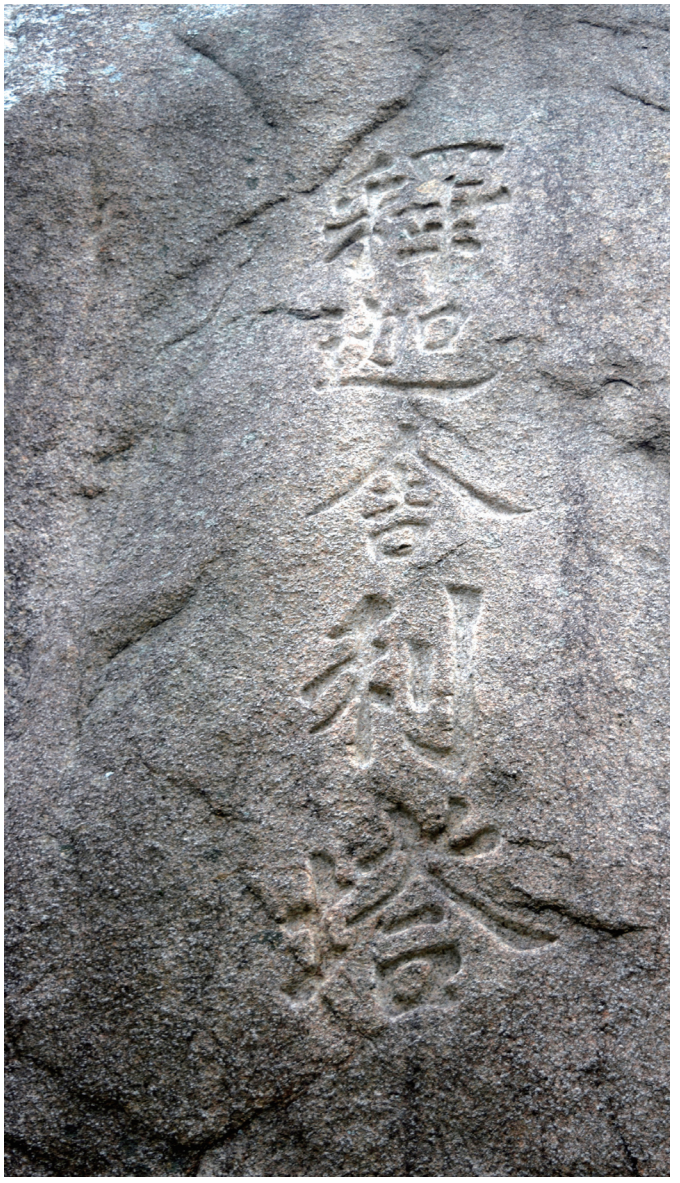
상고당 김광수(尙古堂 金光遂, 1696~1770)는 골동수집으로 이름을 날렸다. 영조 때에 활동한 대표적 문벌 좋은 집안의 지식인으로 벼슬보다는 골동품에 취미를 가져 일생을 서화(書畵)와 고동(古董)에 푹 젖어 자기만의 멋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인 것이다. 조선 최초의 골동수집가란 평가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불심으로 높은 곳에 새기다

석가사리탑(釋迦舍利塔)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의 사리를 가지고 돌아와 봉정 석대 위에 5층 석탑을 세운 후 사리를 봉안하였다. 바로 봉정암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법당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오른쪽 바위를 보니 '석가사리탑(釋迦舍利塔)'이라고 새겨져 있다. 탑의 공식명칭은 '봉정암석가사리탑'이다. 이외에도 봉정암5층석탑, 적멸보궁사리탑, 불뇌보탑(佛腦寶塔), 불뇌사리보탑(佛腦舍利寶塔), 가리왕탑(歌利王塔) 등의 이름을 갖고 있다.

탑에 가기 직전에 석등 뒤 커다란 바위를 올려봐야 한다. 이곳도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높은 곳에 위치한 글씨를 새기기 위한 노력을 상상하기 어렵다. 아마도 불심이 없다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합장을 하고 잠시 머리를 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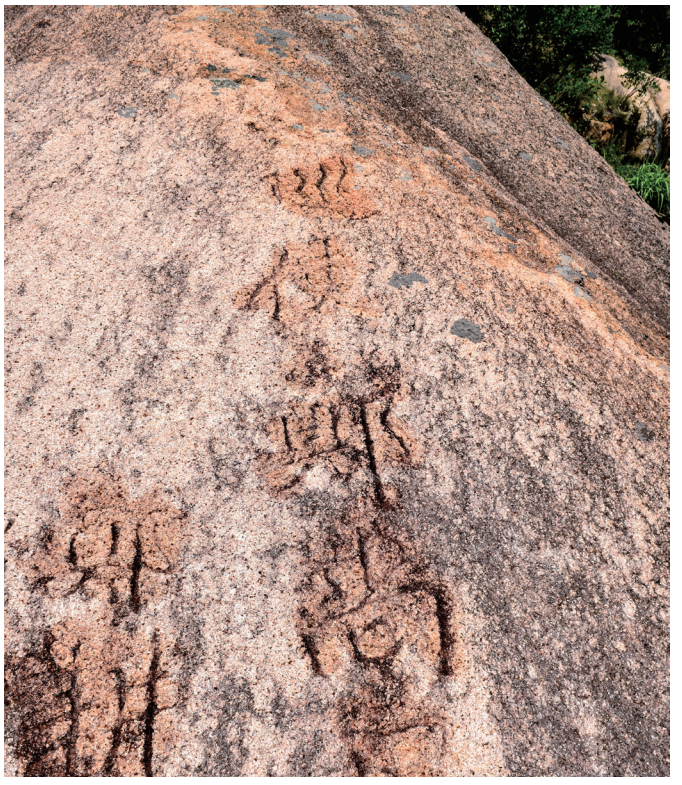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석가사리탑 탑대에 오르다

정상우(鄭尙愚)부터 조일수(趙溢洙)까지

시야가 트이자 탑이 우뚝 섰다. 탑은 커다란 바위를 뚫고 꽃처럼 피어났다. 탑이 있는 바위를 탑대(塔臺)라고 한다. 탑의 특징 중 하나는 탑대를 기단부로 삼은 것이다. 자세히 보니 바위 위에 연화문을 새겨 놓았다. 그래서 이 탑은 설악산을 기단부로 삼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악산과 탑은 한 몸이라는 설명도 그럴듯하다. 시대로 보아서는 자장율사가 활동했던 7세기 탑이 아니라, 2~3세기 가량 늦은 고려시대 양식이라고 한다. 나중에 다시 탑을 세우고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탑의 맨 위에는 연꽃인 듯 불꽃 모양인 듯, 원뿔형 보주(寶珠)를 올려놓았다. 탑 앞에는 불공을 드릴 수 있게 좌대가 깔려 있고 몇몇 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신



소재지 인제군 북면 설악산

냈고, 1810년에 대사간 · 대사헌을 거쳤으니 이곳에 들린 시기는 1808년부터 1810년 사이다.

정상우 옆에 정경우(鄭耕愚)가 나란하다. 정경우는 정상우의 동생이다. 정경우(鄭耕愚, 1770~?)는 순조 10년인 1810년에 식년시에 합격한다. 그는 익산 군수를 역임하였다.

정경우 옆은 정순교(鄭淳敎, 1788~?)이다. 그는 순조 14년인 1814년에 식년시에 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는 설악산에 왔을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정상우다. 정순교의 자는 계화(季和)다.

정선교(鄭善敎, 1785~?)의 자는 여심(汝心), 호는 이력(履歷)이다. 순조 16년인 1816년에 식년 진사시험에 합격한다. 옆에 새겨진 정순교는 그의 동생이다.

정석교(鄭錫敎, 1780~?)는 순조 9년인 1809년에 증광시 진사에 합격한다. 자는 여성(汝聲)이다.

그 옆으로 이름이 연이어 새겨져 있다. 탁본 도구를 챙겨갔으나 탁본을 하지 않아도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특히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니 이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원(李源)이 등장한다. 앞의 정상우(鄭尙愚) 집안과 달리 이원(李源)부터는 성이 제 각각이다.

이원(李源)은 『동국문헌보유(東國文獻補遺)』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 순종 3년인 1909년에 학자 이원이 편찬한 책이다. 이원은 이귀(李貴)의 후손으로, 조면(祖冕)의 아들이다. 책머리에는 필자의 서문이 있으며, 끝부분에는 김정호(金正鎬)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은 인물 · 제도 전반에 걸쳐 수록된 것으로 당시대의 문물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원 옆은 박인수(朴寅秀, 1855~?)다. 그는 고종 13년인 1876년에 식년시 진사에 급제한 사람으로 보인다. 자는 형운(亨運)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남유기(南維祺)는 역과(譯科)에 합격한 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남기문(南基文, 1814~?)은 헌종 9년인 1843년에 식년시에 급제하고 후에 내의원정(內醫院正)을 지냈다. 그의 할아버지가 남유기(南維祺)이다. 조일수(趙溢洙)는 알 수 없다.